



10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10호

(루게 384)



◆◆◆◆◆◆◆◆◆◆ 차 례 ◆◆◆◆◆◆◆◆◆◆

당이여 언제나 그대 위해.....	4
당원	5
풍년벌이 설레인다.....	6
당을 따라 영원히.....	8
수령님 품에 조국도 인민도 자랐건만.....	10
북받치는 감격에... ..	11
문학의 당성원칙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자!	12
단편소설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자.....	17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 구현의 고전적본보기	18
다듬은 말.....	22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품모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23
영원히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	30
우리 당이 태어난 력사의 집	33
해당화.....	36

당원-일군에 대한 생각.....	44
우리 선생님	46
잊을수 없는 모습.....	52
작품형상의 독창성과 초상묘사.....	54
단편소설의 흥미와 새로운 성격의 탐구	59
단편소설의 감정조직과 그 견인력.....	61
운반공 처녀	64
여해진.....	74
빛나라 《과수의 고향》	75
고임돌.....	77

당이어 언제나 그대 위해

석광희

깊은 밤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꽃망울같은 미소를 방긋이 지으며
잠자는 아이처럼

아 그렇듯 만시름 잊고 자는
그 아이와 같구나
당의 품에 내 모든것 말기고 살기에

세상에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것이 공기라면
그대는 공기
만일 세상에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것이 햇빛이라면
그대는 햇빛

하고싶은 말과 간절한 생각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도
달리는 더 말할수 없는 마음
오직 한마디 진정을 담아 부르노라
영광스러운 당이어
그대는 우리 삶의 모든것!

순간이나마 그대를 떠나
내 살수 있으라
그대가 없는 조국의 래일을
잠시도 생각할수 없기에

아마 그때문이리
가슴 터질듯한 기쁨이 생겨
혼자서는 목새길수 없는 그런 때마다
그대를 먼저 생각하며 눈굽을 적심은

그 언제나 우러러 따르는 마음

하늘처럼 높고높고
그 언제나 받들어 따르는 마음
바다처럼 깊고깊고
대를 이어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이어

정녕 그때문이어라
때로는 목숨으로만 헤칠수 있는
간고하고 준엄한 길을 갈 때에도
외롭지 않고
서슴지 않고
질칠줄 모르는
힘이 솟고 용기가 솟고 지혜가 솟아오름은

수령님을 위하여
당중앙을 위하여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일을 하고
내 심장 멎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울것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늘엔 태양이 있어야 하듯
땅우에는 당이 있어야 함을
더욱더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나니

아 그대 없이야
천만의 심장은 있어 무엇하리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어
이 땅의 머나먼 한끝
그 어느 이름없는 초소에 가있어도
그대를 지켜 가장 가까이 서있는
정문보초의 충직한 마음이 되어
내 작은 심장도 언제나 불타 오르리

당 원

리금녀

내 어린시절
낮에는 밭김매고
밤에는 폭탄구덩이를 메우던 어머니
군에 갔다오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순희야 어머니는 당원증을 받았단다

새물이고개 분교에 가며
얼마나 내 자랑했던가
우리 엄마 당원이 되었다고
아이들은 산딸기를 따
큰것을 골라주었다

전사한 아버지의 편지를 놓고
몰래 훔치던 어머니의 눈물
다시는 볼수 없었고
단 한마리 점박이염소마저
어머니는 조합에 내갔다

철없는 그 시절 나는 생각했다
당원증엔 아버지의 사연 다 있고
발을 가는 힘이 있는게라고
잠든 어머니를 더듬어 젖가슴처럼
아 당원증 그우에 손을 얹은채
나는 잠들었다

울밑 배나무에 소슬바람 일어도
덧문을 닫아주던 어머니
보슬비 내려도 동구밖까지
나를 찾아나오던 어머니

그 어머니
불비속을 뚫으며

온 마을의 앞장에서
탄약상자를 이고 떠난 밤

언제 돌아올가
어머니를 기다려 울먹이던 새벽
내 그날엔 다 헤아릴길 없었다
어머니가 걸어간 그길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지

세월은 흘러
아버지의 념원이
이삭으로 맺히고
어머니의 구슬땀이 열매로 무르익는
풍년벌을 가꾸며
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 드리는
나도 오늘은 땅의 새 주인

산기슭 파원에 꽃을 피워주고
집집의 창가에 노을을 비껴주는 해빛처럼
굽이굽이 벌을 감돌아적시는 생명수처럼
언제나 내 가슴에 넘치는
고마운 당의 사랑이여

어머니 당원증에
손을 얹고 잠들던 그 밤처럼
들에 나가면
들은 내 삶이 뿌리내린 고향의 품
황금의 나락은
대지에 입당청원을 새기는
내 심장의 노래

밤새 돌각담을 헐어버린 발머리에서
찾아낸 새 땅을 기쁨에 겨워 안아보며

나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빛은
한 당원을 키워가는 자랑이 있어
그리도 그윽했던가

내 당의 규약을 새기며 걸은 버들방천은
함께 폭풍을 헤쳐넘을
어머니의 축복이 별빛으로 깔려
그리도 정다웠던가

잊을수 없어라
나의 입당이 결정되던 날
세포총회에서 손을 들며 눈물에 젖던
어머니의 주름잡힌 그 얼굴을

소방을 올리며
아버지가 애국미 싣고 넘던 새물이고개집
내 뺨스에서 내리며
마중나온 어머니품에 얼굴 묻었다.

-어머니, 당원증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나란히 고향집을 걸으며
우리는 처음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쭉 그림자는 둘이었어도

당을 받들어 하냥 행복한
우리 한식구

아버지도 함께
새 당원이 걸었다

폭풍도 불길도 헤치며
우리 앞에 걸어난 수많은 당원들
그 별처럼 빛나는 번호에서 시작되어
나에게 이어진 고귀한 그 이름
가정과 조국의 운명이 얹혀 있고
당의 반세기 력사가 새겨진
당원증을 품은 한없는 긍지여

준엄한 혁명의 길에
수백수천의 원쑤와
내 혼자 맞서도
결코 두렵지 않으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려준
내 심장속에
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뜻 새기고
내 이렇듯 수령님의 딸
당의 딸로 어엿이 서있기에

풍년벌이 설레인다

김영근

불어오는 바람결도
정답구나
들 가득 설레이는 벼바다
구름가에 스적이는 강냉이바다

이땅에 넘치는
만풍의 기쁨이
저 하늘에 어렸는가

하늘도 이 마음처럼
가없이 푸르게 열렸구나

주렁진 이삭들을 무르익히며
다락밭 강냉이숲에
해빛은 파사로이 내리고
꽃피는 벼이삭의 파도우에
두루미가 훑훑 나래치는

풍요한 벌이어

벌에 가득

언덕에 가득

넘쳐나는 풍년나락은

고마움에 젖는 감사의 마음이어서

저리도 설레이며 끝없이 물결치는가

이 풍년

이 기쁨을 안겨주시려

어버이수령님

걸으신 들길은 얼마이시며

넘으신 령길은 얼마이시랴

강냉이 숲 설레는

언덕을 바라봐도

자애에 넘치신 수령님 영상 어려오고

벼이삭 물결치는

들판을 바라봐도

가슴가득 어버이사랑 안겨와라

늦가을 찬바람속

나무리 넓은 들을 걸으시며

올해의 새봄맞이 앞당겨주시고

봄 여름 동해 천리길에

함주벌, 어랑땅을 걷고걸으시며

북방의 과학농사 꽃피워주신

우리 수령님

모내기철에는

기계를 더 주시려 찾아주시고

포기마다 실하게 아지칠 때엔

비료를 더 주시려 다시 찾아주신

아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들에 언덕에

풍년나락 바다로 펼쳐졌구나

그 길우에

그 자옥우에

주체농법 꽃이 피여

벌방에도 풍년노래

두메에도 풍년노래

어버이 그 사랑 그 언덕

따사로운 해빛이 되어 비치니

동해의 굽이굽이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서리였던

찬서리 찬안개도

그 은혜로운 해빛아래

영원히 가서졌어라

온 세상에 가물이 들고

흉년이 든다 해도

인민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어버이 다함없는 그 사랑

만풍년의 바다 되어 물결치는 조선

서해 천리에도 풍년

동해 천리에도 풍년

조선은 이 만풍의 바다를

온 세상이 다 보라고

가없는 하늘가에 펼쳐들었구나

아 해마다 이 땅에

만풍의 기쁨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싣고

고마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그 은정을 노래하는 마음을 싣고

설레이고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

당을 따라 영원히

김학연

기발이 휘날린다
가없는 저 하늘을
아침노을로 물들이며
당의 기발이 펄럭인다

마음 숙연히 우러르면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금지
가슴에 뜨거이 넘쳐나고

조용히 귀 기울이면
비약의 억센 날음소리
창조의 거창한 동음소리
가슴에 세차게 울려온다

시대를 넘어
시대를 이어
혁명의 거세찬 불바람
이 땅위에 끊임없이 일으키며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
누리에 찬연히 펼쳐가는
오, 영광의 기치인 당이어!

그대 한번 걸음 옮기면
억만의 걸음이 그 한길로 나아가고
그대 한번 결정 내리면
억만의 심장이 그 결정 받들어
하나로 높이 고동친다

그대 숨결 높이 뛰면
끝간데 없는 수평선도
황금의 지평선으로 설레이고
그대 자욱 찍히면
섬광 번뜩이는 철의 지붕들이
진펄위에 산맥처럼 솟아오른다

그대 그 어떤 힘을 지녔기에
그대 기발 날리는곳에

산악도 폭풍도 길을 비끼고
력사의 흐름위에 솟구치는 모진 격랑도
그대 가는 길
막지를 못하는것이냐

다는 헤아릴수 없으랴
당이어
그대 지닌
그 무한대의 힘을

그대의 신념은
억척같이 드놀줄 모르는
주체의 신념
그대의 예지는
창조의 불꽃
새 세기의 상상봉우에 빛발치는
주체의 예지

그대 높이 추켜든
우리 당의 기발은
백두밀림 눈보라속을 뚫고온
투사들의 성스러운 피가 스며
그리도 붉고

그 억센 펄럭임은
지칠줄 모르는
그대의 패기와 열정
그대 불굴의 기상 지녔기에
그리도 생기발랄하고
그리도 숭엄한것이어라

조용히 우러르면
가슴에 뜨거이 젖어드는 생각
무엇때문에 내
이 땅에 태어났고
내 심장 무엇을 위해
높이 고동쳐야 하는가

찬서리에 망울로 시들어
차디찬 길가에 짓밟히던
내 소년시절의 눈물을 영원히 가셔주었고
그 눈동자에
조선의 맑은 하늘을 비쳐준 당!

이 가슴에
영원한 심장을 주고
이 심장속에
티없이 깨끗한 피방울 끊임없이 부어주며
우리 모두를
삶의 존엄을 지닌
세계의 주인으로 세워준
오, 영광스러운 당이여!

나의 운명
내 스스로 그대에게 맡겼고
나의 운명
그대 그 한품에 뜨거이 안아준
당을 위하여
내 무엇을 아끼랴
나의 삶 나의 운명
당을 떠나 생각할수 없나니

오늘도 끝나지 않은
우리 당의 행군길으로
백두산의 풀냄새 배인
전투배낭을 지고
우리는 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숨을 쉬어도
당의 숨을 쉬며
말을 하여도
당의 말을 하며
당의 령도따라
당이 부르는 그 한길로
우리는 간다

혁명가의 무조건성
이는 항일전의 혁명투사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준
혁명전사의 량심
참된 삶의 송가

당이 준 심장
당의 숨결로 고동치지 않는다면
삶의 혈맥 끊어진 그 심장
가슴에 지녀 무엇라리

당의 부름은
우리의 지상의 명령
바치리라 이 한품
그대 부르는 그 한길에

그 길에 쓰러진다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우리 백번 다시 일어나
당중앙이 부르는 그 한끝까지
기어이 가닿으리

우리의 투쟁과 전진의 등대
우리의 창조와 위훈의 날개
우리의 눈동자에 영원히 간직된
가장 숭고한 삶의 빛발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

오, 기발이 휘날린다
새 세계의 하늘을
주체의 붉은 노을로 광휘로이 물들이며
당의 기발이 펄럭인다

우리 영원히 받들어가리라
위대한 향도의 기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리 영원히 우러러따르리라
백전백승의 기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수령님 품에 조국도 인민도 자랐건만

한원희

창밖엔

맑은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목메이게 향기를 뿜어올리는
4월의 명절

한없이 승엄한 교묘속에
온 세상이 귀 기울이는듯
여기 만수대의사당엔
삼가 뜨거운 마음이 흐르고

깊은 감회에 잠기신채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여라
오랜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왔으니
기쁘시다고…!

일찌기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시여
이날까지 동지들의 사랑속에 사시며
오늘을 맞으셨다는 말씀엔
온 장내가 흐느끼고…

동지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받들어주었다고
뜨겁게 하시는 말씀엔
어깨를 들먹이며
더더욱 흐느끼고…

수령님께선 말씀을 멈추시고
멀리 창밖을 바라보시여라
아, 얼마나 행복한 조국땅이
그이 품에 안길듯 달려오는가

기나긴 반세기
인민을 이끄시고
조국을 이끄시고
걸고 걸으신 그 길우에 솟아난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
거창한 강철지구와 꽃피는 대지가

수령님 우리러 달려오건만

한평생 쌓이고 쌓인
못잊을 추억을 더듬으시는듯
내가 오늘까지
건강한 몸으로 일할수 있는것은
동지들의 덕택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이으시는 말씀이어

백두의 우등불가
그이 앞에서 가가거거를 배우고
총쏘는 법을 익힌 항일투사도
그이 앞에 새 삶을 받아안은
오랜 지식인도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조국도 인민도
그이 품에 자라났건만

혁명앞에
시대앞에
안아올리신 불멸의 위업을
동지들의 영광으로 돌리시며
다시 또 다시 말씀하시여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것은
동지의 사랑입니다
나와 굳게 손잡고 일해온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 행복의 바다
격동의 바다
우리 혁명이 떠나온 첫기슭에서부터
인민을 동지로 믿어주시는
우리 수령님!

그 믿음을 안고 싸웠기에
우리 인민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원썩 미제를 짓부서버리었고
주체의 해빛 찬란한 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였나니

혁명의 길에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수령님 두리에 온 인민이 동지로 굳게 뭉친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은
이 땅에 영원한 승리만을 안아오리라
가장 강대하고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가장 빛나는 삶을 길이 누려가리라!

북받치는 감격에...

-삼지연 대기념비앞에서-

윤병규

물결 설레는 여기 못가에
진달래 한아름 쓸어안고
우는듯 웃는듯 불을 비비는
항일의 녀대원

불우에 맺힌 구슬같은 눈물
뜨거운 눈빛
소리없는 흐느낌...
《아! 내 조국》

이 땅을 그리안고
이 한마디 부르는 길이
그리도 멀어야 했던가
그리도 험해야 했던가

압록강 건너 긴긴세월
언제나 못잊어 그림던
그늘진 어머니의 얼굴
소급시절포레들의 고운 눈길...

행군의 설참
이름모를 한떨기 들꽃을 보아도
못견디게 가슴 흔들던
고향집 들창밖의 푸른 하늘
울밑의 봉선화...

그 정답고 살뜰한 고향
고향을 낳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어버이장군님을 따라 총을 잡고
수만리 불비속을 헤쳐온
유격대의 녀전사!

기다려 반기듯
일시에 꽃망울 터치는 진달래
풍기는 그 맑은 창가에서
그립던 조국의 숨결을 느끼며
온몸으로 마음으로
억세게 조국을 그리안았구나

아 그날의 발자욱에
눈송이 지고 내려 몇십년이 흘렀는가
오늘도 투사의 불우에 맺히여
우리 삶의 길 준절히 깨우치며
바람에도 씻기지 않는 저 눈물...
해별에도 마르지 않는 저 눈물...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즐거이 거닐며
누리는 행복에 목이 메는구나
내 짓는 눈물이 천만방울인들
저 한방울 눈물의 뜨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북받치는 감격에 더운 눈물 머금고
심장으로 다시 그리안는 내 조국
아 떨어져선 살수 없는
어머니 조국이어!

문학의 당성원칙을 더욱 철저히 견지하자!

차균호

온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34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우리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태어난지는 34년이지만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으로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면 53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이다.

당의 뿌리가 내리고 창건된 10월의 이 혁명적명절을 맞는 우리는 지난 반세기도 넘는동안 당의 령도밑에 걸어난 자랑스런 투쟁과 불멸의 업적으로 아로새겨진 승리의 로정을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승리의 로정에는 문예분야에서 거둔 찬란한 성과도 빛을 뿌리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전투적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도 주체적문제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혁명연극과 혁명가극, 혁명가요들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심으로써 주체적인 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혁명문학예술은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당성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었으며 조선인민의 가장 고귀한 사상문화적재부로, 우리 문학예술의 력사적뿌리로 되었다.

해방후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의 깊고 역센 뿌리에서 태어난 우리 문학예술은 주체의 광휘로운 해빛아래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되었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세상사람들속에서 《현대인류의 예술을 대표하는 가장 리상적인 예술》로 불리우고있다.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고 있던 이땅에 민족문학예술의 일대개화를 이룩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은덕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앞으로도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적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고 있다.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더욱 찬란히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문학예술에서 당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과 근본요구를 명철하게 밝혀주고 있다.

문학예술을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시키며 당의 로선과 맞지 않는 요소를 허용하지 않는것은 당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당성을 견지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문학예술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발전시킨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문학예술의 당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문학예술건설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문예활동의 전 과정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그 어떤 잡사상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주체의 문학예술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문학예술로 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문학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시켜야 인민에게 복무하고 혁명을 촉진시키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으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공산주의문학예술로 가장 빨리 꽃피여날수 있다.

문학예술의 당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제일생명이며 문학예술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참으로 당성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문학예술만이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으며 당의 혁명위업에 참답게 이바지 할수 있다.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문학예술 형상의 중심에 가장 높이 우리러 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있고 격조높게 형상하는것은 언제나 우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요구이다.

영광스러운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령도와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된다.

오늘 우리 당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전과업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당의 혁명위업에 힘있게 복무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감명깊게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최상의 사상에술적률에서 창조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지향이며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시대적요구이다.

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인 우리 당을 노래한 작품을 훌륭히 창조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이 땅위에 로동당시대로 불리우는 일대 민족적변명과 룡성의 새 시대를 펼쳐놓은 우리 당을 감명깊게 노래하는것은 작가들의 더 없는 영예이다.

우리는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전백승의 당으로,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과 건설의 추진력으로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당》으로 훌륭히 노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보의 사실처럼 신속 정확히 반영하는것은 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혁명의 근본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 인민대중의 지향과 발전하는 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떠한 문제든지 리론실천적으로 명백히 다 해명되어 있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등대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예술은 매시기 제기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영해야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제로 불리일으키는 선도적역할을 다할 수 있다.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문학의 전투

적사명을 다하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의 사상에술성을 빨리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은 곧 당정책을 신념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생활과 투쟁이며 우리의 현실은 당정책이 빛나게 구현되어 가는 혁명적현실이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으며 우리 시대의 전형을 옳게 창조할수 없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정확히 가려낼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시대의 전형을 옳게 창조할수 있다.

당정책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종자를 골라잡아야 하며 작품의 형상체계를 세울때에도 반드시 당정책적인 대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작품의 형상체계를 세울때에 당정책적견지에서 본질과 현실을 옳게 가려보고 어느것이 기본을 이루어야 하며 어느것이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선을 명확히 갈라내야 한다. 그리구 작품의 기본형상체계가 생활의 본질에서 벗어나가지 않도록 당정책적견지에서 울타리와 담장을 튼튼히 치고 창작과정에도 거기에서 조금도 탈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작품창작에서 신속정확히 반영할뿐 아니라 당의 문예방침과 어긋나는 반동문학예술의 온갖 독소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에게 혁명에 어긋나고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부르조아문학예술이 잠시도 발붙일곳이 없으며 로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위하여서만 끝없이 광활한 무대가 열려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에 튼튼히 서서 창작활동을 진행하며 자연주의와 도식주의의 각종 표현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함으로써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정치성만 강조하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강연이나 다름없는것으로 되며 반대로 정치성, 사상성, 혁명성을 무시하고 예술성만 강조하면 자연주의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상성과 예술성과의 호상관계에서 그 어느 한 측면에만 기울어지는 온갖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두 측면에 다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성을 홀시하고 예술성만 강조하는 자연주의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조아문학예술의 주되는 조류이다.

우리 문학예술에는 물론 사회생활과 동떨어져 자연만 찬미하거나 전형화를 거부하면서 사회생활의 개별적측면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외곡하는 조류로서의 자연주의는 없다. 그러나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내부에 부르조아반동문화를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작가, 예술인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낡은 사상잔재가 완전히 없어지지 못한 조건에서 부르조아문학예술의 주되는 조류인 자연주의의 침습과 그 사소한 표현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참으로 자연주의의 침습과 그 사소한 표현과도 철저히 투쟁하지 않고는 우리 문학예술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할수 없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는것도 자연주의의 중요한 표현형태의 하나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생활현실을 어떤 립장에서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것은 사실주의와 반사실주의, 혁명적문학예술과 반동적문학예술을 갈라놓는 분기점으로 된다.

생활현실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반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기본요구이며 당의 일관한 문예방침이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문학예술만이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고 그들에게 새힘과 용기를 북돋아줄수 있다.

인민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반영하지 못한 작품은 인민들을 공감시킬수 없고 도대체 그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에서 생활을 과장하거나 미화분식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소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하여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가령 근로자들이 하루에도 옷을 몇번씩 갈아입으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거나 양산을 쓰고 유모차나 밀고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며 탁아소에서 어린이들이 매일과 같이 인삼탕을 먹는것을 자주 형상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또한 서정시가 하늘아래 첫동네라는 먼 산골농장에서 한겨울에도 싱싱한 오이채를 비롯한 황홀한 진수성

찬을 먹으며 산다고만 노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실생활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현실에 없는것을 뛰어넘어 그리거나 과장하는 작품은 독자들의 믿음을 살수 없으며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과장하여 보여주는 작품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옳게 보여줄수도 없으며 독자들의 교양에 유해롭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혁명적내용을 높은 정치사상적각도에서,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묘사해야 한다.

얼마 안되는 지주, 자본가 계급을 위하여 마련된 자본주의사회는 결보기에는 호화로운것 같지만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에게는 생지옥과 같다. 그러나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일차리에 대한 걱정, 먹고 입고 쓰고 살 걱정, 병이나도 치료받을 걱정을 모르고 다 같이 배우며 고르게 살고 있다. 상점에도 사치하고 호화로운 상품보다 보통사람들이 입기 좋은 수수한 옷과 대중용상품이 많다. 이것은 미일침략자들의 강도적책동으로 말미암아 70여년동안이나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 남녘동포들을 잊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조국통일위업이 이룩되지 못한 조건에서 결코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검박하게 살려는 우리 북반부인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전투적이고 소박하며 검박하고 문학적인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과 미감에 맞지 않게 생활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그려내면 사람들에게 안일성과 향락주의를 고취할수 있으며 옳은 혁명적인 생활관점도 세워줄수 없다.

생활을 과장하고 미화분식하는것은 결국 성격을 리상화하고 본질을 외곡하는데로 떨어지며 사람들의 사상을 몽롱하게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을 왜소하게 그리지 말아야 할것은 물론 미화분식하지도 말아야 한다.

생활을 미화분식하는 경향과 투쟁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문학예술과 인민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이다.

자연주의수법은 생활을 미화분식하는데서뿐아니라 예술성을 운운하면서 순수한 서정을 추구하는데서도 나타날수 있다.

시나 소설이나 가사는 다 예술인것만큼 서정성이 있어야 하며 서정성은 예술성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문예작품에서 사상은 정서와 결합되어야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표현될수 있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동을 줄수 있다. 정서적인것을 떠난 사상은

메마른 개념과 추상성을 면할수 없다.

예술형상의 이러한 특성은 어떠한 작품에서나 정서가 혈맥처럼 흐를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정서는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혁명적이며 전투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가령 오늘 우리 시대의 근로자들의 생활을 어둡고 불안한 정서적색갈이나 안온하고 목가적인 정서적색갈로 그려낼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현실반영의 진실성을 담보할수 없을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외곡으로 되며 암암리에 당과 제도를 모독하는데로 굴러떨어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오늘의 현실을 그리는 작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을 응당 밝고 낙관적이며 희망차게 그려야 할것이다.

그래야 오늘 우리 인민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에 넘쳐나는 약동하는 기백과 혁명적인 서정을 훌륭히 노래할수 있다.

작가들은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기본흐름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심리적이요, 정서적이요 하면서 고요한 달밤이나 꽃을 찾아다니며 시대와 생활발전의 기본추세와 그 본질적특징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것이다.

시대의 격류와 떨어져 어떤 그늘진 생활에서 애수와 영탄, 비애를 찾거나 계급선이 모호한 안온하고 소극적인 감정을 읊조리는 경향은 우리 문학예술에 잠시도 발붙일 틈이 없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교양적목적이 명백히 설정되고 열렬하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정서적색갈로 일관된 작품만이 필요하며 그런 작품만이 독자들의 뜨거운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교양적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생활, 안온한 이야기나 실없는 사랑에 대한 한담, 자질구레한 신변잡사를 흥미본위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의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문학예술을 계속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상성을 홀시하고 예술성만을 절대화하는 자연주의를 반대할뿐아니라 예술성을 홀시하고 정치사상성만 강조하는 도식주의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높은 정치사상성은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적형상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예술적형상수준이 낮은 도식주의작품은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줄수 없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게 하는 도식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는 당성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수 없고 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킬수 없다.

문학예술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비속화하

는 도식주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는 사상을 형상체계의 전반에서 스스로 정서적으로 흘러나오게 하지 않고 어느 한 두대목에서 직선적으로 설명해버리는데서 나타난다. 문학작품의 사상은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선을 따라 생활을 깊이 있게 그려나가는 과정에 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밝혀져야 한다.

사상을 몇마디 대사로 선언하거나 작가자신의 호소로써 생경하게 드러내놓는것은 형상이 아니라 억지이며 구체적인 생활로 납득시키는것이 아니라 추상적개념으로 설교하는것이며 이것은 결국 형상을 죽여버리고 예술작품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된다.

우리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줄 대신 설화로 대치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가령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이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러 한다면 충실성이나 행복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지 않고도 생활에 대한 정서적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감정이 스스로 흘러나오게 해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에서 도식주의는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하는 철학성이 없이 상식적인 세계나 미담을 그저 소개하고 인간문제 대신에 생산기술적문제를 내세우는데서도 나타날수 있다. 이런 작품일수록 웅심깊은 인간내면세계의 여운이 없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상적여운도 없으며 첫페이지를 읽으면 끝이 뻗드름하게 내다보이며 흥미가 없게 된다.

문학은 인간문제를 진정한 인간학의 견지에서 올바르게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하게 하며 그들이 보다 참답고 건전하게 생활하여나가도록 교양과 교훈을 주어야 한다.

철학성을 높이는것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인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기초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우리 인민들의 벽찬 생활의 필수적요구이다.

지난날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한세대에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하였으며 짧은 력사적기간에 전혀 새로운 유형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궁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었다. 뿐만아니라 남들이 한세기 또는 몇세기에 걸쳐서야 수행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도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고 재더미만 남은 폐허우에서 불과 14년동안에 훌륭히 해제졌으며 오늘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이와 같은 세기적인 변혁은 우리 인민의 사고 방식과 사상정신생활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 력사가 일찍 알지 못하였던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헤쳐오면서 우리 인민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체험을 겪어왔던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혁명적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현실과 영웅적인민들의 이러한 생활을 반영한 작품은 응당 철학성이 높아야 한다. 뽀드름하고 상식적인 형상으로는 풍부하고 다양한 우리 현실을 심오하게 반영할수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아무런 록색도 없는 류형성을 범하는데서 특히 많이 나타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은 응당 사상적내용에 있어서 풍부하고 심오하여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도 새롭고 비판복적이어야 한다.

인간과 그 생활이 다양하고 창작가들의 개성이 다양한만큼 문예작품은 응당 독창적이고 다양해야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신으로 교양할수 있고 문학예술발전에도 독자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작품이 새로운 문제를 특색있게 들고 나오지 못하거나 인물성격, 생활묘사, 형상수법, 기교에서 비판복적인 경지를 개척하지 못하고 류형적인 틀에 매달린다면 것처럼 따분한것은 없다. 아무리 이밥이라도 하루 세끼 똑같은것을 먹으면 흥미가 없으며 아침과 점심이 다르고 저녁도 다른것을 먹어야 맛이 있는것처럼 정신적량식인 문학작품도 다양하고 특색이 있어야 흥미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그러므로 류사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독창성을 살리는것은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문학작품에서 류사성은 현실주제작품의 인간관계설정에서 흔하게 나타날수 있다. 인간관계를 옹계 설정하는것은 작품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보여주며 구성의 짜임새와 립체성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인간관계설정에서 류형성을 범하면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작품의 구성과 엮음새도 비슷해지고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인간문제도 비슷해지지 않을수 없게 된다.

주체적 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게 되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그런데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새세대와 오랜 세대, 노동자와 행정관리일군, 노동자와 기술인테리관계를 설정하고 전자는 다 긍정인물로, 후자는 부정적성격으로 형상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류형적인 인간관계는 필연코 생활반영의 류형성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적내용에 있어서 어느 력사적시기보다 비할바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의 내용을 옹계 반영할수 없을뿐아니라 외곡하게 될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의 일제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민족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는 적들의 리간책동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였으며 그만큼 계급투쟁도 류례없이 복잡하고 심각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온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꺾 들어찬 하나의 정치적이며 혁명적인 대가정으로 되었다. 주민구성이 복잡하던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기까지의 세기적변혁과정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인간관계들이 얹혀졌겠는가. 또한 오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는 매일매시각 세상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창조되고있겠는가. 인류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롭고 훌륭한 인간관계와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현실을 몇개의 틀에 맞춘 상식적인 인간관계로써는 도저히 옹계 보여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오랜 세대는 다 개조대상으로, 새세대는 모두 교양자로만 형상하는 류형적인 인간관계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유해로운 작용을 낼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설정에서의 류형성은 형상방법에서의 류사성도 초래할수 있다.

부정적인물을 긍정인물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주로 부정의 시점에서 긍정인물을 형상하는것도 이러한 편향이라고 볼수 있을것이다. 무엇때문에 긍정인물을 정면에서 주도적으로 형상하지 않고 부정의 시점에서 비추어서 굴절적인 형상방법으로만 보여주겠는가.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수십년간 혁명의 한길에서 몸바쳐투쟁한 오랜 세대가 젊었을 때에는 다 혁신자로 이름을 날렸는데 나이 많아감에 따라 어느새 자만자족하는 보수주의자로 전락되는 형상을 흔히 볼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성격이 변화되게 된 생활적바탕을 설득력있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있으며 또한 그가 개변되었다면 자기 결함을 인정하는데 그치는것으로 작품을 끝맺는데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뒤떨어졌던 인물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것으로 끝내기보다 그의 개조된 뒤의 새롭고 보람찬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의있는것인가를 자연스럽게 리해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우리는 또한 부정인물의 개변의 계기를 도식화하고 개조과정을 쉽게 처리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부정인물의 개조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그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심각한 사상혁명 과정이며 새로운 주체적인간의 탄생과정인것만큼 그것을 쉽게, 안일하게 처리한 작품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 될수 없다.

도식주의는 창작에서 대담성과 창발성을 내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며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상적근원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을 더 빨리, 더 높은 수준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

대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며 현실에 깊이 들어가 기발하게 착상하고 대담하게 창작하여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당성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당문에정책을 정확히 옹호관철하며 당의 문예방침과 어긋나는 온갖 자연주의, 도식주의의 사소한 표현과도 날카로이 투쟁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여야 할것이다.

독자편지

단편소설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자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3대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벅찬 현실입니다.

이 벅찬 시대의 흐름속에 자주적인 인간의 참된 삶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세인을 경탄케 하는 창조와 건설의 력사가 펼쳐지고 조국의 래일이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현실은 생활의 예술적반영으로서의 우리 문학앞에 내용과 형식에서 류사성과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식들을 적극 탐구하여 새맛이 있고 참신하며 밝고 아담한 작품들을 써내어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더 잘 이바지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특히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을 가장 전투적이고 기동성있게 반영하여 우리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켜야 할 임무를 지닌 단편소설문학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시기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설정을 다양하게, 참신하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내놓은 로선과 방침이 다 명백한것만큼 당의 로선과 방침에 근거하여 사실자료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면 될것입니다.》

사람들의 사회관계의 예술적반영으로서의 작품에 설정된 인간관계는 예술적형상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의 종자에서 태어난 식물체에 아름다운 열매를 떠맡든 원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새들이 달려있는것처럼 단편소설에서도 하나의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뚜렷이 설정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설정에서 도식과 류형은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는데서 압으로 된다고 봅니다.

새세대들은 주인공이나 부차적인물이나 무조건 다 혁신자들로 설정하고 작업반장이나 중대장 같은 오랜 일군들은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부정인물들로만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현실에 힘각하여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고 주인공의 형상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생활의 논리에 맞게 다양하게 맺어주어 그 작품에 필요한 인물이 엄격하게 선택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끌어들인 인물들은 크나작으나 자기의 형상적과제를 안고 호상 의존, 제약하면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것입니다.

또한 단편소설에서는 인간관계설정의 생활적범위를 더욱 넓히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될수록 같은 부문의 생활을 취급한 류형적인 작품들을 피해야 할것이며 도식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회주의 농촌현실주체의 단편소설들만 놓고보더라도 알곡생산이나 기술혁명 등 몇개 부분의 생활만 강조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농촌의 계급적핵심들이며 우리 당의 기동인 유가족들, 일제식민지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된 조국땅에 첫씨앗을 뿌리고 협동화의 대문에 들어선후 오늘까지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오랜 농업전사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다그치고있는 농촌인테리들과 기술일군들, 농촌 제대군인들...

인간관계설정의 생활적폭을 넓힐 주제분야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인간들간에 맺어지는 비반복적이고 참신한 관계를 독창적으로 탐구설정하고 전개함으로써 단편소설의 형상적질을 더욱 높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체문학의 터전우에 떨기마다 새로운 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단편소설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청군 파향협동농장 김재덕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 구현의 고전적본보기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보고-

리영구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역사물 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미학리론 및 창작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특히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을 구현하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는 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미학적범주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적요구로 된다.

그런데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보다 역사물창작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왜냐 하면 역사물창작에서 기본문제로 되는 역사주의원칙과 현대성원칙을 옹계 구현하려면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민족의 오랜 역사발전과정에 형성공고화된 민족적특성은 상대적으로 견고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시대와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발전된다.

그러므로 역사물창작에서 해당력사적시대에 발현된 민족적특성을 역사주의원칙에서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구현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혁명영화는 어떻게 정확히 해결하였는가.

이 고전적명작은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를 어느 한두 대목에서만 아니라 전반적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해결하였다.

그렇기 때무에 이 혁명영화는 첫 시작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의 심장을 틀어쥐고 커다란 감동과 감흥을 자아내며 심금을 울려준다. 그리하여 관중들은 짙은 민족적정서속에서 고상하고 엄숙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격분하기도 하며 참을수 없는 분노에 치를 떨기도 한다.

이 과정에 깊은 철학적진리를 깨닫게도 되고 우리 민족사의 한 시대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재인식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 영화가 거대한 사상에술적감화력을 가질수 있는것은 역사물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민족적특성과 현대적미감문제를 비롯한 모든 미학적문제들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였기때문이다.

먼저 혁명영화에서 민족적특성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해결하였는가에 대하여 몇가지 레만 들어보기로 한다.

민족적특성은 민족적 성격과 심리, 민족적감정, 생활풍습, 언어에서 표현된다.

우리 조선사람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은 강한 애국정신과 용감하고 불굴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것이고, 진리와 도덕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것이며,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것이고, 문명하고 레절박고 외유내강한것이다. 그중에서도 어느 민족보다 애국심이 강한것이 우리 민족적특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두고 외래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워 조국을 수호하였으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용감성과 불굴의 기상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의 강한 애국심은 오랜 역사적기간에 외래침략자들과 수없이 싸워 조국을 지켜내는 과정에 형성공고화된것이다.

이 혁명영화에서는 어느 민족보다 강한 우리 인민의 애국심을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민족적특성을 가장 정확히 해결하였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조선민족이야말로 그 어느 민족과도 비길수 없는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있는 민족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고 끝없는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실로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오랜 역사적기간에 형성공고화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애국심을 가장 완전무결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준 불멸의 기념비적대작이다.

바로 이것이 이 혁명영화가 거둔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로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자주와 침략, 애국과 매국의 갈등속에서 발현되는 우리 인민이 숭고한 애국정신이 흘러넘치고있다.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세부까지도 다 우리 인민의 불같은 애국심을 보여주는데 복종되어있다.

그리하여 이 혁명영화는 전인민적으로 발휘한 애국정신과 안중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물들에게서 발현된 애국심의 각이한 형태를 진실하고 훌륭히 펼쳐보여주고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통곡소리가 삼천

리강산을 진감시켰다. 늙은이들도, 규방의 녀인들도, 아이들도, 막벌이군들로부터 고관들에 이르기까지 을사5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망국의 비분에 대성통곡하였으며 열혈청년들은 왜놈과 싸우려 무장을 들고 일떠섰고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순국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음흉한 술책으로 하여 나라에서 결미친 일천만원의 국채를 보상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건져보겠다고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떨쳐나선 이 《국채보상운동》에 늙은이들은 담배를 끊고 아이들은 나무를 해다 팔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뽑아 바치는 등으로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이 혁명영화에서는 우리 인민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형성공고화된 고유한 민족적특성의 다른 측면들도 진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그 다른 측면들도 다 우리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영화는 그 측면들을 생동하게 부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여 보여주었다.

혁명영화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의 하나인 진리와 도덕을 무엇보다 존중히 여기는 품성도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여 감명깊이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조선인민이 계승하여내려오고있는 전통적인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제침략자들이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장면에서 참정대신 한규설은 자기는 조약에 찬성할수 없다고 단호히 반대하였고, 이등박문이 책상을 치면서 위협하자 같이 책상을 치며 당신은 외국대사로 조약을 체결하러 왔는가, 아니면 상전으로 하인네 집에 호령하러 왔는가고 외친다. 한규설은 부패무능하고 백성들을 억압착취하던 봉건통치배의 우두머리이긴 하지만 재물이나 권세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존중히 여기고 나라의 존엄을 위해서는 량심이 시키는대로 양보하지 않는 조선사람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리근택의 집 식모 한씨도 리근택이 매국역적임을 알자 자기 한몸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그놈을 면전에서 역신이라고 단죄하고 서슴없이 뛰쳐나온다. 이러한 형상은 그가 비록 비천한 식모노릇을 하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함께 우리 인민의 끈은 기상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한씨의 이 형상은 조선녀성의 외유내강한 특성도 잘 보여주고있다.

대한문을 지키는 조선 군관과 군인의 형상도 그렇다. 일본군대가 궁성에 침입하려 하자 단호히 막아나서서 물러가라고 호령하고 칼을 뽑아들

고 위협하는 왜놈장교앞에서 끄떡하지 않고 조국의 존엄을 지켜나섰다가 순직하는 형상도 우리 인민의 고결한 애국적기상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혁명영화는 우리 인민이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품성도 우리 인민의 애국심에 바탕을 두고 잘 보여주었다. 그것은 안중근이가 부상당한 명국이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치료해주고 관헌의 수색에서 막아준것이며 리근택의 총에 부상 당한 한씨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의사인 아버지의 치료를 받게 해준 오경식이기도 남의 불행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중근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한씨가 그 집 가족들이 슬픔과 걱정애 싸여있을것이 가슴아파 눈 내리는 날 머나먼 길을 걸어 그 집에 찾아가서 빨래 한가지라도 해주는것으로 도와드리러 왔다는 장면은 우리 조선사람이 남의 불행을 자기 불행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정신을 감동있게 보여주었다.

이 혁명영화는 우리 인민의 문명하고 레절이 밝은 특성도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선은 예로부터 문명하고 레의도덕이 밝은 나라로 알려져왔다.

이 영화에서 부정인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은 모두 레절밝고 문명한 사람들 이라는것을 느끼게 한다. 가난하여 해진 옷을 입기는 했을망정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며 인사성이 밝은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특히 안중근의 가정생활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집안꾸림새가 호화롭지는 않으면서도 아담하고 깨끗히 정돈된것으로 하여 높은 문화성이 느껴진다. 뿐만아니라 백통장식의 장롱과 반다지며 애국시를 쓴 벽에 걸린 족자며 하얀 사기화분에 심은 란초와 대나무며 모두 조선인민의 정서와 고결하고 강직한 기질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안중근이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며 레절을 지키는것이라든지 어린 아이들도 부모들에게 꼭꼭 경어를 쓰며 먼길을 떠나가는 아버지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것 등을 통하여 조선민족이 문명하고 레절이 밝다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민족적특성을 형상전반에 걸쳐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소설가 특히 역사소설을 쓰는 작가들에게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이 혁명영화에서 현대적미감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해결했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작가가 현대인들의 사상감정과 취미에 맞게 생활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현대적으로 개작해놓으면 역사

적진실을 외곡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주체적문제 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는 지난날의 생활을 개작하여 현대화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 생활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내어 보여주어야 한다. 역사물작품창작에서는 역사적진실을 외곡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게 생활을 그려야 한다. 지난날 역사적사실을 보여주는 생활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내어 예술적으로 재현해 보여주어야 혁명문학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될 때만 비록 지난날의 역사적생활이지만 현대인들이 그 형상세계에 끌려들어가 예술적감흥을 받으며 고상한 정서를 받아안게 된다.

혁명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첫시작부터 영화의 세계에 끌려들어가 그 시대의 생활에서 민족적정서를 진하게 느끼며 주인공들과 같이 숨쉬게 된다. 시대적차이가 있고 사상감정에서 차이가 있는 생활인데 어떻게 쉽사리 끌려들어가 공감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영화가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서도 그것을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게 형상한데 있다고 본다.

이 영화는 그 시대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진실하게 그렸다.

배우들의 연기도 그 인물의 생활 그대로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민족생활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여주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게 형상하였다.

지난날의 생활에서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어 보여주는데서도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하여 보여주는가에 따라 현대적미감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만약 지난날의 민족생활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내어 그 생활들을 련결시키는 사건줄거리에만 매달린다는가, 하나를 가지고 겨우 하나를 보여주는 식으로 형상한다면 현대인들에게 예술적감흥을 주지 못할것이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지성과 미학적지향에 맞게 가장 높은 형상수준에서 보여주었다. 이 명작은 그시대 생활에서 찾아낸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세부화하여 보여주면서 그 하나하나의 세부를 다 빛나는것으로 되게 예술적형상을 잘하였다. 그리하여 그 세부 하나하나를 통해 많은것을 련상하게 하고 그 시대생활을 정서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예술적감흥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지성과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맞게 형상하였다.

이 혁명영화에서 보여준 모든 생활과 세부들이 다 빛나는것이지만 그중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시일야방성대곡》이 온 나라에 전해졌을 때 어느 산등성이 소나무가지울가미에 목을 매는 사람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관중은 그것을 보고 저렇게 울가미에 목을 매 죽은 사람들이 나라 산기슭마다에 얼마나 있었을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배를 가르고 독약을 마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면서 숙연해진다.

안중근이가 《국채보상운동》을 벌려 모아온 돈 보자기기를 풀어헤치자 술한 엽전과 노리개, 비녀, 은가락지, 은장도들이 나온다.

영화에서는 안중근이가 그것을 모으러 다니는 과정은 생략했지만 우리는 그 보자기안에 든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으러 다녔겠는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리고 그 엽전들 가운데는 나 어린 학생들이 등이 휘도록 나무를 해다 판 돈도 있었을것이고 어린아이들의 코뿔은 돈들도 있었을것이며 막벌이군이 하루 벌어 저녁 거리를 사려던 돈도 있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은가락지, 은장도는 돈에 비길수 없는, 깊은 사연이 담겨진 가정의 보물로 전해내려오던것이언만, 조국의 운명을 건지는데 써달라고 서슴없이 바쳤을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혁명영화는 엽전과 가락지들과 신문들을 두세번 짧게 반복하여 보여주는것으로써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벌어졌다는것과 전체 조선인민의 뜨거운 애국충정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영화에서는 을사망국조약체결의 슬픈 소식을 온겨레에게 알리기 위해 힘없이 종을 치는 짧은 한장면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갓을 쓰고 하나는 맨 상투에 수건을 동인 종지기들이 눈물범벅이 되어 종을 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비천한 일을 하는 종지기이지만 서울시민들에게 때마다 시간을 알려주고 나라의 경사를 온 나라에 알려주는것을 기쁨으로 여겨오다가 종당에는 망국의 슬픈 소식을 알리는, 차마 못할, 그렇지만 아니할수 없어 치는 기막힌 설움까지도 우리는 느끼면서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서구열강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갔던 리준이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배를 갈라 조선사람의 불같은 애국심을 전세계에 과시한 사실을 이 혁명영화는 초라한 무덤과 누구도 보는데 업이 외로이 서있는 조그마한 비석을 보여주는 짧은 한 장면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다 같은놈들이라는것과 그런놈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갔던것은 값없이 죽어 이국땅에 한줌의 흙을 보태준 허무맹랑한 일이였다는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다.

망국조약이 체결된 을사년이 저물어가는 날 밤 남대문지붕우에, 통곡속에 잠긴 서울의 거리우에,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희미한 장명등이 텅빈 거리에 외로이 서있는 장면을 돌이켜보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단순히 눈 내리는 밤경치를 보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평 쏟아져내리는 함박눈을 이 강산에 불행이 덮여있는것으로 느끼고, 뿌연게 빛이 흐린 장명등을 마치 오백년 리씨왕조가 끝장이 난것을 조상하여 지켜선것으로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수많은 류랑민이 흘러가는것을 보여주었다. 망국노의 신세가 되어 정은 고향과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피눈물을 뿌리며 살길을 찾아 떼지어 흘러가고 흘러가는 류랑민들의 참혹한 형상은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되는 19세기말-20세기초가 우리 인민에게 불행이 덮여있던 암흑의 시대였다는것을 강렬한 형상으로 강조해 보여주었다.

이 혁명영화에서 구새먹은 고목, 다 죽고 남은 한두가지에 황이 든 이파리가 몇개 간신히 달려있는것을 몇번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이 간단한 세부로써 조선봉건왕조 오백년사가 멸망직전에 립하여 마지막 숨을 모으고있다는것을 상징적으로 훌륭히 보여주었다.

이 혁명영화는 위병부대가 피멸되어 참혹한 시체들이 널려있는 패전의 전투장, 속새풀이 거친 바람에 설레이는속에 고목에 달린 불길기 몸부림치듯 타고 그 나무가지에 빛을 잃은 벌거우리한 태양이 걸려있는것을 보여준다.

이 하나의 세부로써 원한 품고 쓰러진 의병들의 피로 저렇듯 태양마저 벌겋게 물들어 망국의 대지위에 걸음을 멈추고 나무가지에 걸려 패전의 전투장을 굽어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이 형상으로 의병운동의 비참한 피의 교환을 형상적으로 강조해주었다. 참으로 금강석같은 이런 세부는 예술적기교의 절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기쁨진 화폭들로 하여 이 혁명영화는 지난 력사적시기의 생활을 진실한 형상으로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학적서적요구에 맞게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시기에 나온 일부 력사물작품들에서 갓 쓰고 상투 틀고 팔자걸음을 걷는것을 보고 고무하고 고리타분한감과 함께 싫증을 느꼈다. 그런데 이 혁명영화에도 갓 쓰고 상투 튼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조금도 그런감을 느끼지 않는다.

대한문밖에는 술한 갓 쓰고 상투 튼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있다. 한 갓 쓴 늙은 선비가 궁중에서 나오는 한규설이한테서 망국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대답을 듣자 아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오천년 력사국이 망했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다가 이 슬픈 소식을 온 겨레에게 알리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 모인 갓 쓴 사람들과 상투쟁이들도 다 그 선비와 같이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의 소유자들이라는데서 조금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 않고 도리

여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애국충정에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이 강하게 묘사될 때 비속한것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세태풍습이 짙은 생활을 그러도 거기에 작가가 의의있고 아름다운것을 의도적으로 부어한다면 진부하고 비속한것이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민족적색채를 훌륭히 살려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된다.

끝으로 이 혁명영화에서 언어형상을 어떻게 그 시대적특성을 반영하면서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게 하였는가를 보기로 한다.

력사물창작에서 언어는 해당 시대가 느껴지면서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고 알아들을수 있게 쓸것을 요구한다. 력사물창작에서는 해당 시대의 언어생활의 특징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그 시대상을 선명하고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 지금은 고어로 되어 사라진지 오랜 옛날말들을 그대로 쓴다면 현대인들의 미감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잘 알아들을수도 없을것이다.

이 문제를 혁명영화는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이 혁명영화에서는 대사를 매 인물들의 신분과 지식정도, 직업과 연령에 어울리게 쓰면서 민족적 색채가 느껴지고 우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게 알기쉽게 썼다.

시종무관 민영환은 황제폐하! 매국역신들을 처단하고 조약을 무효로 하여주옵소서라고 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전 의정대신 조병세는 상감마마! 이천만 우리 자손을 어찌 저 왜족의 종으로 넘길수 있사옵니까라고 하였다.

이 대사들에서 두 사람의 연령적차이와 관습에서의 차이를 잘 나타냈다. 젊은 민영환은 고종을 황제폐하로 불렀고 늙은 조병세는 상감마마로 불렀다. 젊은 민영환은 고종이 얼마전에 황제로 승격됐기때문에 시대적감각이 예민하고 또 상감마마로 부르는데 관습이 깊지 않기에 황제폐하로 불렀을것이고 늙은 조병세는 시대적감각이 둔한데다가 오랜 관습대로 상감마마라고 불렀을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대사형상인가.

또 이 대사들에서 그 시대 그 사람다운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현대인들이 알기쉽게 쓴것을 찾아볼수 있다. 조병세는 70개의 늙은 은 재상인만큼 한자어를 많이 쓰는것이 량반으로서 품위있고 존대하는 말로, 유식한 사람이 쓰는 말로 알고 습관된 사람이므로 이천만 우리 자손이라는 말을 모름지기 상감마마의 이천만 적자로 썼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쓴 적자라는 말을 우리 청년들이 알지 못할것이며 또 이천만 인민이 왜 상감마마의 적자로 되는지 리해할수 없을것이기때문에 2천만 우리 자손이라고 씀으로써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우리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쓴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두 대사가 다 황제폐

하니, 상감마마니, 또 끝말들, 주옵소서, 있사옵니
까, 등으로 그 시대가 느껴지게 썼다.

또한 조병세의 독백에 원통한지고, 원통한지고
라는 대사가 있다. 요즘 말로는 원통하구나 원통
하구나라는 말인데 하구나를 한지고로 씌으로써
고 시대를 나타낼뿐아니라 로제상다운 말로 되게
하였다. 또 한지고라고 해도 현대인들이 모를
말이 아니다.

주인공 안중근의 대사 하나를 더 인용하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탄환들에 달려있다. 오, 신이여! 나를 도와주
소서.》

이 대사는 개인테로의 방법으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안중근의 제한된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오,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은 안중근
의 세계관의 제한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인데
우리 현대인들의 미감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상의 진실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이 대사대신 오늘 우리 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쓴
다고 혁명적인 말을 썼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러면 안중근의 성격에 맞지 않은것으로 하여 어
색하게 느껴지면서 감정에 거슬리게 되었을것이
다. 결국 진실하게 써야만 관중의 공감을 살수
있으며 감정에 맞는것이라는것을 배우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당해시대를 방불케 느끼게
하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한것은 이상에서 든
한두대사에서만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대사전
반에 구현되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물창작
에서 언어형상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것으로서 우리 작가들에게
귀중한 본보기로된다.

이 혁명영화는 참으로 역사소설을 쓰는 우리들
에게 창작의 붓을 달릴수 있게 앞길을 환히 밝혀
주었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독립가옥	외딴집
독립수	외대나무
독법	읽기
독백	혼자말
독서	책보기, 책읽기
독후감	읽은 느낌
돈사	돼지우리
돈피	돼지가죽
돌출부	뺀여져나온 부분
돌포장도로	돌간길
돌풍	갑작바람
동거하다	함께 있다, 같이 있다, 한집에서 살다, 함께 살다.
동결	얼기, 얼구기
동결심도	어느 깊이
동공	(눈)동자
동굴	(자연)굴

본래말

다듬은 말

동기방학	겨울방학
동년	같은 해, 그해
동년배	같은 나이 사람
동면	겨울잠
동발시공	동발들이기
동복	겨울옷
동복지	겨울옷감
동상	언상처, 얼기
동시	어린이시
동시관측	같이재기
동시에	다같이, 같이, 이와
동심	함께, ~과 함께,
동토대	어린 마음, 숫진 마음
동행자	얼음땅지대
동의어	같이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뜻같은 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품모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

- 《조선단편집》(1)에 대하여-

윤종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적입니다.》

은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 당면한 역사적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문학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품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라고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하늘땅에 비길수 없는 크나큰 은덕을 대를 이어 영원히 길이 전하려고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절절한 소원이며 한결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오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다.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지구상의 수억만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에 접하는것만으로도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혁명적열정과 힘, 용기를 얻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에 해답을 주는것은 로동당시대에 태어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영예이고 행복인 동시에 현시대와 후대 앞에 지닌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우리 작가들이 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자기 창작에 모시려는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창작적지향인 동시에 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 예술에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칭송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창조되었던것이다.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었던것이다.

《조선단편집》(1)은 바로 이러한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창조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적인 장품들을 수록한것이다.

고르고 추려서 20편으로 묶은 이 단편집을 다 읽어나면 이미 여러번 읽은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며 저도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러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
아버이 그사랑, 그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을 꽃피었습니다

의 노래구절을 상기하게 되며 심장속에 파고드는 이 노래의 참뜻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대대의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어느 한순간도 신들매를 늦추지 않으시고 눈보라만리, 혈전만리 준엄하고 간고한 혁명의 길을 개척하여 오시였다.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행복을 안겨주시고도 여전히 인민의 행복속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려를 기울이시는 어버이수령님, 오늘의 조선이 누리는 존엄과 영예, 인민의 행복, 찬란한 미래 그 어느 것 하나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분초를 다투어가며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아닌것이 없다.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이 영광, 이 행복을 무엇에 비기랴, 해와 달이 다한들 수령님의 은덕을 잊을수 있으며 자자손손 몸과 마음을 다 바친들 그 은혜에 보답할수 있으랴!

단편집이 독자들에게 주는 총적인 감명은 이러하다.

각이한 력사적시기 여러분야에서 발현된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다방면적으로 그리면서 매개 작품들은 수령님의 위대성과 숭고한 품모의 한 단면들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형상화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어있습니다.》

독자들은 소설을 통해서 위대한 사상가, 혁명의 영재, 군사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숭엄하게 느끼게 되며 수령님 계시여 오늘의 주

제조선이 있고 우리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히 깨닫게 된다.

일제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혁명의 길을 개척하는 조선의 력사, 짙은 안개속에 가리워있는 세계혁명의 로정-두터운 얼음장과 눈보라 속에 싸여있는 우주공간에서 그 누구도 봄을 감촉할수 없었던 바로 그 준엄한 시기에 오직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으로, 천리혜안으로 이 암흑을 꿰뚫어보시고 천지를 진동하는 봄우뢰를 울리시며 혁명의 승리를 안아올 위대한 눈석을 불러일으키신다.

우리는 단편소설《눈석이》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있는 남호두회의와 그 결정관철을 위한 국경지대에서의 진출, 조국광복회창건의 력사적의의를 생활적으로 새롭게 깊이 인식하게 되는 동시에 수령님의 위대성과 비범한 예지를 배우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복잡하고 혼란된 정세하에서 혁명의 진로를 꿰뚫어보시고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의 힘을 총동원할수 있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 앞에서 자연도 사회도 그 비밀을 감출수 없으며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감화되고 우러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소설에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한 단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좁은 방안이 답답하신듯 귀틀집 일각문을 확 열어젖히셨다. 그리고는 돌아서서더니 탁 트인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맑은 이미 봄이요. 천지는 저렇게 넓소.>

한팔을 쳐드시여 가리키시는 그 하늘, 그 산발 그리고 그 광막한 공기, 그 모든것이 그 순간에 장군님의 넓은 가슴에서 태어나듯 그렇게도 선명한 색조로 확 떠올랐다. 아직 산기슭에도 숲변두리에도 눈이 쌓여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느끼시는 그 봄이 이 순간에 수현의 가슴에도, 조달수의 가슴에도 무럭무럭 피어오르는것이였다.》

비범한 예지와 완강한 의지, 한초한초에 웅근세기를 담으시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모든것을 헤아리시고 모든것을 예견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료량과 계획에서 벗어나는것은 없다. 국경지대로 진출하시는 그 반년사이에 불과 몇명 안되던 친솔대오는 수천수만의 대부대로 장성하여 참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무송현성전투가 있은후 눈석이와도 같이 걸잡을수 없는 혁명의 물결이 와-와- 소리치며 장백으로 국내로 세차게 번져갔던것이다.

주체의 혁명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은 항일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

게 하였을뿐아니라 조국땅위에 찬란한 새 력사를 펼쳐놓게 하였다.

단편소설《승리의 길》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단숨에 삼키려고 덤벼든 제국주의원흉 강도 미제와 15개의 그 추종국가의 침략군들과 남조선 피뢰군을 상대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시고 놈들을 쥐락펴락하신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시기 벗들까지도 우려를 표시하고 침략자들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후방깊이 침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적들의 《승리적진격》이였던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패배의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길이였던것이다.

매개 병사들과 장령에 이르기까지, 아이들과 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조국의 운명을 근심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반격을 갈망하고 있던 준엄하고 긴장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적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줄 전략전술을 작성하여 놓으시였으며 끝간데 없는 정신적여유를 지니시고 인민들의 농사일을 보살피시였으며 전투원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휴식을 념려하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확고부동한 승리의 신심, 천어버이사랑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승리의 요인인것이다. 적의 뒤통수를 치고 허리를 꺾어놓은 제2전선의 전개, 이것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펼치신 또 하나의 주체전략이였다.

소설에는 군사전략가로서의 수령님의 풍모와 그이께서 펼치신 제2전선의 의의가 예술적인 화폭으로 묘사되어있다. 작품에 토로되어있는바와 같이 이 위대한 전략, 위대한 사랑의 힘을 그 누가 당한단말인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사랑하시며 인민을 일떠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앞에서 미제침략자들은 서산락일의 운명에 떨어졌으며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승리의 길은 마련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 산악같은 의지와 정신적여유는 단편소설《맑은 아침》에서도 감동적으로 묘사되였다.

1950년말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그 가렬 처절하던 시기, 그 누구도 전쟁 이외의 그 무엇에 대하여서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던 엄혹한 시기에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다는 판결을 내리시였으며 전후 평양시복구건설 전망설계도를 준비하도록 포치하시고 친히 그 방향과 구체적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설계일군들에게 말씀하신다.

《어째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도시와 공장을 설계하고 지하극장을 건설하고있습니까? 재난으로 마음들이 거칠어질수 있습니다. 이 거칠어진 마음들에 새싹을 틔워줘야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주어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세계에 떨칠 예술을 창조할 문화시설도 세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새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탁아소를 빨리 세워주어야 합니다. 싸움이 끝난 때 가서 서두는건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믿음과 사랑, 과학적인 예견성, 바다 같은 마음의 여유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고유한것이 아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지니신 비범한 풍모인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제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은 그저 단순히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높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들인 《철의 력사》, 《큰 심장》역시 《사회주의자력갱생의 나라》, 주체조선의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력사를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감명깊은 작품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 노동계급의 힘을 믿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실뿐만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력사적 사명을 다할수 있게 그들의 자주정신과 창조적능력을 깨우쳐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새생활 창조에로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과 노동계급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계실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울때나 기쁠때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슬기와 용기를 안겨주신다.

이 나라의 철의 력사, 기계의 력사뿐만아니라 공업과 농업,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의 모든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토대가 마련되고 새롭게 시작되었다. 웅철이도, 병두도, 동철이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노동계급의 핵심으로 자라났으며 철의 력사, 기계의 력사와 더불어 뿌리깊이 성장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들이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며 애지중지 자라우시고 믿어주시며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자기 능력을 남김없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혁명의 한길우에서 영원히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도록 하시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덕성의 가장 숭고한 발현의 하나이다.

우리는 단편소설 《성장》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그 누구에게도 비길데 없는 위대한 령도자의 비범한 풍모를 보여주고있으며 우리의 반석같은 혁명의 끝간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참으로 세찬 충격을 받으면서 확연히 깨닫게 된다.

해방직후 아직도 누가 누구인지 가려보기 어렵던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눈속에 파묻힌 산촌의 령길에서 잠시 만난 한 화물자동차 운전사 청년에게서 참다운 애국자, 새조국 건설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일군을 발견하시였다. 그리고 그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 꾸준한 교양을 주심으로써 마침내 충직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내시였다.

사실 근로인민대중속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 문제는 그들을 발견해내고 키워내는데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골라내듯이 사람들속에 진실하고 유망한 일군들을 발견하시는 비범한 예지, 오직 수령님께만 고유한 고매한 덕성을 가지고계시며 평범한 보통사람을 참다운 혁명가, 시대의 영웅으로 키우시는 위대한 감화력,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계신다.

어제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자동차운전기술을 배우겠다고 갖은 수모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러다니던 가난한 조선의 청년 주용섭이가 온 나라 운수부문사업을 책임지는 큰 일군이 될줄이야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었겠는가?

밤에 령을 넘으시지 않으면 안되는 바쁜 현지 지도의 길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길가에서 고장난 목란차를 고치고있는 한 운전수를 그대로 스쳐지나가실수 없으시였다. 노동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에 대한 수령님의 그 억제할수 없는 뜨거운 배려가 바쁜 길을 멈추게 하였던것이다.

이름없는 운전사청년이 그 잊을수 없는 령길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되고 자기의 애국충정을 표현할수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기회일수 없다.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것을 보시고 헤아리시며 가짜와 진짜를 꿰뚫어보시고 긍정적이고 훌륭한 모든것은 그것이 어느곳에 숨어있든지 자석과도 같이 끌어당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데 어찌 참다운 인재가 헛되이 묻혀버릴수 있을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사랑의 재능과 지혜를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돌리시며 심려와 로고를 기울이시는가.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자라나는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대견하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다함없는 애정을 쏟아부으시는가!

단편소설 《성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현관밖에까지 나오시여 새로운 초소로 떠나가는 전사를 배려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어서 떠나오.>

수령님께서서는 가벼이 손짓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한량없이 기쁘시였다. 어제날의 목란차운전사가 오늘은 온 나라의 운수부문사업을 맡아보게

되는것이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이께서는 한 일군의 모습에서 성장한 조국을 보시였다. 성장한 인민과 성장한 당을 보고계시였다.》

사람을 알아보시고 사람을 귀중히 키우시는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의 하나가 있으며 바로 그렇게 자라난 충실한 혁명공간들로 우리 혁명대오가 꾸려져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패의 힘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성장》은 바로 이 진리를 감명깊게 향상하였다.

우리는 단편집을 통하여 위대한 사상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를 감명깊게 체득하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가장 숭고한 인간성을 지니시고 인민을 믿으시고 존중하시며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게 된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혁명가적품모, 고매한 덕성을 그이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칭송한 작품들인 《혁명의 후계자》, 《태양을 우러러》, 《거룩한 자옥》, 《크나큰 아버지품》 등에서 특별히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지들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나 처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보다 더 깊고 귀중합니다. 지난날의 소설들에는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같은 인간관계들이 많이 씌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혁명적동지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혁명적동지애가 가장 귀중하다는 것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 형성된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부모처자와는 떨어져서 살 수 있어도 혁명동지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없다.

혁명적의리속에서 혁명적동지애가 생겨나고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적의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혁명적동지애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이라면 혁명적동지애에서 가장 숭고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사랑이며 가장 소중히 지키시는 혁명적의리이다. 속담에 올리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리사랑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혁명전사들이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이 아무리 커도 수령님께서 전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에는 비길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혁명적동지애의 원천이며 귀감으로 된다. 얼마나 많은 혁명전사들이 아버지수령님의 이 숭고한 사랑과 혁명적의리로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을 건디어내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었

던가! 그들은 위대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을 모시였기에 모든것을 그이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영생의 길을 걸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들의 삶이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수 있으며 찬란하게 꽃피지 않을수 있겠는가!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당, 건국, 건군의 복잡다단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그 어느 한순간도 해방된 조국에 같이 돌아오지 못한 동지들의 생각을 놓으신적이 없으시며 그들이 수령님께 부탁한 절절한 소원을 잊으신적이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향집이 아니라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였으며 친혈육이 아니라 혁명동지들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단편소설 《혁명의 후계자》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아직 인민들과 인사도 나누지 못하셨다고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는것은 뒤로 미루시면서도 혁명전사 유철성의 가족을 먼저 찾으신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유철성의 부모를 친부모를 대하시듯 살뜰하게 대하시며 귀중한 선물까지 전하시고 혁명의 대를 이을 그의 아들 영철을 친아버지 사랑으로 거두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많은 혁명전사들의 이름과 특성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정형편과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혁명전사에 대한 끝없는 사랑, 숭고한 의리는 아버지수령님의 고유한 성품이시며 생활의 신조이신것이다. 수령님의 마음속에 뚜렷이 자리잡은 전사들에 대한 땃힌 사랑이 그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게 하는것이다. 이 어찌 범속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될수 있는 일일것인가.

단편소설 《태양을 우러러》에 묘사된 사실자료는 우리들이 혁명전통학습을 통해서 이미 다 잘 알고있는것이지만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된다. 이 작품을 읽으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은 없으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조선의 혁명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된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최왕준의 어머니를 맞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소설에서 접하게 될때 그 하나의 몸가지심과 한마디의 말씀마다가 감동의 격정을 억제할수 없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숭고하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혁명전사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그저 해방된 조국땅에 왕준동무와 같이 돌아와서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고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자니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도 수령님의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을 다 표현할수 없으시였다.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영예로운 일인가!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을 다시 볼수 없는 일에 대하여 그처럼 마음아파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미 밀영에서 전사가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시어 옷을 지으시였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드리신다. 그러나 그것으로써도 자신의 아프신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를 대신하여 그의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시며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충직한 혁명가가 있고 수령님의 배려와 은덕에 혁명가의 어머니답게 처신하고 보답할줄 아는 어머니가 있는것이다.

친어머니로 모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굳이 사양하고 자기 본분을 다하려는 어머니를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동서고금에 일찌기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친서를 쓰시였다.

《각 도, 시, 군, 면,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
각 철도역장,
각 지방 위수사령관동지들 앞.
이분은 항일혁명투사 최왕준동무의 어머니입니다.

일체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시시오.

1946년 X월 X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이러한 사랑, 이러한 배려, 이러한 믿음을 돌려주시는 수령님을 모신 혁명가에게 있어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것이다.

단편소설 《거룩한 자옥》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전설같은 이야기의 하나를 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위해 한몸바친 혁명전사 강호와 오운심을 위하여 이미 항일의 나날부터 그들의 딸 혜경을 찾으시려고 심려하신다.

혁명전사들이 돌아오지 못한 조국땅에서 수령님께서서는 더욱 간절하신 마음으로 20년을 하루와 같이 찾고찾으신다. 심문에서 보신 같은 이름의 방목공처녀가 혹시 그가 아닐가싶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불원천리 비류산골짜기 옥내천기슭으로

혜경을 찾아가신다. 전사를 그리시고 그들의 딸을 그리시는 수령님의 마음이 이러하신데 어찌 인민들이 그 은정에 감격하지 않을수 있으며 혜경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찌 나타나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수령님의 마음은 방목공처녀의 심장을 울리고 온 나라 인민들을 격동시켜 마침내 력사의 안개속에 묻혀버렸던 혜경이가 동미영이란 이름을 가지고 모범교원의 자태로 나타났던것이다.

세월은 아득히 흘렀어도 잊지 못할 사랑하는 혁명전사의 그 모습이 너무도 력력히 처녀의 자태에 어리어있어 수령님 앞에 나타난 그 처녀는 정녕 윤심의 딸 혜경이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격하신 음성으로 《강호동무, 윤심동무! 동무들이 오지 못한 조국땅에 와서 혜경이를 만나오...

어머니 가슴을 허비고 갔던 이 애를 오늘에야 찾았소!》라고 하시는데 그 뜨거운 심정을 어찌 이루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상봉의 기쁨을 방목공처녀에게도 잊지 않으시고 알리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위대한 성전에 고귀한 생애를 바친 투사의 딸과 함께 바로 그처럼 키워야 할 이 나라의 귀중한 딸이 또 먼 방목지에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계셨던것이다.

조선은 참으로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행복한 사람들의 조국이었다는 말로 소설은 끝났는데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의 공감을 대변한 결구가 아닐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전사들에 대한 하늘땅에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 있고 혁명적의리가 있기에 항일혁명투사들의 자녀들뿐만아니라 해방후 민주혁명,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에서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의 자녀들도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있는것이다.

단편소설 《크나큰 어버이품》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위생병영웅 리종익이 남기고 간 어린 아들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시는 지극한 사랑을 노래한 감동의 눈물 없는 읽을수 없는 작품이다.

전사들은 갔어도 그들의 아들딸들은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있으며 수령님의 배려로 병기수리소의 혁명전우들이 만든 놀이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을 새로운 혁명가로 자라나고있다.

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 수령님에 대한 전사들의 끝없는 충성, 이 불패의 통일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 힘의 무궁한 상승발전을 가로막을 힘도 이 세상에는 없는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민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의 해발은 그 어디에도 그늘진곳이 없이 만민의 머리위에 고루비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 의리를 다하시어 혁명투사들의 유가족들을 돌보실뿐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 고아들과 늙은이들을 그 넓디 넓은 한품에 안으시어 친어버이사랑을 다 베풀어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사는 우리 인민들은 가난과 불행을 모르며 찬란한 래일을 바라보면서 구김살 없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행복한 오늘을 살고있다.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력사의 자취》, 《사랑의 품》, 《사랑의 길》, 《축복받은 땅》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시고 보람찬 사업과 기쁨을 주시며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자애의 넘친 모습을 형상한 작품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력사의 자취는 어디에 찍혀있으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에 잇닿아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는 우리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아로새겨져있으며 력사박에 버림받았던 인민이 력사의 참다운 주인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그 새로운 력사의 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인민이 사회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되는 저 찬란한 공산주의미래에 잇닿아있는것이다.

《력사는 지금 사령관동지의 발밑에서 크게 한 바퀴 뒤채면서 온 인류앞에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모든것은 다 길을 비켜라, 여기 조선혁명의 불패의 대오가 나가고있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에 큰 걸음을 내디디시는 그 발자국으로 해서 바야흐로 우주에서는 위대한 주체시대가 장엄하게 탄생되고있으며 어둠이 종퇴각을 시작한것이다.

새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이 장엄한 행군길의 근본목적은 옥이와 철이의 불을 타고 흐르는 민족의 눈물, 노동자, 농민, 근로하는 계급의 설음을 씻어주고 언제 울었느냐는듯 활짝 피어나는 밝은 웃음을 가져오는데 있는것이다.

이 숭고한 목적으로 해서 력사의 주인으로 된 근로대중은 원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초인간적힘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되는것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혁명도, 사랑도 그것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혁명을 할수 없는것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정성이 없는 혁명이란 추상적인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등불도 마음놓고 피울수 없는 간고한 행군길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부모와 보금자리를 잃은 두 고아를 거두신다.

어떠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의 불행을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실뿐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여기에서 우리는 온 겨레를 한몸에 안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아버지품을 느끼는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옥이와 철이의 부모는 물론 이 아이들의 존재자체도, 그들이 겪은 불행도 알지 못하고 계시였다. 자식을 사랑하고 근심하는 아버이의 예감으로 그들을 알아내시였으며 구원하신것이다.

그러기에 3천만 동포가 그 수난의 시기에조차 자기들의 몸가까이에 와닿아있는 아버지수령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것이 아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바로 그 아버지심정, 자식을 넘려하는 부모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

하는 바로 그 심정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옥이와 철이를 구원하시게 한것이다. 바로 그 아버지심정이 전쟁시기에는 적기가 하늘을 찌는 어두운 밤 가로수밑에 서있는 어린 소년에게서 영웅의 아들을 발견하시게 하였으며 (《사랑의 길》) 학교가는 길에서 장난질에 정신이 팔린 어린 학생에게서 조국해방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아버지와 희생된 어머니의 아이를 알아보시게 하였었던것이다. (《사랑의 품》) 그리고 길가에 무심히 앉아있는 한 모녀에게서 인민군후방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아내실수 있게 하였으며 (《축복받은 땅》) 그렇게 발견한 그들모두에게 친아버이사랑을 베푸시게 하였었던것이다.

이 단편소설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당을 집으로 생각하는것이 한갓 노래로써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생활현실로 되고있다는것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서라면 휴식도, 밤잠도 잊으시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가장 숭고한 성품의 하나이다.

단편소설들인 《해빛 밝은 나라》, 《나루가에서》, 《세 아이》는 자라나는 우리의 새세대들을 위하여 기울이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뜨겁고 큰것인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해빛 밝은 나라》에서 우리는 평양학생소년궁전건설에 깃든 후대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계자들이며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것은 다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왕》들에게는 궁전이 있었듯이 어린이들이 《왕》인것만큼 그들에게도 궁전이 있어야 하는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제일 훌륭한 집을 지어주시고 그것을 궁전이라고 이름지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설계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동무들, 큰 기계공장 열개 값이 들어도 좋으니 잘 지어야 하오. 아이들이 천하를 굽어보게 탑도 높이 세우고 자기들이 제일이라는것을 느낄수 있게 웅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줍시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후대들이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빛내일것을 바라실뿐만아니라 우리 나라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선조들이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모와 천대를 받으면서 기를 펴고 살지 못한 그 벌충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보

란듯이 머리를 쳐들고 활개를 치며 우리 세대가 혁명을 하고 건설을 하느라고 미쳐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모든것을 그들이 마음껏 누릴것을 절절히 바라시고계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주는 교육제도를 내오시고 철따라 무상으로 교복을 주시며 세상에 부럼없는 온갖 행복을 안겨주신다. 강물이 불어도 눈보라가 일어도 어린것들을 걱정하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러한 심정, 다함없는 사랑은 나무를 넘나드는 열세명의 학생을 위하여 분교를 내오게 하시며 (《나루가에서》) 립산마을의 세 아이를위하여 통학열차를 운행하게 하신다.(《세 아이》)

참으로 이 나라는 어버이수령님의 밝은 해빛이 있어 수백만 어린이들이 활짝 꽃피며 도시와 농촌, 산촌과 어촌 그 어디를 가나 꽃같이 단장한 어린이들의 랑랑 한 글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온 세상을 밝고 명랑하게 만들고있다. 그러니 이나라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으로 해빛밝은 나라가 아닐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 심려와 로고는 어린이들에게만 미치는것이아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전체 인민들이 건강하고 명랑하게, 유족하고 행복하게 기쁨과 희망속에서 살며 일하며 투쟁하도록 할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하신다. 산간지대에 가시면 산골사람들을 잘살게 하시기위하여 심려하시고 약재를 보시면 인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무엇에 접하시나 하나에서 백까지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모든것에서 인민을 잘살게 할 방도를 찾으신다.

단편소설 《크나큰 사랑》에서 의사 오영준은 수령님께서 휴식을 승낙하셨을 때 기뻐하며 산간 마을에 오신것이 결코 휴식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근심에 싸인다. 그는 또한 마을 로인이 수령님께 올린 귀중한 보약재를 수령님께서 잡수시리라는 기쁨을 안고 환약을 짓는다. 그러나 그 귀중한 약을 료양소에 온 로동자에게 주라고 하실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한다. 의사의 심정은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는것이 쉬는것보다도, 보약보다도 건강에 더 좋다고 하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휴식이란 잠시도없으셨다.

그것은 단편소설 《보통날 아침》에서 더욱 뚜렷이 형상되고있다.

나라가 아직 잠속에 있고 누리에 정적이 깃들여 있는 이른새벽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시였으며 밖으로 나오시였다. 거리의

식료매대를 돌아보시고 새벽밥을 짓는 주부들의 수고를 생각하신다. 보슬비가 내린다. 강우량은 불과 5밀리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가을걷이가 녀려되시여 그길로 40리나 되는 농장으로 나가신다.

농장과 산림을 돌아보시고 인민봉사위원회에 봉사성을 높일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한시간후에는 어느날과 같이 출근길에 오르신다.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보통날 아침인데 만약 무슨 일이 생긴날에는 어떠하시리라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이런분이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심려와 로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단편소설 《바라시는 마음》은 감격없이 읽을수 없게 감동적인 화폭으로 묘사하였다.

산골사람들을 잘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나어린 처녀 리명순의 마음씨와 소행이 하도 기특하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리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여 그를 도와주시고 자래우신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를 양사육에서는 《박사》로 키우시고 수령님께서서 것처럼 바라시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게 하신다.

소설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때아닌 피리소리가 양떼우로 흘러갔다. 별안간 양들이 피리소리를 향하여 귀를 모두었다. 빨간 머리수건을 쓴 처녀는 피리를 불며 산릉선으로 유유히 오르고있었다. 양들은 피리부는 처녀를 따라 구름처럼 령을 넘고있다. 황금빛으로 쏟아져내리는 태양이 피리소리를 따라 령을 넘는 양떼와 처녀를 진하게 비추었다. 생활은 얼마나 좋은가!

어디선가 <부여-부여->양모는 소리가 들려온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양떼는 앞골짜기에도 짝 들어차고 넘쳤다. 사방 골짜마다 양떼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골바닥에는 황금비가 끝안을 따라 파도쳐갔고 새빨간 사과밭 근처에서는 통탕거리리는 프락프르소리가 그득히 들려왔다. 마을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생활은 몸에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토론하던 연구사가 곁에 서서 눈굽을 훑치고있는것을 보시고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다.

<참 좋지요! 바로 이것이요! 난 선생의 책에 우리의 이런 념원을 담아주기 바라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펼쳐주신 이 장쾌한 생활정경은 얼마나 황홀한 화폭이며 얼마나 흥겨운 창조적 선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 그것은 꿈속의 리상향이 아니라 인민이 자기의 지혜와 힘과 로력으로 조국의 자원을 개발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현실의 사회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는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평생을 하루와 같이 고스란히 바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인민들이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길》에 등장하는 로인은 우리모두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렇게 말한다.

《수령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은 몸이 아니올시다. 나라가 계속 흥하자면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셔야 합니다. 한데 이렇게 밤늦도록 어두운 먼길을 달려서야 되겠습니까. 긴긴세월을 산에서 싸우시며 나라를 찾아주시구 미국놈두 쳐놓으셨는데 인제는 좀 쉬셔야 합니다.》

말로만은 수령님께 휴식을 드리지 못한다.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들이기 위하여 우리모두가 일을 잘하여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평평 울리며 잘살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알고있기에 나 어린 처녀 리명순과 홍연순이도 로동자 림철준과 금대리농장 관리위원장도, 직장장 문동철과 학자 윤문식도, 장령 리철산과 성기관일군 주용섭이도 밤잠을 자지 않고 충성을 다 바쳐 투쟁

하고있는것이다.

《조선단편집》(1)은 우리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아버지 사랑을 심장속깊이 아로새기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하늘땅의 끝까지라도 모시고 따르려는 충성심을 더욱 굳게 다지는데서 참으로 커다란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와 당중앙이 펼쳐주신 거창한 현실속에서 살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참다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 공산주의 새 인간학을 창조하고있다. 이러한 위대한 현실속에서 어찌 작가들이 흥분하지 않을수 있으며 창작적열정에 불타지 않을수 있겠는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주체의 위업실현에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최상의 사상이예술적높이에서 훌륭히 창조해야 할것이다.

정론

영원히 당을 따라 우리는 가리

리일복

1

막아서는 그 무엇도 짓부시며 자기가 갈기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도도한 흐름, 이것이 그 어디에 뿌리를 두었는가를 생각한적 있는가.

그 흐름이 모이고 모여 이룬 거창한 바다, 그 무엇도 두렵없이 뒤설며 뚫어 번지는 대양의 물결이 그 어디에 자기의 원천을 두었는지 생각해보았는가.

그흐름, 그대양이 깊은 산속 마름 없는 한줄기 샘물로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영원한 물의 원천지, 깨끗하고 마름없고 급함없고 변함없는 그 샘으로 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새삼스레 그 샘물의 은혜로움에 대하여, 그 범상치 않은 존재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게 된다.

그처럼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 인민의 오늘이 이 보람찬 삶, 이 끝없는 행복은 어디에 그 원천을 두었으며 이땅우에 이룩된 그 모든 위대한 변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조국의 이 위력, 이 존엄은 그 어디에 원천을 두었는가를.

당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의 참된 새 삶은 꽃피기시작하였으며, 세기적변혁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국은 존엄있는 첫 걸음을 떼었다.

실로 인민들의 참다운 행복은 자기들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는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인민들은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는 곧 당의 위대성과 잇닿아있는것이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은 당의 령도와 직접 관련되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위대하고 로숙한 당을 받드는 인민은 짧은 기간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며 승리의 진군길을 거침없이 개척해나갈수 있는것이니 우리 인민은 바로 그런 행복, 그런 영광을 지닌 인민이다.

오늘 우리 당은 전체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우리 인민은 당에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 이것은 자기들의 운명을 이끌어줄 혁명적당을 가지기를 그처럼 열망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었으며 유구한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당시대라 불리는 민족적 룡성과 번영의 새 시대가 이 땅우에 빛나게 펼쳐진 전환점이었다.

반세기전, 어둠을 사르는 찬란한 해빛과도 같이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 구름을 헤가르며 《ㄷ, ㄷ》의 붉은 기치가 솟구쳐올랐다. 그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이어받은 우리 당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손길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과 건설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으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었다.

실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이 받아안게 된 비길데 없는 행복이었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모든 중하를 걸머지고 백두밀림에서 시작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었다.

세상에 태어나자 새 사회, 새 제도를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당은 자기 활동의 첫 걸음부터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백전백승의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당 창건의 역사는 민족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이 기간 우리 당은 수천년을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거니 당의 령도아래 우리 민족의 지위와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난날 지도에서 빛갈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 전변되었고 지난날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에 울던 우리 인민이 오늘 자주성을 지닌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손에 틀어쥐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체의 궤도로 자량차게 이끌어가고 있는것을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그렇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인민이 걸은 길은 기적의 력사, 변혁과 비약의 새 력사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는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이다.

우리 인민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것도,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영웅적기계를 온 세상에 펼친것도, 안팎의 원수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모든 분야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전성기를 펼친것도 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이 빛나는 혁명의 전취물, 이 고귀한 행복과 영광, 이 모든것이 우리 당에 의하여 이룩되었고 우리 당의 빛발아래 펼쳐진것이니 어찌 당의 이 은혜로움에 대하여 가슴뜨거움없이 이야기할수있으며 당의 이 빛나는 업적을 온 누리에 자랑하지 않을수 있으랴!

조선로동당! 이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영원한 샘터이다. 이는 우리 조국의 세기적변혁과 찬란한 개화발전의 추동력이며 무궁토록 룡성변영할 미래를 펼치는 위대한 원천지이다.

2

사람들은 자애롭고 은혜로운 이름을 흔히 어머니와 비교해 말한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머니에 비겨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다정한 이름을 부르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처럼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고 부른

다. 우리 당의 품을 자애론 어머니품이라 말한다.

보통 어머니는 자기 아들딸들에게만 그 어머니란 뜻이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의 어머니당은 우리 인민모두의 어머니이며 이 나라 아들딸들이 자기의 부모들과 함께 어머니라 부르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과 래일의 운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와 함께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 래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당!

이 위대하고 자애로운 당의 해빛을 자양분으로 받으며 살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의 한길만을 억세게 걸어왔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당은 우리 인민모두를 안아키워주었다. 당은 어제날에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억눌려 살아오던 근로인민대중을 주권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인간으로 내세워주고 국가와 혁명을 움직여나가는 력사의 주체로 만들어주었다.

우리 당은 소수의 반혁명분자들을 제외하고 우리 당을 따라 혁명을 하겠다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넓고 따라서온 사랑의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었다.

얼마나 많은 지난날 인테리들과 수공업자, 소상인들이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시련과 폭풍속에서 억센 혁명가로 자라났던가.

당은 자애롭고도 엄한 어머니였다. 당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타일러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었으며 힘과 용기를 주고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면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었다.

우리 당이 베푼 사랑중에서도 가장 크고 은혜로운 사랑은 정치적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육체적생명에는 끝이 있으나 정치적생명에는 끝이 없다.

정치적생명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동물과 다를바 없다. 인간은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 때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면모와 존재를 뚜렷이 빛낼수있는것이다.

하거니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우리 당의 그 사랑, 그 은덕을 그 무엇에 비겨 말할수 있으랴!

당은 인민들의 심장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굳건히 심어주었으며 그 사상으로 생각하고 숨쉬고 혁명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정치적량식으로 받아안은 심장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붉은 피로 끓어올랐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동요를 몰랐고 굴함이 없었

다.

불을 뿜는 적의 화구를 피뿌는 가슴으로 틀어막은 그 청년영웅의 가슴속에 맥박치것은 무엇이었던가.

복구건설의 그 간고한 나날 낮에 이어 밤을 모르고 허리치는 감탕속에 뛰어들어 기초를 파고 억년 드림없을 공장의 기동뿌리를 내리운 그 이름없는 영웅들은 어떻게 그런 불굴의 투지를 낼 수 있었던가.

대전설의 전투장마다에서, 3대혁명붉은기 휘날리는 초소마다에서 우리 인민이 떨치는 그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은 어디서 흘러나왔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그 정치적생명, 우리 당이 베푼 그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았기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도 난관도 뚫고 주저없이 승리의 한길로 줄달음칠수 있었던 건이다.

그렇다, 당은 우리 인민의 어머니품이다. 위대하고 참다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인민은 위대하고 영웅적인것이다.

당은 진정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은혜롭고 위대한 어머니를 모신 인민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동요없이 그 어머니만을 따르며 그 어머니가 가리키는 길우에서 충성 다바치는것이다.

3

진군하는 대오에는 언제나 향도의 기치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향도의 기치를 가진 대오는 백전백승하며 그 기치를 가지지 못한 대오는 사본오렬되어 패망의 운명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조선로동당! 이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어버이로 모시고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로 굴함없이 전지해나가는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적당!

이 위대한 당을 자기의 향도적기치로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지닌 인민이며 가장 큰 행복을 지닌 인민이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진과 양양, 이것은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예술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언제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을 모르고 백전백승하여 나아가도록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든지 밝혀져있

지 않은것이란 없다.

천리혜안으로 매 시기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때에 맞추어 적중한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예술! 이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가는 거창한 역사적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투쟁의 열쇠이며 그 앞길을 밝히는 휘황한 등대이며 그 투쟁을 추동하는 위대한 원동력이다.

찬란한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선구자는 언제나 력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정치작사이며 그것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우리 당은 바로 이에 맞게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졌다.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우리 당!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움직이며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사회에는 당중앙의 의도가 제때에 하부말단까지 깊이 침투되고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확고한 생활의 지침으로 되어 당의 의도와 방침을 지상의 명령으로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세워졌으니 이런 당, 이런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는것이다.

오랜세월 우리 혁명은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난관도 시련도 많았고 피도 많이 흘렸으나 우리 인민은 당을 따르는 이 길에서 굴함없었고, 오직 당을 믿고 당에 전적으로 모든것을 의탁하고 살며 싸워왔기에 오늘과 같은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수 있게 되었다.

당을 따라 나갈 때, 당이 하라는대로 할 때 오직 행복과 영광, 룡성변영의 알찬 열매만이 차례진다는것을 잘 알기에 우리 인민은 오직 당을 따르는 이 한길에서 충성 다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나갈것이다.

진정 위대한 향도의 기치인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인민들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전도양양한 불패의 당이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진두에서 향도의 빛발로 혁명을 승리로 인도하는 우리 당을 따라 나아가는 여기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이 있다.

백전백승의 당, 조선로동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

우리 인민은 영원히 이 불패의 기치따라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에 충성 다하며 억세게 나아갈것이다.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영광스런 당을 따라 나가는 이 길에 조국통일의 그날은 올것이며 공산주의 새아침이 밝아올것이다!

우리 당이 태어난 역사의 집

-당창건사적관을 찾아서-

박호섭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해방산기슭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태어난 역사의 집이 솟아있다.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이 2층집은 주변的高층건물들과 울타리를 이룬 아릅드리나무속에 싸여있어서 소박해 보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 시련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마침내 조국으로 개선하시여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령도하시던 역사의 집-이 집은 우리 당의 참모부가 자리잡았던 영광의 집이었다.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은 의례히 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집의 정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숭엄하고 경건한 감회에 휩싸이였다.

력사적인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청사에 들어서서 우리가 처음 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영상이였다.

만년필을 쥐시고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원대한 구상중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은 카툰과 남호두의 력사적인 회의장들에서 주체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던 그 모습이런듯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숭엄하고 경건하게 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로동계급의 당을 가져야 한다는 진리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오시였다.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고 그의 투쟁목적에서 앞으로 창건하게 될 혁명적당의 강령으로 될 기초사상을 명시하신 뒤 1930년 여름 카툰회의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1층 1호실에 전시된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통해 력력히 볼수 있었다.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긴긴 나날에 그이께서는 몸소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으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여놓으시였다.

이 깊고도 억센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것처럼 복잡하고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당은

지체없이 창건되고 급속히 발전될수가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창건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어두컴컴한 뒤골목에서 일어나온 가짜 《혁명가》들과 혁명의 배신자들, 종파분자들이 《령도권》쟁탈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제마끔 《공산당》간판을 내걸고 추악한 파벌싸움을 벌리고있었기때문이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찾아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운명의 기로에서 모태기고있던 그때 우리 인민에게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주인된 민주주의 새 조선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혼란된 환경속에서, 계급적원수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며 종파주의 지방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당시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조국에 개선하시여 이러한 정세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곳 해방산기슭의 이 청사에서 겹쌓인 난관을 헤쳐오신 피로도 무실사이 없이 당창건사업부터 시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묶어세우시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키우신 우수한 혁명투사들을 곳곳에 파견하시였고 그들로 하여금 지방당조직들을 꾸리시게 하시였다.

당창건의 대중적기초를 축성하시고 당의 기층조직을 꾸리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투쟁을 우리는 사적관의 여러 호실들에서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칠줄 모르시는 정력으로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결과 당창건준비는 빠른 시일안에 끝나게 되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면밀하게 빈틈없이 끝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10월초에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여신데 뒤이어 1945년 10월10일 에는 당창립대회를 소집하시였다.

이 역사적인 회의에서는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다.

민족의 5천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시게 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조선로동계급과 인민의 령도자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이 역사적인 회의장!

이 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우렁찬 만세소리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강력한 당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원대한 구상의 역사적실현이었으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열매였다.

이때부터 나라의 주인이 된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은 자기의 강력한 전위부대인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수있게 되었다.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된 뜻깊은 회의실에서 우리는 록음되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숭엄한 감회속에서 들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역사를 더듬어 보게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차신 음성!

그이의 격동적인 연설은 우리 참관자들을 먼 그 날에도 이끌었다.

조국이 해방된 직후의 복잡한 그때 우리 당의 창건은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국내 반동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폭탄으로 되었다.

그러기에 놈들은 갓 창건된 청소한 당을 파괴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안팎에서 날뛰었으며 각방으로 음모책동을 꾸미는 한편 당내에 침투시킨 우연분자들을 사촉하여 우리 당의 진정한 강화발전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이러한 형편을 제때에 정확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당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전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당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전당의 조직적 및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시였다.

그이께서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구성성분을 개선하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한 투쟁을 친히 령도하시기 위해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보고서를 쓰시고 연설문을 집필하시고 결정서초안을 작성하시였다. 2층의 북쪽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첫 사무실에서 우리는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었다.

사무실에 놓인 책상과 결상, 서류장, 신문철. 전화기 등은 너무도 검소한것들이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장구한 통치로부터 갓 해방을 맞은 조국이기는 하였지만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첫 사무실이 이렇게 까지 검소한것을 보고 우리는 물론 우리와 동행한 외국의 벗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북조선 립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실 빛나는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초안을 작성하시면서 침식도, 휴식도 잊으시고 밤에 낮을 이으시어 일을 보시던 사무실!

그이께서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현명하신 방침들을 구상하시고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만나주시고 새로 설립하는 한 중학교의 이름을 친히 《삼흥중학교》라고 지어주시며 새 조선의 첫걸음마를 떼여주시던 조선로동당의 첫 지위처!

어느 광산의 광산장으로 일하는 한 기술자를 만나시고 새 조국의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떠 세워주신곳. 남조선에서 찾아온 《서울신문사》 기자들을 만나 조선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모대기는 그들에게 민주주의 새 조국의 참된길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깨우쳐주신 이 력사의 방에서 우리는 마치 어버이수령님의 정열에 넘치신 그날의 모습을 뵈옵는것만 같아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무실에서 1946년 초여름까지 일을 보시고 그해 여름부터는 2층의 동쪽방으로 사무실을 옮기시였다.

이미 이 청사에 첫 자리를 정하신 때에 혁명동지들은 그이께 해가 잘 비치는 동쪽방에 드실것을 권고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굳이 사양하시고 그 방을 혁명동지들에게 배려하시였었다.

그런것을 혁명동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 지지도를 나가신 사이에 당중앙조직위원회 본부의 결정으로 그이의 사무실을 동쪽방으로 옮겨놓으시였다.

그이께서 일을 보신 두번째 사무실에서 우리는 크나큰 감격을 가지고 안내원의 설명을 들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사무실에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수많은 일을 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사업하시던 이 사무실은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인민들과 지방대표들, 당과 국가의 지도일꾼들로 하여 어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력사에 빛나는 1946년과 1947년의 감격적인 사실들을 새삼스럽게 눈앞에 그려볼수있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 머나먼 강원도에서 찾아온 한 순박한 농민녀성을

찬히 만나주신것도 바로 이 사무실에서였다.

토지분여를 받은 땅에서 거둬들인 첫열매를 이고 불원천리하여 장군님을 찾아온 녀성을 맞이하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기뻐하시었던가!

어려워말고 어서 앉으라고 그이께서 권해주셨던 결상도 아직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그이께서 농사형편, 생활형편, 가정형편을 일일이 들으시다가 아직 우리 글을 모르는것을 아시고 공부를 해야 조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따듯이 타일러주시며 빨리 문맹을 깨쳐야 한다니던 그 다정한 사랑의 말씀이 귀전에서 울리는듯하였다.

글을 배운 다음 편지를 써보내라고 친딸에게 당부하시듯 말씀해주시며 거니시던 그 주단도 그때 처럼 반듯이 펼쳐져있어서 우리는 그 예전날에로 가있는듯하였다.

온 민족이 우러러바드는 장군님 앞에서 글을 모르는 부끄러움때문에 얼굴을 들수 없었던 녀성이 자기 집으로 내려가 3개월만에 글을 배우고 자기 손으로 직접 써보낸 편지를 받으신 장군님께서 크게 만족해하시며 친히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써보내주신 그 펜과 잉크집도 그날의 감격을 말하기 위해서인듯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여 이 방에서부터 조선의 문맹퇴치운동의 첫 불꽃이 파오르기 시작하였고 바로 이 방에서 빛발쳐내린 사랑으로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일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굳게 뭉쳐지게 되었다.

토스레적삼을 입고 걸친것 없는 맨발로 20년전에 헤어졌던 아버지를 찾아온 한 로투사의 아들을 만나주시던 그 감격의 순간도 바로 이 방에서 있었다.

맨발로 장군님의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뽀대는 아들, 발을 벗고 왔기에 장군님께서 더 반가와하신다고 하며 아들을 타이르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눈물겨운 상봉의 이야기를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눈굽을 적시시셨었다.

남북련석회의 대표로 왔던 완고한 민족주의자 김구가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탁월한 품모에 감격하고 새 민주조국의 참다운 모습에 감동되어 자기의 그릇된 잘못을 뉘우치며 공산주의가 이럴줄 알았다면 나쁘다고 탓

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한번도 수끄린적 없는 고개를 위대한 수령님앞에서 숙였다는것도 바로 이 사무실에서였다.

사적관의 2층에 있는 북쪽 사무실과 동쪽사무실사이에는 커다란 응접실이 있었다.

여러개의 안락의자들과 긴의자들, 20여개의 개별의자들이 빙 둘러놓여있는 응접실! 무화와 화분이 놓인 원탁들이 균형맞게 자리잡은 이 응접실에도 뜻깊은 력사적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7년의 신년사를 하신 이 응접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경제계획인 1947년의 1개년인민경제계획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그 수행으로 전체인민을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해주던 마이크가 설치되었던 장소였다.

우리나라 로동계급이 처음으로 생산하여 올린 기관단총을 친히 보아주시고 그것을 로투사들에게 수여해주신 다음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곳도 바로 이 응접실에서였다.

조국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건설의 첫 출발명령이 내린 이 력사의 방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된 오늘의 위력을 받들고있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력사의 집-당창건사적관을 찾아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날의 참관은 당의 창건력사를 펼쳐보게 하는 귀중한 학습시간이었다.

이 력사의 집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쳐 충성다하리라는 끝없는 맹세를 다지게하는 배움의 학교였다.

사적관의 참관을 마치고 충계를 내려 정원에 나선 우리는 당창건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계시던 소박한 숙소를 볼수 있었고 그이께서 휴식의 한때를 당과 혁명을 위한 사색으로 이으시였다는 그 런못가도 거닐어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창건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오신 이 력사의 집을 나서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숭엄한 감격으로 끝없이 고동쳤다.

우리는 다시한번 새롭게 이 력사의 집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이집은 하늘을 찌를듯 높아진듯하였다. 그렇다!

우리 당의 이 력사의 집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과 함께 영원히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있을것이다.

해당화

차승철

수산사업소 기술지도원이며 바다자원기사인 류은심은 꽃중에서도 해당화를 제일 좋아했다. 그는 지난 초봄에 술진백사장의 해당화를 몇포기 떠다가 세소어업작업반 휴게실앞에 심었는데 여름에 잡히면서 소담한 꽃망울이 맺히기시 작했다.

처녀는 꽃나무둘레에 잔디를 입히고 언저리를 무지개빛 전복껍질로 곱게 장식하였다. 그는 어뜩새벽 바다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해당화를 즐겁게 돌아보는것이 이제는 정해진 일과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에게는 해당화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다.

티없이 말쑥한 하늘에 주홍빛 줄무늬가 비끼기 작한 7월의 어느날 새벽 오성팔세소어업작업반은 새로 반아온 동력선인 1877호의 출항을 앞두고 류달리 흥성거렸다. 동력선은 젊은 어로공들이 달아준 《바다제비》라는 애칭에 어울릴만큼 날씬하고 경쾌하였다. 뺨기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갑판우에는 새로 꾸민 이면수자망과 훌치개그물, 사돌어구들이 실려있었으며 조라실에는 소형탐지기까지 설치되어있었다.

최신식으로 꾸려진 세소어업 만능선인 《바다제비》를 두고 누구보다 흠족해한것은 세소어업작업반장인 오성팔이었다. 오랜 어로공다운 기지를 지닌 그의 머리에는 《바다제비》와 더불어 앞바다를 주름잡듯하며 여러가지 고기잡이를 벌릴 묘안이 번쩍이고있었다. 수산사업소 참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받들고 세소어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애쓰는 성팔반장을 《바다제비》의 선장으로 임명하였고 새로운 인공어장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부터 오성팔작업반에 내려와있던 은심이에게 작업반의 기술지도를 맡기게 되었다.

은심이는 어로공들과 함께 출항준비를 서둘렀다. 소형탐지기의 배선상태를 다시 검토했고 모든 어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투망할수 있도록 정돈해놓았다. 매사에 깐깐스러운 처녀기사는 취사실의 예비물통에 음료수를 가득채우게 하는것도 잊지 않았다.

출항준비는 예상외로 빨리 끝났다.

은심이는 배가 떠나기전에 자기가 만든 화단으로 갔다.

방금이라도 피어날듯한 꽃망울들이 달린 꽃포

기들을 돌아보던 은심이는 두눈이 동그래지며 두손을 가슴우에 모두었다.

아직 잔뿌리가 자리잡지 못한 화단모서리를 누군가의 큼직한 발자국이 이지러뜨려놓았던것이다. 은심이는 속이 알찌근해났다. 꽃밭의 《상처》에 흙을 덮고 잔디를 고루 입히는데 성팔이가 나타나 한마디 했다.

《누군지 매우 바쁜 걸음을 했던게군.》

《그런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밤눈이 어두운 사람이겠지.》

《호호호, 반장아바이두, 작업반실 외동이 환히 켜져있었는데요.》

《좌우간 꽃이 자리를 잘못잡았다니까. 사람의 태왕이 잦은 길목인데다 땅도 마땅치 않거던.》

《좋은 땅이 따로 있나요워. 보세요. 벌써 꽃망울이 맺히지 않았어요.》

《망울은 젖어도 활짝 피어나기는 바쁠걸. 해당화라는건 원래가 모래밭에서 살게 돼먹은거야. 이렇게 걷은 땅에서는 뿌리를 못내려.》

《가꿀타이예요. 꽃도 사람을 알아본답니다.》

성팔은 허파 빈 웃음을 터뜨렸다.

《못들어보는 소리가 없군. 기사동무도 꼭 태호너석 말하듯하누만.》

태호는 세소어업작업반의 어로공이다. 그는 《바다는 사람을 가려본다.》는 자기판의 철학을 입버릇처럼 뇌이며 어지간히 큰 파도에는 꿈쩍도 하지않는 청년이었다. 은심이는 성팔이가 바다를 한줄에 걷어 잡을듯 때로 과격하게 덤벼치는 태호를 못마땅히 여기는것과 함께 해당화도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여느 어로공들과는 달리 성팔이가 해당화를 달가와하지 않는 이유는 이 꽃이 백사장에만 핀다는것때문이다. 성팔이의 표현을 빈다면 바다밑에 펼쳐진 모래밭은 거의 메마른 황무지인데 거기에는 조개나 대합, 돌가재미 따위가 있을뿐 잡아볼듯이 있는 고급어족들은 해초 우거진 감탕층이나 돌서덜에 있다는것이다. 그는 자망이나 주낙을 퍼놓다가도 자칫 실수하여 그것들이 모래밭에 떨어지면 그 일을 더없는 수치와 무능으로 간주했다. 이런 성팔이는 바다밑의 《황무지》와 하나의 지질층으로 잇닿아있는 백사장은 말할것도 없고 거기에 피어나는 해당화까지도 경멸했다. 성팔이는 은심이가

해당화를 떠오던 날 자기의 이러한 견해를 털어 놓으며 해당화가 수산사업소 구내의 공기에는 어울리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했었다.

은심이는 이런 성팔이가 몹시 피백스러워보이면서도 자기 속을 치해없이 개방하는 솔직성에 호감이 가기도했다.

함께 지내보니 어업에 대한 기초 리론도 있었다.

그는 한쪽의 그물을 마름래호 편당공식에 준하였으며 자그마한 때하나도 부력계산을 해보고야 달군했다.

은심에게는 선줄에 들어선 그가 복잡한 수학공식을 활용하는것이 썩 신기해보였다. 두루 알아보니 해방전의 풋배군시절에는 왜놈 어로기술의 어깨너머로 도면 보는 법을 배웠고 전후에는 통신으로 수산전문학교를 졸업했다는것이다. 은심이는 이런 성팔이를 존경했다. 성팔이역시 자기가 힘들여 습득한 지식을 깊이 리해해주는 처녀 기사에게 가깝게 굴었다. 그러면서도 해당화에 대한 우습강스러운 편견만은 좀처럼 버리려 하지 않았다. 하나 은심이가 크게 관심을 두는것은 해당화보다도 바다밑바닥에 대한 성팔이의 견해였다. 그의 말대로 연안에 펼쳐진 모래밭에는 고기가 극히 적었다. 그래서 세소어업을 하는 고기배들은 이면수, 우레기, 참치 같은 고급어종을 잡자면 퍼그나 먼 바다를 오고가야 했다.

《모래밭이건 돌서덜이건 고기가 육식대게 할수는 없을가? 멀리에 있는 고기떼들을 해당화 피는 기슭까지 불러올수는 없을가?》

자원기사인 은심이는 이 문제를 두고 대학때부터 머리를 써왔다. 정확히 말하면 대학시절보다 썩 이전일것이다. 그게 언제부터인가?...

태호는 출항시간이 되었으니 빨리 바다로 떠나자고 재촉했다. 모두 배머리로 걸음을 옮기는데 가벼운 여름옷차림의 중년녀인이 나타났다. 은심이에게도 낯이 익은 음식료상점 책임자였다.

《급하게 도움받을 일이 생겨서...》

녀인은 수산사업소 판매부에서 떼 문어출고표를 성팔이에게 내보이었다

《30반에 사는 할머니가 손주 결혼식에 쓰자구 주문한거예요. 대사날이 래일이랍니다.》

성팔이는 제정된 물고기 인절차를 벗어난 이른 아침의 방문객을 마뜩지않게 훑어보았다.

《점장아주머니는 바다가사람이 아닌것 갈수다레. 지금 어느 절기라고 문어를 찾소?》

그러나 상업일군 특유의 불임성을 지닌 점장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반장동지두 참... 문어가 귀한 때니까 이렇게 배머리까지 찾아나왔지요.

판매지도원이 그러는데 지금도 더러 잡힌다더군요. 신량이 체대군인총각입니다. 간소한 잔치상 일수록 바다의 명산물이 올라야 빛이 날게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성팔이는 수다스럽게 간청하는 점장을 물그러미 마주보더니 푸쩍없이 대꾸했다.

《문어가 당장 주머니에 있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장담하겠소. 자우간 힘써봅시다.》

성팔이가 심드렁한 대답을 남기고 사라지자 점장은 은심이에게 줄라했다.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약속을 받고야 어떻게 돌아가겠나요. 기술지도원동무가 좀 단단히 말해주세요.》

얼굴이 약간 상기된 은심이는 호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으나 수첩이 없었다.

바다에 나오느라고 소지품을 줄였던것이다. 서둘러 가방을 연 은심이는 손에 잡히는 종이의 여백에다 연필로 상점책임자의 부탁을 써넣었다. 녀인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듯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활기있게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이윽히 지켜보던 은심은 곧 배에 올랐다.

× ×

《바다제비》는 높낮은 물결을 헤가르며 호기있게 달렸다. 칼날같은 배머리에 헤갈리운 물결이 거품을 일으키며 배뒤로 쏜살같이 물러났다. 목표는 작년봄에 성팔이가 새로 찾아낸 돌섬어장이었다.

만속으로 달리는 《바다제비》의 뒤에는 세소어업작업반의 사돌선과 잔바로배들이 새까맣게 따라섰다. 여유있게 키를 조정하는 성팔이의 거동은 출전하는 원정함대의 지휘관이나 된듯 기세등등하였다. 적동색 이마밑에서 번쩍이는 눈빛에서는 이번 첫 출항에서 세소어업의 명수다운 본때를 보이자는 속심이 그대로 비껴였다.

선수갑판에 무저있는 그물더미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태호가 약간 거센 청으로 노래를 뿜었다.

떠나갈 때는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어기여차여...

성팔은 제법 건드러지게 불려대는 그 노래가락이 비위에 거슬리는듯 소리를 쳤다.

《그만두라우!》

심상치 않은 고탍소리에 은심이는 와뜰 놀랐다. 왜 저러실가? 《식전노래는 저녁의 통곡소리와 같다》는 옛날 바다사람들의 낡은 인습때문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것이다. 관혁악의 선물을 타고 은은하게 울려오는 혁명가극의 주제가에 심취하여 그물코를 헛갈리기까지 한 성팔반장이 아닌가, 팬스레 성을 내는듯싶은 성팔이를 두고 제 생각을 쫓던 은심이에게는 불현듯 짚이우는데가 있었다. 가늘게 좁혀진 처녀의 눈길은 멀리 바라보이는 줄바위로 옮겨졌다.

줄바위는 해당화가 꽃숲을 이룬 솔진앞바다에 길게 가로누운 작은 섬이다. 파도의 영향이 덜미치는 그곳은 고기가 많을상싶었으나 바다밑이 모래밭이어서 고기떼가 잘 붙지 않았다.

4년전에 수산대학 자원과를 졸업한 은심이가 처음으로 주목을 돌린곳이 줄바위수역이었다. 수산사업소 책임일꾼들은 불모의 섬에 풍만한 어장을 마련하겠다는 처녀기사의 당돌한 제의를 지지해주었다.

은심이는 일터를 기술과 사무실로부터 세소어업작업반으로 옮겼다.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줄바위섬에서의 바위땀기였다. 태호포대의 청년들과 함께 도래굽이에 두툼히 덮인 천년 묵은 바다이끼와 물때를 굽어내고 미역, 고루매, 듬북 등의 해조포자를 이식했다. 몇달후 말쑥하던 바위들에는 해조순이 뽕뽕뽕 돌아나더니 다음해에는 제법 숲을 이루었다.

그러나 고기떼는 좀처럼 모여들지 않았다. 며칠밤을 지새우며 기술문헌들을 뒤적이던 은심이는 포구가까이에 있는 벼랑턱을 까내기 시작했다.

줄달아 일어나는 발파소리와 함께 무너져내린 무수한 바위돌들을 줄바위의 바다물속에 던져넣었다. 해초가 더 많이 돌아나게해서 고기가 알뜰이를 할수 있는 은거처를 마련하자는것이였다.

세소어업작업반뿐아니라 온 수산사업소가 이 일을 지원했다. 모든 배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때마다 돌을 한배씩 실어날랐다. 은심이는 밤과 낮이 따로 없는 드바쁜나날을 보냈다.

은심이가 하는 일에 오래동안 침묵만 지켜오던 성팔이는 어느날 간물에 젖어 소금꽃이 내뿜은 은심이의 작업복을 이윽히 여겨보더니 구레나룻이 뒤덮인 아래턱을 매만지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난 기사동무가 공연한 수고를 하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오.》

침중한 낮빛을 한 성팔이를 은심이는 밝은 웃음으로 대했다.

《바다를 길들이는 일이 그렇게 험하겠습니까? 해를 거듭해가며 힘과 지혜를 바치느라하면 수확이 있겠지요.》

《바다는 그렇게 살뜰하지 못해. 몇해는 고사하고 몇십년후에도 기사동무의 수고를 아랑곳하지 않을거요.》

은심이는 명랑하게 대꾸했다.

《바다는 거칠면서도 속깊은 감각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그렇지 그러나...》

성팔은 하려던 말을 채 끝맺지 않고 담배를 피워문채 먼바다를 물끄러미 보았다...

말보다 실천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습관된 성팔이는 한달후에 돌섬 부근에서 새 어장을 찾아 냈다. 그는 은심이에게 자원양식구역을 돌섬 어장에 린접한 내만수역에 옮길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은심이는 줄바위에서 물러서지않았다. 유리한 지질조건이 자연적으로 마련되여있는 그곳에 가면 일은 험할것이다. 하지만 굴함없는 진취성을 지닌 개척자를 기다리지 않는 그런 안온한곳에 무슨 탐구와 로력의 보람이 있단말인가.

마음을 가다듬은 은심이는 수산연구소와 대학에 오르내리며 자료들을 연구한끝에 수산사업소 생산부에 제의하여 줄바위돌레에 천해양식장을 조성했다. 양식장에서 자라나는 미역과 곤포에는

물고기의 먹이감인 부유생물이 많이 붙어있기때문이었다. 이러한동안 또 한해가 흘렀다. 은심이의 희뺨은 얼굴은 바다바람에 구리빛으로 그을고 보드라운 손바닥엔 못이 박혔다. 그런데 이저께 줄바위부근에서 대합을 캐고있던 태호가 우레기와 열기가 석인 새로운 이면수떼가 나타났다고 알려주었다. 회열에 북받친 은심이는 《바다제비》가 돌섬어장으로 나가는길에 줄바위에 그물을 놓자고 했다. 그러나 성팔이는 썩 시답지 않게 여겼다. 고집롭게 구는 성팔이를 딱하게 여겨보던 태호는 그달음으로 줄바위에 자망을 늘어놓았다. 태호네들이 밤늦게 바다에서 돌아왔을때 성팔이가 배머리에 찾아나왔다.

《줄바위에 그물을 기어코 넣었단말이지?》

《예, 고기떼가 보이더군요.》

《그건 나그네처럼 걸떠서 쏘다니는 것들이야 그물에 걸릴고기가 아니거던. 이전에도 그런 뜨내기들은 줄바위에 있었다네.》

《걸떠다니는 고기라고 해서 못잡을 까닭이 뭘니까. 바다를 휘여잡으면야 그쯤한건...》

성팔은 희떠운 태호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래 자네는 바다를 휘여잡았다고 생각하나?》

《채 휘여잡지는 못했지만 썩 친해졌지요.》

《친해졌다고? 바다라는건 자네가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얄전한 물건이 아니야. 난 한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오지만 아직도 바다속내는 다 모르네.》

자네 너무 속단하지 말라구.》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줄바위에 한번 가보겠습시다.》

지령실을 다녀오던 은심이는 두사람의 심각해진 대화를 묵묵히 엿들었다...

성팔이가 으름장을 놓는바람에 태호는 목청을 좀 낮추었으나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어기여차여... 어기여차

바다로 가잔다

태호는 오늘아침에 어김없이 줄바위섬의 그물을 추려 할것이고 성팔이는 자기대로의 고집을 세울것이다. 은심이는 소란해질수 있는 배의 분위기를 두고 마음똥다. 아닐세라 배는 바다쪽으로 뺄죽이 내민 술진단을 돌아서자 줄바위섬을 그냥 지나치려 했다. 은심이는 성팔이에게 다가갔다.

《배를 세워주세요.》

《배길이 늦어지겠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돌선을 타고 줄바위 그물을 추겠어요. 아바이는 돌섬으로 곧장 나가세요.》

《들어올 길에 함께 추어보는게 어떻소?》

《아침물을 놓쳐서는 안되지 않아요.》

성팔은 마치못해 기관실에 정지신호를 보냈다.

배가 멈춰서자 은심이는 뒤따라오던 사돌선에 옮겨탔다. 성팔이는 태호와 몇사람의 청년들을 은심이에게 떨구어놓고는 돌섬으로 나갔다.

...줄바위에 놓았던 그물을 끌어올린 은심이는 손맥이 풀리었다.

삼백메터나 되게 늘어놓았던 자망에 이십키로 가량의 이면수와 열기가 걸렸을뿐 모든 그물코들이 거의다 비어있었던것이다. 배의 고물에 퍼더 버리고 앉은 은심이는 실심한 낮빛으로 끝간데 없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아침해살을 함뿍 받아안은 높낮은 물결은 해당화가 한창 피어나는 기슭으로 쉬임없이 밀려가고있었다. 실망의 질은 안개가 서리운 은심이의 망막에 이전이나 다름없이 정답게 비껴오는것을 붉게 타는 해당화와 볼수록 거창하면서도 다감한 푸른 바다뿐이었다. 은심이는 백사장에 덩굴면서 자라던 유년시절에 꽃중에서도 해당화라는 꽃이름을 제일먼저 배웠고 바다의 초록빛을 여느 색깔에 앞서 눈에 익혔다. 어떤 아이들은 잔가지가 있는 해당화가지들 꺼려했지만 은심이만은 손가락끝을 따끔거리게 하는 꽃가지를 재미스럽게 만져보곤했다. 뭐니뭐니해도 아버지가 늘 고기잡이 나가있는 푸른 바다기슭에 피어있는 해당화가 그에게는 제일 좋았던것이다...

은심이가 열한살나던 해의 어느 여름날 그의 학급은 바다기슭에 나와 실물수업을 받았다.

《바다는 어디나 똑같이 푸른데 왜 어떤곳은 고기가 많고 어떤데는 적습니까?》

은심이에게서 엉뚱스러운 질문을 받은 녀교원

은 소녀의 울퉁한 병아리눈을 이윽히 마주보고나서 조용히 되물었다.

《은심학생은 왜 그런것 같습니까?》

《.....》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오세요.》

집에 돌아온 은심이는 밤새껏 생물교과서를 뒤적이다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진 왜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나?》

《고기가 멀리에서 살기때문이지.》

《가까운데 없나?》

《있지만 먼바다만큼 없어.》

《그러문 먼바다 고기를 불러오지 뭐.》

그날 은심이의 숙제답안지를 손에 든 교원은 거기에 그려진 물고기 분포도를 보고 놀랐다. 푸른 색칠을 진하게 한 우리 나라 동해에는 각가지 고기들이 빼곡히 차있었는데 먼바다에 사는 어족들도 해안선에 주둥이를 맞대고있었던것이다. 모든 고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나라 기슭에 응당 가까이 불러와야 한다는 소녀의 엉뚱스러운 환상은 교원의 주목을 끌었다. 은심이는 모든 과목에서도 우수했지만 생물소조활동에서 남다르게 뛰어났다. 그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수산대학 자원과에 입학하였다. 자원기사의 자격증을 받아온 길로 고향의 바다가에 달려나온 은심이는 초록빛 바다물에 발을 잠그고 붉게 핀 해당화의 꽃잎들을 쓰다듬으며 끝없이 푸르른 먼 바다를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생각에서 깨어난 은심이는 저오기 게면찍어졌다. 태호와 청년들의 눈길이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은심이는 그들의 눈길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과 함께 절박한 기대를 느꼈다.

청춘의 힘과 열정을 바다를 정복하고 가꾸는데 바쳐오는 그들이다.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나 다 할수 있으며 자기들은 누구보바도 바다와 친숙해졌고 바다와 더불어 속깊은 이야기도 나눌수 있다고 자부하여오는 태호네다. 그러나 줄바위는 아직 그들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고있다. 은심이는 그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찾아 다시 사색에 잠기였다. 오래동안 애써서 가꾼 줄바위수역에 고기떼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것을 몇번의 시험투망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왜 그물에는 걸리지 않는가? 성팔반장의 말대로 밀집된 어군이 아니기때문일까? 아니다. 분산된 고기떼라고 해서 그물에 안걸릴 리유는 없다. 여기에는 미처 해명 못한 비밀이 있다. 지금 태호네들은 이 일을 두고 얼마나 안타까와할것인가.

기사라는 자격은 한낱 간판이 아니다. 기사라

는 청호속에는 조국의 절절한 당부와 기대를 실현해야 할 숭고한 의무가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란 내가 이 고리를 풀어내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난 은심이는 창경으로 바다밀을 세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연한 담청색 물발속에 기이한 수중풍경이 드러났다. 도래굽이로부터 바다밑으로 숙여든 가파로운 경사면에는 고루매, 듬북 등의 해초가 숲을 이루어 너울거렸다. 그 이채로운 숲속을 헤치며 열기, 우레기, 이면수 떼들이 헤엄쳐다닌다. 목덜미가 빠근해날 지경으로 바다밑을 살피던 은심이는 암석층과 모래밭이 접촉되는 흠채기에서 류다른 현상을 발견했다. 해빛이 잘 스며들지 않는 어둡침침한곳에서 퍼그나 널찍한 타원형의 진밤색덩어리가 눈에 띄운것이다.

위낙 깊은곳이다보니 푸른 물발과 혼탁되어 고기떼인지 물속에 밀려다니는 풀더미인지 가려낼 수 없었다. 은심이는 그 한복판에 돌덩이를 떨어뜨렸다. 투명도를 흐리게 하는 파문과 함께 진밤색덩어리는 삽시에 사라졌다. 은심이는 그 미지의 덩어리가 고기떼라는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그물을 다시 놓아야겠어요.》

은심이의 말끝에 태호는 눈섭을 치켜올렸다.

《허탕을 친 자리에 또 그물을 놓는단말이요?》

《허탕을 친건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물이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기때문이에요.》

확신있는 은심이의 말조차도 믿음이 안가는듯 태호는 창경으로 물밀을 살펴보았다. 한참동안 《수중관찰》을 하고난 태호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어제저녁에 너무 어둡다보니 소경그물질을 한게 분명해.》

그러자 곁에 있는 청년이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바다는 참말 능청스럽지. 보라구, 자기를 지내깎보고 달려드는 자네같은 사람에겐 여지없이 골탕을 먹이거든.》

모두가 유쾌해진속에 그물을 늘여놓기 시작했다. 창경으로 물밀을 들여다보는 은심이의 신호에 따라 배는 서서히 움직이며 자망을 쳐나갔다. 그물놓기가 끝나자 저녁에 다시 추어보기로 하고 돌섬어장으로 향했다.

× ×

사돌선은 살갈이 내달리였다. 바쁜 배갈이었다. 은심이는 사돌선의 기관을 조정하는 태호에게 속도를 더 높이라고 지시했다. 줄바위에서 일에 몰박해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작 빈배를 타고 바

다에 나서니 더없이 공허해졌다. 한시바삐 돌섬어장에 나가 그동안 밀진 봉창을 해야 했다.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돌섬어장에 도착하니 벌써 중낮무렵이 되었다.

성팔이는 한동안에 《바다제비》의 배머리가 속도록 고기를 잡아실었다.

기분이 매우 흡족해있던 그는 고기를 못잡아 미안해하는 은심이를 너그럽게 맞아주었다. 고기잡이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만 하면 속이 달아서 펄펄 뛰지만 남보다 앞섰을 때에는 매사에 관대해지는 성팔이였던것이다. 그는 당장 사돌작업을 시작하려는 은심이를 한사코 《바다제비》의 갑판에 끌어올리더니 처녀기사를 위해 강아지만큼 씩한 우레기를 회감으로 끌라왔다. 성팔이는 피춤에서 특수강으로 만든 큼직한 손칼을 꺼내어 우레기의 겹질을 순식간에 벗겨냈다. 뒤이어 칼이 재빨리 움직이며 연한 속살을 종이장처럼 얇게 저며냈다. 《회칼질을 하는것만 보아도 그 사람의 고기잡이 수완을 짐작할수 있다.》고 늘 외우곤 하는 성팔이는 자기의 이 요리솜씨를 사람들앞에서 곧잘 자랑하곤했다. 하지만 지금의 은심이는 성팔이에게서 호의를 받는것이 썩 달갑지 않았다. 푸짐하게 차려놓은 점심도 입맛이 당기지 않아서 몇술 뜨는것처럼 하다가 태호와 함께 사돌작업을 시작했다.

돌섬어장은 성팔이가 탐낼만큼 자원이 많았다. 은심이는 한참동안에 퍼그나 많은 섭을 캐냈다. 잠시 허리쉬를 하는데 매생이를 탄 성팔이가 나타났다.

그는 배장에 수두룩이 쌓인 섭조개며 전복을 대견스러이 굽어보더니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어장이 이만하면 괜찮지?》

《정말 고기가 많구만요.》

《이래서 곧장 나오자구 한거요.》

《줄바위어장도 고기가 이렇게 옥실대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심이는 가방에서 줄바위어장도를 꺼내 펼치였다. 은심이는 어장도를 짚어가며 오늘아침 줄바위에서 얻은 일을 과장없이 조용히 이야기했다. 은심이의 설명을 진지한 낮빛으로 듣고난 성팔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기사동무한테 꼭 해주고싶은 이야기가 있소.》

성팔은 고래뼈물주리에 담배를 끼웠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기사동무의 열정을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 나도 한때 그런 칭찬을 받으며 일한적이 있소.》

...성팔이에게도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젊은시

절이 있었다. 약 20년전 30대의 청년이던 오성팔은 가까운 앞바다를 황금어장으로 전변시키겠다는 포부를 안고 팔 걷고 나섰다. 그들을 좋아하는 정착성 어족들의 은거처를 조성하려 나무아지를 철사오리로 묶어 바다에 넣었으며 바위돌을 배로 실어내다가 부리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성팔이의 노력에 탄복하여 그를 성심껏 도왔다. 성팔이가 바다에 섬겨놓은 나무아지들과 돌덩이들을 모아 쌓으면 커다란 산더미를 이룰것이다. 그러는 동안 성팔이는 퍼그나 지쳤다. 힘이 부쳐서만이 아니었다. 뚜렷한 결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 퍼넣기와 같은 일을 두고 동요하는 축들이 생긴것이다.

이렇게 되자 처음엔 찬사를 아끼지 않던 사람들속에서도 머리를 기웃거렸고 뒤소리들이 나왔다. 성팔이는 마음의 탕개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힘과 시간을 바친 바다가 언제쯤이면 풍성한 어장으로 되며 먼 앞날에 가서 고기가 모여든다 해도 누구의 손에 잡히겠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날이 갈수록 막연하게 여겨지는 그 일에서 슬며시 물러난 성팔이는 육신을 놀리는것만큼 그 실적이 경쟁도표와 통계란에 고스란히 오르며 웅당한 평가가 차례지는 물고기잡이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부질없는 짓에 젊음을 빼앗긴걸 생각하면... 아마 그 힘으로 내쳐 고기잡이를 했더라면 영웅이 되었을거요.》

성팔은 담배불을 붙였다.

《젊은 때의 마음이란 처음으로 날개를 펼쳐보는 날새와도 같다 할가, 어디든가 마구 날아오르고싶지. 그렇게 덤벼치는 사이에 빨리도 흘러가 버리는것이 청춘이더군. 보다 보람찬 일을 해놓지 못한채 놓쳐버린 젊은 시절이 마치 몸의 한조각을 남겨두고 온것처럼 쓰라리게 돌이켜지누만.》

은심이는 무슨 말을 할듯하더니 인차 낮을 둘러였다. 성팔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 줄바위바다는 묘하고 영글한것이라는걸 알아야 하오.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기술자의 첫 출발이 빈결음이 되지 않도록 어장을 심중히 선택하라구.》

은심이는 성팔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것 같았으나 감정의 굴곡은 엿볼수 없었다. 처녀기사는 이 세상을 즐거움속에서만 내다보는듯 천진한 미소가 어린 가늘사한 눈매로 무릎에 퍼놓은 어장도를 굽어보고있었다. 성팔이는 자기가 아직 은심이에게 먹여들지 않은 빈소리를 지껄였다는 허구름으로 하여 불쾌해졌다. 노여움이 서린 성팔이의 눈길은 자기의 신중한 견해를 소리없이 물

리쳐버린 줄바위어장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탐구와 혁신의 갈망이 스며있는 미세한 점과 선보다도 어장도의 옷단 여백에 찍여있는 글자를 더듬고있었다.

《식료상점 점장... 문어.》

성팔이는 과학기술용어와는 하등의 인연이 없는 단어들을 혀아래소리로 읽었다. 순간 새벽에 찾아왔던 점장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성팔이는 은심이가 창황중에 써넣은 이 글발이 아니었다면 점장의 부탁을 다시는 상기하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되자 좀 먼구해졌다.

《딱한 노릇이군. 포구에 돌아가던 문어때문에 단련을 받겠는걸.》

심드렁한 그 말에 은심이는 고개를 들었다.

《점장아주머니가 몹시 애쓰는데...》

《잡아주면야 좋지. 하지만 철이 지난걸 어찌겠나. 문어대신에 여느 고기라도 쓰겠지. 아무렴 해변가 잔치에 물고기를 떨굴라구.》

《아바이두참, 약속을 어쩌면 그렇게!...》

《무슨 소릴 하나. 잡도록 힘써보라구 했지 꼭 잡아주겠다고는 안했네. 나는 바다일을 두고 일빠른 약소를 해본적이 없어.》

《에?!》

《그저 듣기 좋도록 해준 대답이지.》

은심이의 얼굴은 발기우리하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그러실수 있어요. 점장아주머니는 그래도 우리를 바라고 배머리까지 찾아나왔댔어요. 바다의 주인인 우리가 바다일을 약속 못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대사날을 앞둔 그 할머니는 문어가 꼭 들어오리라고 믿고있을거예요.》

《기사동무두 답답하구만. 그래 이 바다를 농사집 터밭쯤으로 여기오?》

은심이는 성팔이를 면바로 마주보았다.

《이 바다는 농사집 터밭이라기보다 조국의 터밭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서있는 이 바다를 요긴한 모든것을 끌고루 간직되어있는 보물고로 여기고있어요. 그들의 이런 기대를 실현 못해줄바에야 무엇때문에 우리를 바다의 정복자라고 해요. 전 이 바다가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아무때고 어김없이 안겨줄서 있는 풍성한 터밭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심이는 나이가 많은 반장에게 지내 당돌하게 군것이 미안스러운듯 눈을 살포시 내려깔고 어장도를 접어넣었다. 그리고는 섭발이 있는 도래굽이로 배를 몰아갔다. 속이 언짢아진 성팔이는 섭집계를 틀어쥐고 불이 번쩍나게 섭을 따올리었다. 일손을 잡기만 하면 온갖 잡념을 잃어버리는 그였으나 이 시각만은 별스럽게 우울해졌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게지.》

이렇게 스스로 속을 달랬으나 물러간 구름장사
이로 해살이 비쳐올 때에도 마음은 개운해지지
않았다.

한것이 훨씬 기울었을 때 수산사업소 탐색선이
달려나왔다. 무선기가 탐지기 안테나가 숲처럼
숫아있는 사령탑우에 서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향
해 소리쳤다.

《새로운 고기떼가 나타났소.》

다행이었다. 침울한 기분이 가셔지도록 어디론
가 달려가고싶던 성팔이는 귀가 솔깃해졌다.

《어느쪽이요?》

《멀지 않소. 모서다줄테니 우리 꿈무늬에 달리
시오.》

바투 접근해온 탐색선에서 팔뚝같은 끌줄이 날
아왔다. 성팔이는 날랜 솜씨로 예상을 《바다제
비》의 앞코승이에 든든히 걸어맸다. 은심이가 탄
사돌선과 여느 배들도 뒤에 달리였다. 탐색선은
물쪽을 향해 패속으로 전진했다. 끌힘이 어찌나
드센지 《바다제비》의 목이 금시 빠져나갈것 같
다.

《어떤 고기떼가 들어왔기에 이다지도 덤벼치는
가?》

성팔은 궁금스러운 한편 좀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련한 어부답게 속을 녹잡히였다.

《바다에서의 사변적인 성과는 언제나 이런 의
혹으로부터 시작되곤했지.》

× ×

탐색선이 《바다제비》 선대를 이끌어간곳은 다
름아닌 줄바위어장이였다.

성팔이는 처음에는 놀랐으나 태연한 기색으로
주위를 살폈다. 해초가 무성한 도래굽이에는 이
면수의 훌륭한 먹이감인 곤쟁이떼가 벌떼게 깔려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고기를 쪼아먹느라 하얗
게 덮쳐들었다. 줄바위를 중심으로 이면수떼가
들이민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웃 수산사업소
의 세소어업 배들도 앞다투어 모여들었다. 은심
이는 태호네들과 함께 아침에 늘어놓았던 자망을
당겨올리기 시작했다. 가까이에 멈춰선 탐색선
들과 잔바로배들의 어로공들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은심이네쪽을 지켜보았다. 성팔이도 저으
기 긴장해서 낮가죽이 팽팽해졌다. 은심이는 표
식떼줄을 당기면서 그물이 올라올 물밀을 주시했
다. 잠시후 깊은 물속에서 린광과 같은것이 얼른
거리더니 그물에 걸려 퍼들쩍거리는 치썩같은 우
레기, 이면수가 아름답기로 올라왔다. 그물코마다
에 모조리 고기가 걸린것이다. 환성이 터졌다.

성팔이는 역시 호방하고 대범한 어부였다. 오
랜 바다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으로부터 나온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좌절되어본적이 없는 주장이
은심이네 앞에서 꺾이였으나 조금도 의기소침해
지지 않았다.

성팔이가 방금 그물에 싸여올라온 문어를 재빨
리 벗겨내어 배칸에 넣는데 곁에 있던 태호가 악
의 없이 이죽거렸다.

《그게 문어가 옳은가요?》

《옳구말구, 한데 절기를 모르고 기여드는걸 보
니 얼이 나간놈 같구만.》

《얼이 나가다니요? 제대군인총각의 잔치날을
잊지 않고 찾아온걸 보니 인사가 아주 밝구만
요.》

모두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성팔이도
웃었다. 그러나 태호의 룡담보다도 배칸에 차오
르는 고기더미를 보며 좋아하고있었다. 은심이도
따라 웃었다.

은심이의 심장은 이 시각처럼 세차게 고동쳐본
적은 없었다. 주체할수 없는 희열의 박동이었다.
얼마나 바라던 줄바위어장에서의 풍어인가! 은심
이는 온몸의 피가 관자노리로 모여드는듯 얼굴이
화끈거렸고 머리속에는 가벼운 현훈증이 일며
자신의 존재조차 흥미하게 느껴지는것이였다.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고기들의 움직임
을 관찰하려고 물밑에 들어갔던 잠수공이 두개의
돌덩이를 안고 올라왔다. 잠수공의 말에 의하면
그물이 놓여있던 주변에는 이런 돌덩이들이 수
두룩하다는것이였다. 은심이는 오늘의 고기잡이
와 어떤 련관이 있는듯한 현무암덩이, 걸모습이
너무 다른 두개의 돌덩이를 세심하게 살피보았다.

아직 물때가 오르지 않은채 해초순이 갓 돌아나
기 시작한것은 최근에 은심이네가 던져넣은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물때와 해초가 두툼이 뒤덮인
다음것은?... 곁에 서있는 성팔이는 그 미지의 돌
덩이를 묵묵히 굽어보고있었다. 은심이는 자원기
사로서의 추리와 처녀다운 기민한 촉감으로 그
현무암덩이가 성팔의것임을 알아냈다.

은심이는 그것이 더없이 기뻐다. 은심이의 손
끝은 애기해삼과 모래새우가 촘촘히 박혀있는 해
초포기사이를 더듬었다.

《보세요. 이건 아바이가 넣은 돌덩이예요.》

성팔은 구태여 은심이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
다.

그러자 은심이는 더욱 명랑해졌다.

《아바이들이 줄바위에 섬겨넣은 이 현무암들은
오랜세월 바다속에 잠겨있는동안 이렇게 훌륭한
먹이바탕을 이루었구만요. 이 먹이밭에 새로운
고기떼를 끌어들였어요. 짧은시절에 기울인 아바
이의 수고가 오늘에 와서 크게 은을 냈습니다.》

담담한 은심이의 어조에는 려의적인 겸손성과

는 너무도 다른 뜨거운것이 풍기였다. 이런 은심을 이윽히 여겨보던 성팔이는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그런 소리는 말라구. 나는 이 돌덩이들과 오래전에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이야. 기사동무와 청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돌덩이들은 영영 바다에 묻혀 은을 내지 못하고말았을거요.》

진정으로 우려나오는 목소리였다.

지금 성팔이에게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미 사람들에게서 망각되어버린 자기의 수고를 잊지 않고 내세워주려는 은심이 눈물겹도록 뜨겁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걱정의 급류에 떠밀리워가는 성팔의 귀전에는 심장의 금선을 울리는 색다른 음향이 울려왔다.

텀버딩... 텀버딩... 좌르륵...

바다에 편이여 떨어지는 돌덩이들과 함께 크고 작은 분수가 수없이 솟구쳐오른다. 비발처럼 자욱히 튀어오르는 물방울속에 두사람의 모습이 엇바뀌어 나타났다. 20년전의 자기와 줄바위수역의 은심이였다. 둘다 바다물과 땀으로 물주머니가 되었으나 표정만은 서로 달랐다. 일손이 걸차면 서로 어딘가 초췌해보이는 자기에게 비할 때를 동적인 은심의 거동은 신심에 넘쳐있다. 줄바위섬에서의 바위담기와 투석작업, 양식장조성, 점장의 부탁이 적혔던 어장도...

바다를 조국의 터밭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은심의 목소리, 어떤 파도속에서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던 모습이다. 청춘시절의 양양하던 지향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바다를 모질게 뜯어먹기만 하던 자기에게 비할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조국의 바다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풍만하게 가꾸어가는 은심이들의 청춘기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순진한 미소가 떠날줄 모르는 은심의 눈빛이 이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은심이는 자기를 점도록 지켜보는 성팔이를 의아쩍게 마주보았다.

《아바이두 참, 왜 그렇게 찬찬히 보세요?》

《아니 그저...》

일손 허둥거리던 성팔이의 시선은 수평선쪽의 어느 한 공간에 머물렀다.

《기사동무! 젊은 시절을 값없이 산 사람의 눈에는 뜻깊게 살려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제대로 비껴오지 않는가보군. 정말 부끄럽구만.》

은심이는 심각해진 성팔이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나직이 되이였다.

《참 아바이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작에 불

파한 일을 가지구...》

《하긴 이제 첫 꼭지를 뎌셈이지. 하나 이번 일을 통해서 가까운 바다에 얼마든지 고기떼를 끌어들이실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소.》

《아바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바다를 터밭처럼 가꾸어가자구. 그래서 보다 풍성한 어장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세나.》

× ×

《바다제비》가 잔교에 닿자 부두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남먼저 배머리에 달려나온것은 식료상점 점장이였다. 태호가 어창에서 문어상자를 꺼내어 보란듯이 잔교에 올려드리자 너인은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진귀한 물건을 다루듯 문어를 조심히 뒤쳐보고나서 밝게 웃었다.

《그 신랑신부는 자기들을 위해 철이 지난 문어를 잡아다준 반장아바이의 수고를 잊지 않을거예요.》

성팔이는 성급히 머리를 저었다.

《그런게 아니요, 아니라는데두. 이 문어는 우리 기사동무가 먼바다에서 붙어들었지요.》

점장은 의문스럽다는듯 눈을 깜박거리더니 끈기겨운 낫색을 지었다.

《그럼 초청장이라도 냈었나요?》

《초청도 아주 값비싸게 했지요... 그건 그렇다 치구. 앞으로 요구되면 서슴없이 부탁하시우. 얼마든지 잡아낼테니.》

호걸스러운 성팔이의 말에 어로공들도 점장도 이면수를 받아가는 산간마을의 인수원도 모두 즐겁게 웃었다.

성팔이는 이 유쾌한 자리에 응당 끼워있어야 할 은심이가 보이지 않아서 한참 주위를 둘러보다가 태호와 함께 꽃밭으로 올라갔다. 아닐세라 은심이는 해당화밑그루를 손질해주며 나직히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아 붉게 핀 해당화야 해당화

정다웁고나 너의 모습 아름다워라

성팔이의 눈앞에는 은심이가 가꾸는 해당화포기들이 바다위에 만발한 수억만 꽃포기로 확대되어 펼쳐졌다. 그 무한대의 화원속에서 은심이의 고즈넉한 노래소리가 울려오는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잠겨 은심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성팔이는 태호를 이끌고 배머리로 향했다.

새로 개척된 줄바위어장으로 나갈 《바다제비》의 출항준비를 서둘러야 했던것이다.

당원-일군에 대한 생각

로종익

나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리고 출장길에서 자주 우리 시대의 훌륭한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한다.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참된 주인들, 기적과 혁신의 앞장에 서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의례히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조선로동당원들의 이름을 뜻깊게 외워보곤한다. 그럴 때면 나역시 당원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함께 그 어떤 숭고한 생각에 젖어들게 되는것이다.

한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당의 숨결로 사는 사람들, 가장 큰 창조적힘을 지니고 성스러운 혁명사업에 한몸을 다바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조선로동당원이다. 그들은 어려운 파업앞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위험속에는 남먼저 뛰어들며 자기자신보다 동지를 생각하고 아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원-이 얼마나 고귀한 칭호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 먼저 뛰어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한 로당원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는 내가 출근길에서 여러번 만나곤 하여 뜻깊이나 익힐수 있었던 평범한 아바이다. 하지만 그 아바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로 해서였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되면 나는 출근길에서 마치도 약속이나 한것처럼 그아바이를 만나게 된다.

아바이는 자그마한 가방을 들고 남들처럼 서두르는 법 없이 아마 습관된듯 길을 보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고개를 들고 줄곧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피며 걸음을 옮기는데 얼핏보면 자연에 심취된 늙은이같기도 했다.

(별난 아바이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월요일이면 이 길로 출근할까?... 공중엔 또 무엇이 있기에 저러는걸까?...)

나는 저으기 호기심이 동하여 아바이곁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다.

《아바이, 뭘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득 고개를 돌린 아바이는 먼구슬러운듯 병그레 웃으며 나를 알은체했다. 아마 출근길에서 만나곤하여 아바이에게도 내가 낯익은 모양이었다.

《뭘 줌... 내 직업이 그래봐서...》

《알만 합니다. 아바인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일하시지요?》

나는 그가 가로수를 살피며 걷는다고 확신하며 짐작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아바이는 조용히 소리내어 웃으며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것이였다.

《하기야 도시경영사업과도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난 송배전부에서 일하오.》

나는 그만 자기 생각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 아바이가 전기줄을 살피보며 걷는다는것이 너무도 명백해진것이다. 송배전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는 나는 아바이에게 은근한 존경을 품게 되였다.

이야기를 나누던김에 두번째 의문도 풀고싶었다.

《그런데 참 아바인 왜 월요일에만 이 길로 출근합니까?》

《허허, 세밀하게도 관찰했구만.》

그의 말에 의하면 매일 출근길을 바꾼다는것이였다. 그 이유인즉 자기가 출근하는 5리구간에서 시내의 전기줄을 엇바꾸어 순회점검을 하면 사고를 미리 막을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나는 그제야 아바이가 전기줄을 보며 걷는것이 스스로 말아하는 훌륭한 점검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게 하자니 어떤 날에는 다니기 좋은 출근길을 걷기보다 10분이나 15분을 더 걸어야 하였다. 이런 일을 매일 어김없이 한다는것은 누구나 쉽사리 할수 없는 일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나는 아바이를 다시금 존경어린 눈길로 쳐다보게 되였다.

《난 세포총회에 제기하여 이 일을 당적과업으로 받아안았소. 그러면 자기를 더 통제할수 있거든요.》

훌륭한 아바이였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참된 당원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아바이를 한걸음 더 깊이 알게 된것은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도송배전부 신문주필동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이틀후에 기적이 창조되는 공사를 하니 취재를 오라는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출장준비를 해가지고 기차로 500리, 빠르게 30리, 걸어서 20리나 되는 깊은 산정에 이르렀다. 서둘러대며 찾아왔으나 아쉽게도 한발 늦어서 공사의 시작을 보지 못했다. 내가 몹시 서운해하자 신문주필동무는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했기에 진짜는 이제부터라면서 정황을 설명해주었다.

마그네사크링카공장을 확장하는 공사에 발맞추어 전기부문에서는 발전소에서부터 공장에까지 22만볼트송전선을 건설해야 하였다. 송전선건설사업소 수리개들은 메부리와 메부리에 첩탑을 세우며 연연 수백리에 전기줄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도중에는 11만볼트송전선이 가로건너갔는데 거기로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 공간만은 전기줄을 늘이지 못하였다. 그들은 도송배전부에 하루동안 정전시켜줄것을 요구하였다. 제기를 받은 도송배전부 지배인은 곧 현장에 나가보았다.

사실 11만볼트송전선은 주요 공장, 기업소들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선이었어서 단 한순간의 정전도 생산과 건설에 막대한 수자와 맞먹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동안이나 정전시킨다는것은 너무도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22만볼트송전선도 시간을 다루는 중요한 건설대상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도송배전부지배인은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모대기였다. 그런데 그는 얼마후 단호한 결심을 내리었다.

그는 송전선건설사업소동무들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동무들, 이 공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동무들은 산줄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우리에게 유능한 산줄공이 있소. 우리가 정전시키지 않고 해보겠소.》

지배인은 산줄작업으로 새로 늘이는 송전선을 전류가 흐르는 11만볼트 송전선으로 넘겨보낼 결심을 하였다.

바로 그 공사를 오늘 하는것이다.

작업장은 사방에 네개의 봉우리가 우뚝우뚝 솟아있는 골짜기 상공이었다. 11만볼트송전선첩탑은 동쪽과 서쪽의 산봉우리위에 서있는데 두 첩탑사이를 연결한 전기줄은 활등처럼 늘어져있었다. 새로 세운 22만볼트송전선첩탑은 남쪽과 북쪽의 높은 봉우리위에 서있었다. 전류가 흐르는 11만볼트송전선으로 팔뚝만한 22만볼트송전선을 열십자로 넘기여야 하였다.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난공사였다.

나는 골짜기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땅 위에서 전기줄까지의 높이는 50여미터이나 해발고는 700미터나 되는 상공에 산줄공들이 매달려있었다. 산줄공이란 전기를 끄지 않은 전거줄을 쥐고 일하는 특수기능공들이다.

송이구름이 그들의 머리위에서 뚝뚝 떠가고있었다. 쳐다보기만해도 아찔하게 높은곳이 그들의 일터다.

11만볼트송전선첩탑의 맨꼭대기에 늘어진 피뢰선복판에 난땀 매달린 나이지긋한 산줄공이 바줄을 넘기고 있었다. 바줄을 먼저 늘어놓는데 성공한 산줄공들은 그에 의지하여 22만볼트송전선첩탑의 피뢰선을 늘이었고 그 피뢰선에 연결하여 팔뚝만한 전기줄을 넘겨가는 것이었다. 아차 실수를 하면 전기줄이 11만볼트송전선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도 전기줄도 집채만큼 퍼질 전기의 섬광속에서 녹아날 것이었다. 실로 아슬아슬한 순간순간들이 이어지고있었다.

나는 용감한 산줄공들이 일하는 공중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가슴이 오그라드는것 같았다.

그런데 공중에서는 노래소리까지 울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작업용망원경으로 산줄공들을 바라보았다. 위험하고 긴장한 작업인데도 노래를 부르는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이 망원경렌즈속에 들어왔다. 그들속에는 출근길에서 말동무로 사귀게 된 아버지의 웃음진 얼굴도 보이였다. 처음에 바줄을 넘기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한것은 바로 그 아버지였다. 다른 산줄공들은 새파란 청년들이었는데 그만은 늙은 몸이었다. 했지만 일손은 청년들 못지않게 켜졌다.

주인답고 책임적인 태도에 존경이 가던 아버지에게서 이번에는 통이크고 용감한 모습을 보니 더없이 믿음이 갔다.

나는 신문주필동무에게 물었다.

《저 아버지도 산줄공입니까?》

《산줄공이라니요? 허허... 우리 지배인동무입니다.》

《예?!》

나는 깜짝 놀랐다.

매일 출근길을 바꾸어 전기줄을 점검하며 다니던 아버지, 짧은 사람들도 머리가 펴 돌 공중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며 웃으며 일하는 아버지, 전기를 끄지 않고 전기줄을 늘이려는 대담한 결심을 내리고 그 기적적이고도 위험한 일을 자기가 맡아하는 아버지가 지배인이라니?

신문주필동무의 말에 의하면 지배인사업을 하는지도 20여년이나 되는데 승용차안이 사무실이고 첩탑을 일터로 여기며 정력적으로 일하기에 종업원들은 자랑삼아 《청년지배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다.

《나이는 한 오십이 돼보이는데요.》

《올해 예순이랍니다.》

《?!》

나는 또한번 놀랐다. 예순살나이에 비해서는 젊어보이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로쇠야 막을수 없지 않는가. 어에서 저런 힘과 용맹이 솟아나는 것인가. 나이 많은 지배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젊은 혈기를 두고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기적적인 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작업을 끝내고 내려온 지배인에게로 다가간 나는 처음으로 통성을 하며 악수를 하였다.

《예순살나이에 정말 용하십니다. 도대체 그런 힘이 어에서 솟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지배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나두 그전엔 산줄공이었지요. 산줄공이 늙어서야 되겠소.》 뜻깊은 말이였다.

지배인의 얼굴에는 말그대로 젊은 혈기가 어려

있었다. 이제와서는 그를 아바이라고 부른것조차 어쩐지 부끄럽게 여겨지는것이였다.

잠시후 그는 산줄공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오늘은 참 큰일을 했소. 생각해보시오. 이 11만볼트송전선을 하루동안 정전시켰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소. 우리가 능히 할수 있는 일을 못하고서야 어떻게 당앞에 떳떳할수 있겠소. 아마 두고두고 후회했을거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을 잘 마무리해보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소.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란말요. 허허허...》

이 순간의 그의 모습을 내가 어찌 잊을수 있겠

는가. 하기에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무한히 충직한 당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로당원인 지배인의 그 모습을 되새겨보곤한다.

자기 직무에 무한히 성실한 아바이, 당조직에 스스로 제기하여 무겁고도 훌륭한 과업을 받아안고 조그마한 사고도 있을세라 정해진 일과처럼 하루도 번짐없이 출근길에 놓인 전기줄을 일일이 점검해온 한 당원-바로 이런 당원들에 의하여 우리의 조국은 믿음직하게, 높이 떠받들려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우리 선생님

장기성

도 교수강습소로 소환되어가는 남은희교원과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후임으로 온 윤금숙교원간의 학급인계는 예상외로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학급문건이며 비품, 학과목인계는 한것이면 충분했다. 학급학생 36명에 대한 인계가 그렇게 오래 걸린것이였다. 낮에는 땀별속에서 학생들의 지역별생활반을 찾아가 그들의 방학간 활동을 지도하면서 인계하였다. 저녁노을이 비끼 산골짜기 길을 걸어 학교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은희는 학생들의 건강과 성격, 가정적영향, 취미와 성적등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말을 했다.

어제는 라명환이라는 한 학생에 대해 초저녁부터 자정이 훨씬 넘도록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명환이는 새것에 대한 감수성이 누구보다 빠른 애예요. 양지마을에 사는 제일 작은애말이에요.

한번은 국어에서 <나어린 배사공>을 배운 직후였어요.

부상병을 업고온 인민군대 간호원누나를 적들의 폭격속에서 매생이로 건네주는 주인공 소년의 영웅적인 행동이 명환이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 모양이에요.

명환이는 자기도 매생이를 몰아보고싶어졌어요. 그런데 마을에는 큰강이 없고 매생이도 없었어요. 그러나 명환이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친한 동무애와 함께 집에 있는 큰함지를 팔팔이에 싣고 개울로 나갔어요. 함지밭이 닿지 않을 정도까지 개울복판으로 밀고들어가 그우에 올라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함지가 기우뚱거리다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물참봉이 되고 말

았지요. 호...》

은희의 청맑은 목소리는 자랑겹게 울렸다. 그의 살갓이 흰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미소가 곱게 피어났다.

《참, 명환이게겐 손거울로 다람쥐의 눈을 새그럽히여 감쪽같이 흘치는 재간도 있어요. 호호... 그리고 그 애는 네발가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 고기는 국물만 입에 대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돌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 물으니 의학술어로 알레르기란것인데 말하자면 특수체내의 과민성반응현상이래요. 앞으로 야영을 가거나 어디 견학을 갈때 그 애 음식그릇엔 그런것이 담기지 않도록 해줘요.》

은희의 이야기는 끝이 없을듯싶었다. 손목시계의 시침이 열두시를 넘어서도 아랑곳없이 그냥했다.

그런 은희를 지친 눈빛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금숙은 나이들어 첫아들을 본 다심한 어머니라해도 제자식에 대해 저렇게 긴 이야기는 못할걸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명환이에게겐 꼭 고쳐주어야 할 점도 있어요.》

그 말을 할 때는 어딘가 꺼져드는듯한 음성이였다. 얼굴빛도 어두워졌다

(?...)

금숙은 의아한 눈길로 은희를 마주보았다.

《얼마전... 학기말시험을 앞둔 산수시간이였어요. 전날에 내준 복습문제 풀이정형을 검열하는데 어느때보다 좀 많은 문제를 주었냈어요. 명환이의 다섯번째 문제풀이 글체가 눈에 선것이였어

요. 좀 복잡한 녀석문제였는데 명환이의 글체와 비슷은 했지만 똑 같지는 않았어요. 그애에게 한 학년 우에 다니는 누나가 있는데 분명 그의 글씨였어요. 인내성이 부족한 명환이는 녀석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누나에게 밀어맡겼던거예요. 숙제를 그렇게 해오고도 태연히 앉아있는 명환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명환학생! 다섯번째문제를 누나가 대신 풀어주었지요? 정직하게 대답해봐요.>하는 소리가 막 튀어나오는것을 저는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 애를 흑판앞에 불러내어 다섯번째 문제를 풀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명환이의 목덜미는 붉어졌어요. 그 문제에 자신이 없고 또한 선생님이 모든것을 알고 있다는것을 느꼈기때문이였어요.

명환이는 들고나온 학습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흑판에 그대로 옮겨써나갔어요. 응용설명은 못했어요.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망설였어요. 폭로하여 지적한다면 자존심이 센 그 애는 모욕감을 느낄것이었어요. 그 애는 나의 눈길과 마주치기를 꺼렸어요. 나는 자극을 받았으면 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스스로 찾아와서 그릇된 학습태도에 대해서 털어놓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러니 그 애를 솔직하지 못한 학생으로 인제하는셈이군요.》

은희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점 그늘이 떠돌았다. 그러더니 잠시후 호-긴숨을 내시였다.

(난 또 명환학생에게 무슨 큰 문제거리라도 있단다구. 아홉살난 사내애에게 그쫘한거야 뭐.)

금숙에게는 은희가 명환이를 두고 것처럼 상심하는 까닭이 잘 리해되지 않았다. 인제가 너무도 자세하고 오래다보니 따분하고 지루한감이 시간을 따라 더해갔다. 혹시 신입교원이라고 나를 어리게만 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은희는 금숙의 이런 기분상태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늘중으로 읍에 나왔다가 즉시 도에 올라가야 한다는 전화독촉이 아니었다면 인제는 더 오래 계속되었을것이었다.

은희는 빠스시간이 박두해서야 학적부의 마지막 폐지를 덮어 금숙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도 무엇인가 꼭 해야 할 말을 잊고 못한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교탁밑의 서랍을 열고 파자통만한 비닐함을 꺼내었다.

《우리 반 애들은 장난이 세찬 사내아이들이어서 자주 단추를 떨키요. 이견 바늘실과 단추예요.》

은희는 함을 열어보았다. 까만색, 흰색의 실토리와 바늘썸지, 여러가지 크기와 색깔의 단추들, 새하얀 목달개천이 그안에 들어있었다.

(참 세심한 선생이로구나.) 금숙은 함을 받으며 새삼스런 눈길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금숙이 빠스시간을 다시 깨우쳐주어서야 은희는 아쉬운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입문쪽으로 다가간 은희는 아이들의 키에 맞게 낮추 달린 문손잡이를 꼭 쥐고 다시한번 교실안을 빙 둘러봤다. 떠나가는 이 시각에 다시 보는 그 손때묻은 모든 비품들과 구석구석이 참으로 소중한것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간간히 교실안을 훑어본 은희는 마지막으로 잡고선 문손잡이에 눈길을 박은채 미안쩍은 미소로 말했다.

《교실을 잘 꾸리지 못하고 인제해서 안됐어요. 여기에 관심을 더 돌려야 했을걸...》

《별소릴.》

금숙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인가 불만스러운감이 없지 않았다.

있어야 할 비품은 다 있고 벽과 바닥도 깨끗하다. 인민반 3학년 년령의 장난 심한 남자애들의 교실이고 볼 때 별로 나무랄것이 없다. 그렇다고 특이하게 눈에 띄우는것도 없다. 그저 평범한 교실이다.

(흑판우에 장식이라도 해달고 화분받치개를 진한 색깔로만 해놓아도 지금보다는 달라보일걸, 교실은 그 학급담임교원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금숙은 며칠사이 새 학급담임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교실을 특색있게 잘 꾸려놓으리라 마음다졌다.

교실을 나서 복도를 걸으면서 은희는 하소하듯 나직이 말했다.

《금숙선생, 전 정말 이 학교에 와서 5년간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별로 해놓은 일이 없어요. 생활이 교차되는 지금 뒤를 돌아보니 그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것만 같은 아쉬움과 후회가 들어요.》

나직한 은희의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금숙의 가슴에 야릇한 파문을 일으켰다.

(은희선생은 전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 가는길인데 왜 저렇게 마음 심란해할까?)

금숙은 은희와 속마음을 헤아려보았다. 교원의

임무대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위해주어도 내가 해놓은 일이 이것이라고 떳떳이 자랑할만한것이 없는 여기에 은희의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않을까.

(후회를 안고 떠나는 사람...후회없는 삶을!)

금숙은 먼 후날을 돌이켜볼때 후회가 없도록 자신을 살리라고 속다짐했다.

밖은 무더웠다. 8월의 태양은 불볕을 쏟아붓고 있었다. 숨쉬기 힘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앞뒤좌우 어다라없이 층층이 뻗어간 무성한 산발들은 더위에 삶아진듯 후줄근 해있었다.

금숙이 교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 은희는 더위에 아랑곳없이 운동장에 나가있었다.

은희는 총총히 세워진 크고작은 여러형태의 체육기재들을 따라걸으며 하나하나 훑어보고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것이 있으면 돌쪄각을 주어다 췌기질을 했다.

은희의 걸음은 운동장 한끝의 제일 작은 평행봉앞에서 멈춰서 움직일줄 몰랐다. 키가 낮고 짐봉이 가는데 비해 두봉사이에는 어지간히 넓은 류다른 규격의 기재였다. 그것은 한해전 은희가 새로 전학해온 작은 키에 어깨폭이 남달리 넓은 김수현학생을 위해 80여리 먼 광산에 찾아가 특별히 만들어온 평행봉이었다. 그때 은희는 학교쪽으로 오는 차편이 없게 되자 그 무거운것을 머리에 이고 왔다.

평행봉에 깃든 은희의 수고를 다른 교원에게서 들어 알고있는 금숙은 지금 은희가 느끼는 감회에 리해가 갔다.

차시간을 독촉하려 금숙이 다가가자 은희는 기다렸던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금숙선생, 이 평행봉말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될때 한 10센치정도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설치할 때는 수현학생의 키에 좀 높을사했는데 그 애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이제는 좀 낮은 감이나요. 그럴것을 예견해서 이 평행봉밑을 30센치정도 더 깊이 묻었으니 파고 올리면 돼요. 내가 이미 해놔야 했을걸...》

《알겠어요.》

대답하는 금숙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은희의 교육자적인 책임감이 느껴져서였다.

그러나 오래 그러고있을 시간이 없었다.

금숙은 은희를 재촉했다.

《은희선생님, 어서 짐을 가지고 정류소로 나가자요. 저도 수속을 마저 하려 군에 나갔다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함께 나가게 됐군요... 그런데 금숙선생. 이렇게 예정보다 앞당겨 떠나다보니 학급애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가는것이 마음에 걸려요.》

은희의 나직한 목소리는 가볍게 떨리었다. 그 순간 은희의 살눈섭 긴 눈가에는 서러움에 가까운 아련한 빛이 흘렀다.

《아침에 분단위원장이랑 이 마을 애들을 만나지 않았나요. 다른 애들에게는 제가 대신해서 잘 이야기하겠어요.》

《부탁해요.》

광산에서 읍으로 가는 도중에 멈춰서는 빠스는 얼마간 늦어서야 정류소에 와닿았다. 금숙은 은희의 큰 밤색 트렁크를 들고 먼저 빠스에 올랐다.

은희는 정류소에 나온 교원들과 학부형들의 손과 손을 뜨겁게 잡으며 울먹울먹한 소리로 작별인사를 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초점없이 사방으로 두리번거렸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것이였다.

금숙은 그가 담임했던 학급애들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것을 직감했다. 은희는 자기가 오늘 떠나는것을 알고있는 소재지마을 애들만이라도 정류소에 나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것이였다.

《자, 빨리 오르시오. 늦잡다가는 기차시간전에 읍에 닿을것 같지 못하요.》

빠스운전수가 독촉했다.

《웁수다.》

차안에서 누군가가 호응했다. 기차시간 30분전에 읍에 도착하게 되어있는 빠스인데 오는 도중에 이미 얼마간 늦다보니 시간의 긴박감을 느끼는것이였다.

은희는 초조한 눈길로 다시금 주위를 휘둘러보았다.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눈에 알리게 허전해하는 은희를 보는 금숙의 마음은 언짢아졌다.

(그 철부지들이 그런 례의를 알게 뭐람. 지금쪼 더위를 피해 개울물에 들어앉았겠는데.)

은희가 오르자마자 빠스는 떠났다.

《잘 가요.》

《안녕히들 계세요.-》

애뜻한 석별의 정이 찌르르 가슴들을 울린다.

이어 차는 급인돌이를 돌아섰다.

은희는 자리를 찾아 앉을념 않고 문결에 그런 듯이 서있었다. 차체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본다.

손을 내밀던 담쑥 잡힐듯싶은 벼랑턱의 노오란 나리꽃, 진보라꽃, 도라지꽃, 차창 바투 다가섰다 물러섰다하는 산발들, 은모래 소말거리고 버들치 때 한가로이 헤엄치는 맑디맑은 시내물, 히끗히 곳 차창을 스치는 길가의 키높은 봇나무며 아름드리소나무... 추억이 서린 그 모든것을 망막에 그대로 새겨넣으려는듯 은희는 보고 또 본다.

빠스가 두번째 굽인돌이를 돌아서였다.

갑자기 빠스안이 술렁거렸다. 방금 옆골짜기길에서 나는듯이 달려내려온 아홉살쫘났을 사내애들 네댓이 빠스를 세우라고 손을 든것이였다.

《썩 비켜라.》

운전수가 내리운 유리문밖으로 아이들을 내다보며 꺾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빠스에 속력을 가했다. 필경 빠스뒤꼬리를 잡고 따르면서 좋아할 장난군애들을 떨궈버릴 심산에서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두 주먹을 부르쥐고 빠스를 따랐다.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빠스뒤로 흙먼지가 타래쳐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벗어진 모자로 얼굴을 문대며 승벽내기를 하듯 달려왔다. 팔을 흔들며 무엇이랴 신히 했다.

《아, 은희선생님, 그 애들이예요! 샘꿀애들.》

먼저 애들을 알아본 금숙이 소리쳤다.

《아니, 어디 어디?》

그때까지 먼 산발에 눈을 팔며 서있던 은희는 소스라쳐 놀라듯 물으며 차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 수국이네반 애들!》

은희의 상념에 젖어있던 얼굴이 확 밝아졌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반가움의 눈물이 핑 어렸다.

은희는 급히 빠스문손잡이를 잡았다.

《안돼요. 위험해요.》

눈치빠른 차장처녀가 은희의 의도를 앞질러 소리쳤다.

은희는 문유리에 볼을 꼭대고 뒤쪽으로 눈길을 쏘았다.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러자 쯤처럼 아이들과 눈을 맞출수 없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니임-》

겨끔내기로 청 다해 부르짖는 애들의 목소리가

가슴아리게 들려온다.

《아, 어찌나-》

은희는 안타까워 어쩔줄을 몰라한다.

은희는 빠스를 잠시 세워주었으면 하는 표정으로 운전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운전수는 은희의 심정을 아는듯 않고 앞만 보며 차를 몰았다. 기차시간전에 역에 닿을 것만을 생각하는듯 싶었다.

《저 애들이 떠나가는 제 선생을 찾는구만.》

《어디루 간다우?》

《저런 저-쯔쯔.》

빠스에 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빠스는 속력을 늦추기 시작했다. 운전수가 변속단수를 낮추며 은희를 돌아보았다. 무관심한듯 싶던 그도 후사경으로 애들의 행동을 지켜본것이였다. 그러나 멈춰세울 용단까지는 내리지 못했다.

은희는 의자사이에 놓인 손잡들에 발부리를 채우며 넘어지듯 뒤쪽으로 다가갔다.

속력을 죽인 빠스와 아이들의 간격이 가까와졌다. 드디어 은희와 아이들의 시선이 두터운 유리창을 뚫고 맞부딪쳤다.

《선생님!》

아이들의 눈에 불꽃같은것이 인다.

《건한이, 경남아-》

은희는 목메여 아이들의 정다운 이름을 부른다.

《잘들 있어요.》

은희는 손을 흔들어보였다.

《선생니임-》

《이젠 그만 돌아들 가요.》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따라왔다.

《에그, 애들이 선생님과 얼마나 정이 들었으며 저럴가!》

《아니 저 애들은 또 뭐요?》

맨앞의자에 앉은 사람이 놀란듯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못시선들이 그쪽으로 쏠렸다. 저 앞쪽개울건서 마을 아이들이 옷을 입은채로 물속에 침뿜침뿜 뛰어들어 길쪽으로 향해오고있었다. 빠스가 지나친 옷쪽에 다리가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리로 건널만한 시간적여유가 없는것이였다.

그 애들이 이 빠스를 앞지르려 한다는것이 누구에게나 알렸다.

개울폭은 퍼그나 넓었다. 애들은 허리치는 물

을 헤엄치듯 두팔로 헤가르며 건너왔다. 어찌나 빨리 건느는지 뒤에 허연 물고랑이 진다.

한애가 팔을 허우적거리더니 핑그르 돌며 물속에 넘어졌다. 물밑 이끼돌을 밟은 모양이었다. 옆에서 건너오던 애가 황급히 다가가 부축여준다. 정수리까지 물에 젖은 그 애는 두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푸푸거린다. 그러면서도 다른 애들에게 뒤떨어질세라 앞으로 내달린다.

《양지동애들이예요.》

금숙은 그때까지 뒤따르는 애들에게만 정신을 팔고있는 은희를 깨우쳐주었다.

개울을 건너온 애들이 경충 방축을 뛰어넘어 길위에 올라설 때 뺄스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다시 문가로 나와선 은희는 젖은 손수건으로 빨갛게 된 눈굽을 씻고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있어요.》

은희는 웃어보이려 했으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샘솟았다.

《선생님! 선생님-》 아이들은 합창하듯 소리친다.

《공부 잘해요. 새로 온 선생님 말씀 잘 듣구.》

뺄스가 아이들을 지나친다.

《잘 있어. 잘들...》

은희는 그만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은희선생, 그만해요.》

금숙은 은희곁으로 다가가 달래었다.

금숙은 자신의 눈굽도 젖어움을 어쩔수 없었다.

뺄스는 속력을 높이기 시작했다.

은희와 아이들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은희는 다시 뒤쪽으로 옮겨가 뒤창에 얼굴을 대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따라왔다. 샘골, 양지동마을 아이들이 합쳐져 스무명도 넘었다. 그들속에는 리소재마을 아이들이 섞여있었다. 오늘 은희가 떠난다는것을 그들이 달려와 알린것이였다.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팔다리를 놀린다. 숨이 가쁜듯 입을 다물지 못한다. 땀인지 눈물인지 붉은 량볼에 줄기진다. 작은 한애가 무엇에 걸쳐였는지 앞으로 툭 꼬꾸라졌다. 맥이 진했는지도 모른다.

《앗! 명환이.》

은희는 두손을 모아 가슴우에 대며 비명같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희고 자름한 웃이로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더는 그대로 볼수 없는듯 눈을 꼭 감았다.

《운전수동지! 차를 빨리빨리 몰아줘요.》

은희는 목안이 꼭 잠겨드는 음성으로 운전수에게 부탁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가슴들을 울렸다.

운전수가 선망어린 눈길로 은희를 돌아보았다. 다음 후사경을 통해 애들을 봤다. 타래치는 흙먼지에 아랑곳없이 필사의 힘으로 선생님을 따라오는 애들의 모습이 변속대를 켜 운전수의 손을 굳어지게 하는듯싶었다.

《우리 선생님을 실고가지 말아요.》하는 애원의 목소리가 엔진소리를 누르며 울려오는것 같다.

그때 앞 굽인돌이에서 불쑥 또 한패의 아이들이 나타났다. 소재지마을에 사는 분단위원장 금산이가 앞장에 섰다.

다른 애들에 비해 목 하나는 더 커보이는 한애의 손에는 룡구뿔 크기만한 종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그 애는 행동의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정히 안고 달려온다.

아이들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길 한복판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뺄스와 그 아이들과의 간격이 좁아져갔다.

경적을 울렸으나 애들은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다. 반짝이는 그 눈길들은 위험한 차바퀴에 로가 아니라 뺄스시창으로 쏠려 해답뿔었다.

은희선생을 찾는것이였다.

《아무래도 차를 세워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나게 해야겠군.》

누군가 말을 하자 《웁소.》 《그래야지.》하는 말들이 연방 터져나왔다.

운전수의 심정도 그랬음인지 천천히 뺄스가 멈춰섰다.

와그그 아이들이 문쪽으로 몰렸다. 뺄스뒤를 다쫓아오던 아이들도 엎어지듯 달려들어 한동아리로 뭉쳐졌다. 애들은 밀고 닥치며 제가꿈 문결으로 다가서려고 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선지 뺄스문이 확 열렸다.

《선생님!》

가쁜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이 부른다.

총알같은 눈길들이 뺄스안에 집중된다.

은희가 내려섰다.

《선생님!》

《아, 선생님.》

울먹임과 환희에 찬 애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어느새 앞으로 새어나왔는지 명환이가 은희의
웃자락에 매여달린다.

《선생님, 왜 갑니까?》

그는 울먹울먹하면서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다른 애에게 말리웠다.

《선생님, 이거 물엿두입니다.》

키 큰 애가 정히 안고온 종이꾸레미를 내민다.

《선생님, 우리 집 채빛토끼가 새길 열두마리나
낳았어요.》

《군대 나간 우리 누나가 휴가왔는데 오늘 선생
님한테 간댔어요.》

《선생님, 꼭 가야 하나요?》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아이들은 간절한 소리로 웨쳤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학교로 갑시다. 선생님.》

아이들은 저마끔 은희의 손을 잡아끈다.

울고 웃으며 선생과 아이들이 하나로 설레인
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금숙의 눈에는 맑은 이슬
이 솟아 흘렀다.

(아 친어머니와 헤어지는 아이들인들 저보다
더 할수 있으랴!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열정
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위해주었으면 저렇듯 따
르랴! 저렇게 따르는 교원의 한마디한마디는 그
대로 어린 가슴들을 공명시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으로 부를것이다.)

왜서인지 금숙에게는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학
급인계의 전과정이 다시금 생생이 되살아올랐다.

그때는 레사롭게 들어넘겼던 은희의 그 모든 말
마디들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이제와서는 새롭게
깊은 뜻으로 되새겨졌다. 은희가 해놓은 일을 그
저 평범한것으로, 그리고 불만족하게 느끼기도
하던 자신이 돌이켜지며 얼굴이 붉어졌다.

《...전 정말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해놓은 일이
없어요.》하던 은희의 말이 되생각키우자 금숙은
저도모르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아니예요. 은희선생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금숙은 은희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전 오늘 교원이 해놓은 일은 눈에 띄우는것만
으로 평가할수 없다는것을 느꼈어요. 조국의 미
래를 위해 바친 교원의 성실한 노력과 진정어린
고심은 눈에 띄우지는 않아도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가슴속에 새겨져 영원하다는것을 알았어요.

교육자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그저 개념적
으로가 아니라 생활적으로 감수했어요. 아이들은
은희선생을 <우리 선생님!>이라 목놓아 불렀어
요. 그 한마디 부름말을 그대로 선생이 해온 일
에 대한 편견없는 가장 정확한 총화이며 평가라
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

금숙은 의미깊게 되뇌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은희를 둘러싸고 떨어질줄 몰
랐다. 좀처럼 선생님을 놓아보낼것 같지 않다. 끝
내 떨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이젠 모두 돌아들가요. 손님들이 차 떠나길
기다려요.》

은희는 배스를 지체시킨것이 미안하여 이렇게
설레는 아이들을 달래며 운전수쪽을 바라보았다.

은희가 배스에 오를 기미를 보이자 애들 뒤전
에 우두커니 서서 흐린 얼굴로 있던 명환이가 와
락 앞으로 달려나왔다.

《선생님, 전-》

목이 꺾 막혀 몸을 부르르 떨던 그가 울음을
토하듯 소리쳤다.

《전 다시 거짓말 안하겠어요. 숙제도 내 힘으
로 할테니... 정말 가지 말아요.》

그 다음 목소리는 가려들을수 없다.

금숙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들린다. 눈곱이
더워오르고 가슴만 세차게 들먹인다.

밖에 나와섰던 운전수는 슬며시 얼굴을 돌리더
니 차에 무슨 고장이라도 생긴것처럼 기관실덮개
를 열어젖히고 느린 동작으로 이것저것 만지었다.

그러는 그의 눈을 기관부에게로 아니라 아이들
속의 은희에게로 향해져있었다.

배스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기차시간과 맞물려 달리는 배스에는 갈길 굽한
여러 사람들이 타고있었다. 배스가 체시간에 역
에 닿지 못해 열차를 놓치면 다음 차시간까지 2
시간을 지루히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배스가 떠나지 않는데 대해 탓하지 않았다...

잊을수 없는 모습

김석주

사람이 살아가느라 하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하여 하루나 또는 며칠씩 들리게 되는 고장이 얼마나 많으며 또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더우기 글쓰는 사람들이란 좋다는 고장이라면 그 어디에선 찾아가지 않는곳이 없다. 그만큼 만나본 주인공들도 많은것이다.

만나고 헤어지고 보고 듣고 느낀것이 아무리 감동적인것이라도 개중에는 세월이 가면 더러 잊혀지기도 하고 아리송해지기도 한다. 오래전에 잊혀졌던것이 문득 기억의 먼 구석에서 불꽃처럼 반짝뛰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처럼 생각나지 않던것이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연이나 모습이 또한 있는것이다. 그것이 비록 세상을 놀래운 영웅적이야기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모습이 아니라도...

벌써 여러해전 일이다.

나는 서부지구 어느 탄광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갱기사와 함께 굴진과 채탄막장들은 물론 갱안에 있는 현대적기계설비며 삽자루 하나에 이르기까지 불만것은 다 보았다.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막장에서 사갱까지 나온 우리들은 갱목에 걸터앉아 담배 한대씩 붙여물었다. 이때 나는 얼마간 떨어진곳에 경사를 지으며 뻗어내린 또 하나의 갱을 보았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곳이었다. 그리로는 지하수가 제법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려가는것이였다.

《기사동무, 저건 무슨 굴입니까?》하고 별로 관심 없이 묻는 말에

《예, 저 굴엔 양수장이 있지요.》하고 지나가는 말로 선선히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별로 불만것이 못된다는 어조가 풍기였다.

《양수장이란말이지요? 거기 가 봅시다.》

나는 어쩐지 호기심이 부쩍 동해서 말했다.

《거기루요? 꽤 먼데... 가봐야 그제 보통 양수장이나 다름없지요.》

내가 다시 요구하자 기사동무는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일어섰다. 정말 그의 말대로 꽤 멀고 깊었다. 작은 시내를 이루고 흘러내리는 석수를 따라 한참 걸어서야 양수장에 이르렀다. 땅 위에서 흔히 보는 양수장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다른 점이라면 땅과 지하라는 차이에서 오는 이

러저러한 외부적환경일뿐 물을 푸는 설비며 양수공이 하는 일도 비슷하였다.

우리를 맞아준 양수공은 신내땀은 넘었을것 같다. 우리가 나타난것이 뜻밖인듯 매우 반가와하면서도 한편 의아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점열이라도 있어서 일부러 들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여길 어떻게 다...》

평양에서 취재온 손님과 같이 들렀다는 기사동무의 말에 그는 매우 딱해하였다.

《여기야 뭐 글이 될만한것이 있겠습니까. 글을 쓰자면 굴진이나 채탄에 가야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요.》

양수장과 양수기를 돌아보며 그의 소박한 말과 행동은 마치 글을 쓸만한 대상이 못되는데 멀리 걸어서 찾아온것을 몹시 미안해하는 몸가짐이었다.

알고보니 그는 30년동안 이 양수장을 지키며 양수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온 오랜 당원이였다.

양수기와 함께 30년!

실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그 어느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귀천을 가리거나 대소경중을 따질것이 아니라 자기 맡은 직무를 영예롭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실행하며 오직 한마음한뜻으로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합니다.》

땅속 깊이에 뻗어간 수많은 수평갱도들에서 쉽게 흘러모이는 석수, 퍼내고 또 퍼내어도 고이는 물을 순간도 쉬지 않고 퍼내는 양수기, 동발꽃이 핀 습기찬 천정에 매달린 하나의 전등, 한 마디로 땅속 깊은곳 별로 눈에 띄는것이란 없는 외진 초소였다.

물이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 마련이고 깊은곳에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니 땅속에서 탄층을 따라 수십갈래로 뻗어간 그 모든 수평갱들에서 석수와 지하수가 흘러내리며 모여드는 양수장도 땅속에서 가장 깊고 먼곳이다. 갱속에서도 외진 벽지라고 할수 있다.

그는 양수장이라는 이 초소를 맡은 그날부터

귀밀머리가 되도록 하나의 초소를 변함없이 지키고있는것이다. 이 초소를 지키며 입당의 영예를 지녔고 이 초소와 함께 그날에 다진 맹세를 굳건히 지켜가는것이다.

심부막장의 양수기운전공!

세상에 직업인들 얼마나 많으며 일터는 또 얼마나 많은가. 만사람이 우러러보는 높은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며 훨훨 철탑과 철탑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쇠마치로 단쇠를 씨원스럽게 두드려대거나 갖가지 열매를 가꾸어 주렁지우는 일... 그 모두 보람찬 일이며 또 눈에 크게 띄우는 일이다. 그러나 그 누구의 눈에도 띄우지 않는 땅속에서도 가장 깊은곳에 초소를 두고, 한생을 바쳐 해놓은 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량적높이로도 재일수 없는 양수기운전공을 두고 어찌 생각이 깊지 않을수 있으랴.

여기서는 갱속이면 의례히 있게 되는 요란한 발파소리도 들끓는 기계들의 동음도 들리지 않고 휴식의 한때 떠들썩한 웃음소리도 없고 다만 쉽없이 돌아가는 전동기소리만 있을뿐이다.

멀리 떨어진데도 있겠지만 대체로 하루종일 가야 양수장에 들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한 시간에 교대운전공이 어김없이 나타날뿐이다.

탄광이라 하면 탄광일군들의 모든 신경이 굴진이나 채탄막장에 쏠려있고 이따금 한달에 두어번 들릴뿐 그 누구의 발길도 좀처럼 미치지 않는다. 작가나 기자들이 취재하러 들린적은 물론 없고 학교나 농장들에서 견학오는 사람들도 양수장에는 들린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석탄하면 굴진곡이나 채탄공을 생각하며 좀 더 갱내막을 아는 사람들이면 벨트콘베아운전공이나 동발공을 생각하는 정도이다. 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했으며 땅속 제일 깊은곳에 말없이 석탄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 한 로동당원이 초소를 지켜 서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양수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가 것처럼 놀라던것이 비로소 리해되었다. 여기서 그는 다정한 이야기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이 담배도 혼자 태우고 식사도 혼자 한다.

교대가 끝난후 나는 작업총화에 참가해보았다. 굴진이나 채탄소대 같은데서는 하루 책임량을 넘쳐낸 수자를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총화짓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뒤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는 양수기운전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따금 중대장의 작업일지에서 빠지는 일도 있

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석탄생산과 관련되는 그 모든 수자를 한마디로 농철세라 귀담아 들으며 조용히 기쁨에 잠기는것이였다.

30년! 그가 하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땅속에서 퍼올린 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곳에 피었다면 아마 큰 호수나 작은 바다를 이루었을것이다. 또 그것이 그릇에만 담을수 있는 액체가 아니라 높이 쌓을수 있는 고체였다면 아마 하나의 큰 산을 이루었을것이다.

누구도 보지 않는 외진 초소에서 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 일생을 바치는 노력이 석탄량으로도 수자로 표시되는 기록으로도 남지 않으나 묵묵히 석탄생산을 만들어주는 사람, 미더운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한 당원의 성실성에 대하여, 높은 책임성에 대하여, 말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고 당을 받들어 한생을 바쳐가는 뜨거운 충성심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마트면 탄광을 찾아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양수장을 스쳐지날번하였다. 그렇다면 쉽게 만날수 없는 성실한 한 당원의 모습은 못보고 지났을것이다...

벌써 어려해가 지났다.

나는 이 짧은 글을 쓰는 순간에도 저 멀리 서부지구의 깊고깊은 땅속에서 묵묵히 양수기를 돌리고있을 그 모습을 그려보며 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있을수 없는 모습!

있을수 없다는것은 내가 그에게서 받은 인상이나 충격이 그만큼 깊고 예리하고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아마 오래도록 인상에 남는다는것은,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산다는것은 영웅적 사실이나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창조한다고 해서만이 아닌것 같다.

기억하는 삶, 누구나 그렇게 참답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산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나이라고 생각한다.

수십 수백 가닥의 지하수들이 양수장에서 모여들듯이 존경과 사랑으로 하여 나의 마음은 그에게로 달리고있다.

여러해 세월이 흘렀어도 땅속 가장 멀고 깊은 곳에 일터를 두고 명예도 보수도 그 어떤 평가도 바람이 없이 성실한 삶을 바쳐가는 깨끗한 충성심으로 조국을 받드는 아름다운 한 당원의 모습을 이처럼 못잊어 생각하게 되며 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사무치리라.

단편소설의 전투성과 참신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편소설의 생명은 당보의 사실과 같이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제때에 신속정확히 반영함으로써 그 전투적호소성과 참신성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은 어느 주제보다도 현실주제에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불타는 혁명정신으로 로력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창조적정열로 들끓고 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벅찬 현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문예작품이 다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단편소설에서는 이 요구가 더욱 첨예하게 제기된다.

단편소설은 사회주의 현실을 그저 소개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것을 당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한 견지에서 예리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단편소설은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혁명투쟁의 매 단계에서 동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단편소설이 당보의 사실처럼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하며 그 전투적호소성과 참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주의와 도식주의경향을 철저히 극복청산해야 한다.

현실을 미화분식하거나 교양자적목적이 없이 무의미한 생활을 끌어들이고 정서적색갈을 흐리게하는것은 현시기 자연주의의 주되는 표현수법이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청산하

지 않고서는 우리 문학의 당성원칙을 견지할수 없고 주체의 문학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자연주의와 함께 도식주의도 우리 문학발전을 저해하는 암으로 된다.

인물관계와 사건설정에서 일하고 있는 낡은 틀과 류형성은 현시기 도식주의의 주되는 표현수법이다.

도식주의경향을 극복해야 생활현실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반영할수 있다.

단편소설창작에서 자연주의와 도식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형상과 설정의 모든 측면에서 당성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독창성과 비반복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오늘 우리 문학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잡지 《조선문학》편집부에서는 이때까지 주로 단편소설의 묘사수준을 높이고 흥미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지상토론을 많이 벌림으로써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훨씬 높이고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론의를 계속 끌고나가면서 특히 단편소설창작에서 자연주의와 도식주의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성원칙을 견지하며 종자와 사상, 성격과 생활, 형상수단과 수업, 기교 등 모든 면에서 참신성과 비반복성, 특색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활발한 대론쟁을 벌리려 한다.

작가들과 론설원들, 문학전문가들과 독자들이 이 대론쟁에 많이 참가함으로써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적질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훨씬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해주기를 바란다.

편집부

지상토론

작품형상의 독창성과 초상묘사

리유근

초상묘사는 심리묘사, 행동묘사와 함께 인간성격창조의 중요한 수단이다.

초상묘사에 대한 높은 요구성은 곧 성격의 개성화와 전형화에 대한 요구이며 나아가서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에 관한 요구이다.

초상묘사는 인물의 생김새와 몸차림 등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에 대한 묘사이다. 특히 얼굴과 눈표정에 대한 묘사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는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은 물론, 복잡한 심리의 움직임도 섬세하게 나타낸다.

그러므로 초상묘사는 단순히 인물들의 외적표상뿐 아니라 행동, 성격, 취미, 직업과 나이, 심리적특성까지도 형상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형상수단으로 된다.

잘된 초상묘사는 성격의 내면세계까지 여실히 드러내보이면서 인물들이 이야기줄거리에 극적으로 얹히게 하고 뚜렷한 형상의 묘를 가지고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이바지한다.

초상묘사가 성격과 내면세계를 속속들이 비쳐주는 거울로 되게 하자면 인물의 외모나 생김새를 지지쫄쫄이 다 그릴것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만 고유한 특징들을 옹게 찾아내어 두드러지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용이 깊지 못하게 이것저것 다치는것보다는 한측면이라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느 한 인물이나 사건이라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깊이있는 형상을 창조해야 형상의 집중화를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 이것저것 라렬한다면 작품이 복잡하고 산만하게 될뿐 내용에서 감동을 줄수 없을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생활의 본질이 드러나는 세부를 정확히 골라서 인상깊게 묘사하는것은 생활을 구체적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생활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린다것은 묘사대상에 대한 결이 아니라 그 안속을,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인식할수 있도록 그린다것을 의미한다. 즉 대상을 예리하게 관찰한 기초우에서 얻어진 본질적내용을 아무런 꾸밈도 보렘도 없이 본색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는것이다.

그러자면 생활을 단면화, 세부화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날수 있는 특징적인 세부를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그리는것은 그 인물의 성격적특성을 명백히 할수 있게 하며 그가 가지고있는 내면적속성을 생동하게 펼쳐보일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이다.

단편소설들인 《떠나는 사람》(백현우, 《조선문학》, 1978년 3호), 《영원한 흐름》(로종익, 《조선문학》, 1978년 8호), 《가고싶은곳》(오창수, 《조선문학》, 1978년 8호), 《마지막 버럭》(한웅빈, 《조선문학》, 1978년 10호) 등은 초상묘사의 특성을 잘 살려 참신하고 개성화된 인간성격을 창조한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은 작중인물인 창무의

시점을 통하여 깊은 산속에서도 누가 보건말건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인된 자각, 사람들에게 대한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을 가지고 번영하는 조국의 앞날을 충성으로 수놓아가는 처녀준의-진옥의 매혹적인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진옥의 형상이 이처럼 큰 감화력을 가지고 안겨오는것은 종자가 독특하고 참신한 맛에도 있지만 묘사가 새롭고 형상이 진실한데 많이 기인한다. 그것은 진옥의 초상묘사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특징적인 세부를 잘 가려내어 시종일관 근기있게 추구해들어감으로써 성격의 전모를 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약간 창백해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가름한 얼굴에 안성맞춤하게 자리잡은 오뚝한 코, 꺾 지력있어보이는 생기도는 눈이며 이악한 성미를 말해주는듯 꼭 다물린 입... 달빛의 조화때문에 처녀의 생김생김은 아름답게 부각됐고 한창나이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온몸의 탄력이 그 무슨 훈향처럼 풍기는것이였다.》

이는 창무가 처음 진옥을 만났을때 느낀 인상을 그린 초상묘사이다.

얼굴전체의 료곽을 먼저 제시하고 다시 눈이며 코, 입과 같은 세부들을 력점을 찍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들어간 이러한 시도는 인물에 대한 보다 선명한 표상을 갖게 하며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내면세계의 깊이를 충분히 헤아려볼수 있게 한다.

약간 창백해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가름한 얼굴이라든가 오뚝한 코, 꺾 지력있어보이는 생기 도는 눈, 꼭 다물린 입 등과 같은 세부화된 표현들은 진옥의 우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리지적이고 이악한 성미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생동한 초상묘사이다.

특히 옷을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이를 특징적인 세부로 골라잡고 사건의 엷음새와 조화롭게 맞물려 반복제시한것은 작품의 종자와 성격의 매력을 한층 더 북돋아주었다.

《하얀 이를 내보이며》와 《박속같은 이를 내보이며》로 표현된 진옥의 옷은 모양과 《추위때문에 퍼런 입술사이로 내다보이는 흰 이》의 대조적 표현들이 그 실례이다. 참으로 인상적인 이러한 표정묘사들은 진옥의 그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형상적으로 잘 드러내도록 암시해주고있다.

단편소설 《마지막 버럭》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갱내작업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버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지난날과 대비하여 감명깊게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도 역시 덕철갱장이 옷을 때마다 입만 찡긋대는 버릇이 왜 생겼는가 하는 특징적인 세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그것이 일제의 억압밑에서 간데라

를 입에 물고 오소리굴을 드나들 때 감독놈이 그것을 고베처럼 나무채는 바람에 이발이 부러져서 생긴 흠집때문이라는것을 밝힘으로써 이발에 대한 세부 하나를 가지고서도 지난날과 오늘에 대한 생동한 대비를 보여주고 오늘의 행복에 대한 그 값높은 대가를 어떻게 감수하여야 하겠는가하는 심각한 생활적물음에 대하여 옳은 해답을 주고있다.

이러한 시도는 《영원한 흐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떠나는 사람》의 경우 진옥의 초상은 창무의 시점을 통하여 제시되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직접적서술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가의 설명과 의도가 첨부되어 특징을 살리었다.

《지배인 림성백은 키가 좀 작고 몸이 뚱뚱한 편이나 매우 다부져보였다. 머리에 흰서리가 덮이게 되자 상고머리를 하여 외모로나마 패기를 돋구어보려 했으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진 둥굴넙적한 얼굴에는 건잡을수 없게 주름살이 잡혔다.》

여기서 《상고머리를 하여 외모로나마 패기를 돋구어보려 했으나》등과 《건잡을수 없게 주름살이 잡혔다.》와 같은 표현들이 작가의 서술적의도와 시각적으로 안겨오는 외부적특징을 잘 결합시켜 성격의 개성을 살린 묘사수법이다.

이는 작품에 설정된 인간관계와 풍자해명의 특성에 따라 초상묘사도 다양하게 주어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전자가 주인공 창무의 시점에서 성격이 우러나 오게끔 인간관계를 맺어줬다면 후자인 경우에는 지배인 자신이 직접 긍정적주인공이 되어 작품에 지워진 형상과제를 이끌어나가도록 되어있다. 여기서는 초상묘사를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만 성격의 대를 세우고 지워진 형상과제를 보다 용이하게 풀어나갈수 있었다.

만약 종자해명의 견지로 보아 지배인의 초상묘사를 박준호과장이나 다른 인물의 시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졌더라면 소설이 지금처럼 인간관계가 짚이지 못했을것이며 지배인의 행동성격이 그처럼 감동적인것으로 되지 못했을것이다.

특히 지배인의 얼굴에서 유묘하게 나타나는 버덩이와 같은 인상적인 세부들, 생활의 특징적인 단면들을 잘 선택하여 초상묘사의 예술적효과를 노린 일련의 시도들은 모가 나고 특색이 있는 산 인간의 전형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작품은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에는 영원히 로쇠현상이 있을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를 의의있는 종자로 심고 훌륭히 꽃피울수 있었다.

초상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황에 따라 변하는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의 섬세한 움직임들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말이 사상의 표현이라면 행동도 사상의 표현이라고 가르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말없는 가운데서 취하는 하나의 행동이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때도 있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같은 정황에서도 사람마다 행동이 같지 않으며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없다.

부단히 변화되는 정황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변동과 그 반응인 행동과 표정들을 련관적으로 잘 그려야 성격의 단조성, 평면성을 피할수 있고 동일한 농도에 의한 묘사에서 오는 지루감을 극복할수 있다.

우의 작품들은 역시 이 측면에서도 좋은 긍정적시사를 보여주었다.

《떠나는 사람》에서 진옥이가 혼자 노릇하는 연습을 하는 강변의 달밤장면과 굴길공사장에서 소대장과의 대화장면, 약초밭을 인계하러 갔다가 꿈을 만나는 장면, 와새촌늪은이에게 주사를 놓아주는 일을 잊어버리고 간것을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는 비오는 저녁장면같은것을 들어서 그렇게 말할수 있다.

첫정황에서 진옥의 표정은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탄력이 부드러운 훈향을 풍기는 진취적인 모습으로, 둘째정황에서는 웅골차고 다기지며 뱀짙맛을 느끼게 하는 원칙적인 인간으로, 셋째와 끝의 정황은 당돌하고 용감하며 아름다움과 성실성을 함께 체현한 성격으로 안겨온다. 이는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인물의 표정과 동작을 감각적으로 예리하게 조화시켜 그린때문이다.

감정의 기록을 조성하고 성격의 립체미를 돋구는데로 형상을 이끌어간다는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념두에 두고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진정으로 값있고 보람있게 산다는것이 그 어느 곳, 어떤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기에 있다는 작품의 종자가 진옥의 일관한 형상속에 그렇듯 깊이있게 체현되어 빛을 뿌리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남이 창조한 성과의 그늘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자리지킴이나 하려는 준호과장과 결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젊음에 넘쳐 일하는 림성백 지배인과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영원한 흐름》의 정황들은 좀 색다른 특성을 보이고있다. 그것은 갈등이 예리하고 엄혹하다 할만치 심각한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므로 정황도 심각하고 긴박감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역시 성격들도 날카롭게 주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작품에서는 이런 심각한 정황, 날카로운 성격들을 구체적인 초상묘사 특히 눈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내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얼굴에서도 눈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민감하게 드러내보이

며 깊은 속생각까지도 예리하게 나타낸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눈은 때로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미묘한 심리도 뜻깊게 나타낼수 있다.

《영원한 흐름》에서는 지배인의 급격한 내면세계의 변화를 구구한 심리적과정의 설명이 없이 눈빛의 변화를 놓고 인상적으로, 집약적으로 그려내는데 성공하였다.

지배인의 눈빛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한순간도 전기를 끄지 않고 산줄작업으로 47호철탑을 높일 데 대한 최형진네들의 제의를 부결한 준호과장을 못마땅히 여기는데서는 《가시돋은듯한 눈초리를 날카롭게 쏘았다.》로 전기를 끄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지배인과 준호과장의 대립장면에서는 《그의 눈시울은 바르르 떨리고... 불을 뿜는듯한 눈총을 박준호의 얼굴에 쏘았다》로 묘사하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

한편 최형진네들이 일하는 현장을 돌아보며 흡족해하는 지배인의 무람없는 태도는 《한쪽눈을 찌긔하게 감으며 뚫려주었다.》로,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된 감격적인 대목에서는 《갑자기 지배인의 눈이 번쩍 떠졌다.》라고 표현한것은 환경과 성격, 행동, 심리와 눈에 대한 초상묘사를 잘 밀착시켜 성격의 주도적특질을 살림으로써 개성화의 높이를 보장한 또 하나의 긍정적시도이다.

우의 작품들에서는 또한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성격을 모나게 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초상묘사의 수법들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데서도 일련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각이한만큼 그것을 그리는 초상묘사의 수법도 천편일률적일수 없다.

생활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묘사할것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은 모든 형상과 마찬가지로 초상묘사도 다양하게 할것을 요구한다.

《떠나는 사람》에서처럼 성격의 특징적인 모습을 자연환경 즉 달빛의 조화에 조명시키는 방법으로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수도 있고 《영원한 흐름》에서처럼 작가의 직접적서술을 통하여 주로 다른 인물들과의 대립속에서 보여줄수도 있다.

또한 초상묘사를 어느 한 대목에 몰아서 주지 않고 일반적특징만 대략 제시한 다음 환경과 정황에 따라 한 측면씩 강조하는 방법으로 그 포괄적인 면모를 종합해서 느끼게끔 그리는수도 있다.

단편소설 《가고싶은곳》에서 산림보호원 강성무의 형상이 바로 그렇다.

《어둠속에서 콩알만한 불이 움직거리다가 확 밝아지더니 푸르죽한 입술, 끝이 동실한 코, 피발이 뻗결게 내돋는 뺨, 두둑한 눈두덩이 차츰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이는 담배불빛에 드러난 성무의 초상을 그린

대목이다. 여기서는 아무런 특징도 세무적인 묘상의 강조도 특별하게 주어진것은 없다. 다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만을 툭파적으로 주었울뿐이다. 그러나 작품을 다 읽고나면 주인공의 성실하고도 근면한 성품을 말해주는 외모가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이는 표정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들마다에 그것을 짚아주는 방법으로 성무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저절로 우러나오게끔

초상묘사를 주었기때문이다.

그것은 부연이와 함께 산에 갈 차비를 서두르면서 하는 그들의 차림새와 행동 묘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즉 성무는 옆에 색연필이 꽂혀있고 앞에는 수종배치되며 산림보호원수첩 등이 들어있는 끈 긴 가방을 둘러메고 부연은 바구니며 배낭, 자루 등을 꾸린다. 이러한 행동묘사를 통하여 독자들은 그 어떤 외부적유혹에도 이끌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는 성무의 근면한 성격을 그 표정과 함께 방불히 그려볼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어린 이깔나무의 꺾어진 부위를 싸매고났을때 느낀 기쁨과 흐뭇한 심정을 《성무는 몇번 흔들어보고 마음이 놓인듯 벌췌 웃으며 손을 털었다.》와 같은 간결한 묘사로 대치한 실례들은 성격과 내면세계에 대한 초상묘사의 의의를 잘 살린 모범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밭그라진감이 없이 사사로운 인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당이 맡겨준 산림보호원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주인공의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더욱 무게있는 형상으로 살아나게 하였다.

이처럼 작품에서 초상묘사의 영역은 무한히 넓으며 그 수법 역시 다양하다.

정황에 맞고 종자의 요구를 완전무결하게 대변할수 있는 각도에서 초상묘사를 다양하게 하는것은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성격과 생활을 충만시킬수 있는 기본전제로 된다.

성격을 특징화할수 있는 국면이 성숙되어 초상묘사를 주어야 할곳에 가서 주지 않고 스쳐버리거나 준다고 해도 정황에 어울리지 않게 판에 박은 몇마디 설명으로 그 툭파이나 제시하는 정도로는 그 어떤 성격의 개성화도 바랄수 없다.

정황을 무시하고 성격만 제시하려 해서는 안되는것 만큼 바로 그러한 정황속에서 그러한 성격이 우러나오게 되는 그 필연적동기를 정확히 밝히는 방향에서 초상묘사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황을 무시하는것으로 되며 전형적환경과 성격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고 아무런 개성도 특징도 없는 일반적인 류형적판박이성격을 그릴수밖에 없게 된다.

정황에 맞지 않는 판에 박은 초상묘사는 아무런 예술적감흥도 주지 못하며 생활과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없게 한다.

실례로 긍정적주인공의 얼굴은 처녀인 경우 의례 타원형이고 눈동자는 별빛이며 속눈썹은 길고 보조개가 꽤우며 몸매는 날씬하고 탄력이 있다는 식으로 그린다거나 남주인공인 경우에는 억실 억실한 눈매, 흰칠한 이마, 두툼한 입술, 붓초리 같은 굵은 눈썹과 림름한 체구 등으로 대치한다면 진실로 개성적인 성격을 그리기 힘들다.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이러한 초상묘사로써는 인간과 성격을 이것도 저것 같고 저것도 이것 같은 어썩 비슷한 아무런 숨결도 색깔도 없는 모조품으로밖에 그릴수 없게 된다.

세부의 류사성, 묘사에서 반복성, 도식성은 총체적으로 작품전체의 생명력을 파괴하며 예술에서 죽음인 추상성을 낳게 하는 온상으로 될뿐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그 인물에게서만 볼수 있는 생활세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잘 그린다면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성격을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생활세부를 옳바로 찾아내어 개성적으로 그리지 못하면 작품전반의 진실성에 큰 손상을 끼치게 된다.

흔히 로동계급 하면 그 외모로부터 힘꼴이나 쓰는 사람으로 보이게 그리고 농민하면 수더분한 인상을 주는것으로, 나긋나긋하고 하얀 손과 얼굴을 가진 형은 인테리로 규정하여 그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편향이며 도식으로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류형적인 외모를 보여줄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풍모가 나타나는 세부를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본질이 스스로 밝혀지게끔 하여야 한다.

생활과 인간성격을 한 측면만 보고 추상적으로 그리는데서 생활을 외국하거나 성격을 기형화할수 있는 폐단이 나온다.

생활이 다양한만큼 그것을 대변하는 성격도 다양한것이다. 긍정적처녀주인공이라 하여 다 눈에 쌍가풀이진것은 아니며 로동계급이라 하여 다 주먹이 큰것도 아니다. 또한 부정인들은 다 눈이 세모진것은 아니며 농민이라 하여 다 곁에 흙냄새가 배여있는것도 아니다. 생활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문제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 특징을 깊이 파고들어가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림으로써 본질적속성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하는것이다. 그래야 피가 뛰고 호흡이 느껴지는 개성화된 산인간의 전형을 옹계 창조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상묘사는 작가의 서술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 작품에서 묘사와 설명이 조화로운 융합과 대조를 이루면서 형상을 화폭적으로 수놓아간다.

화폭적으로 안겨오지 않는 초상묘사는 잘된 초상묘사라고 볼수 없다. 설명이 지나치게 많거나

노리는 국면이 뚜렷하지 못하고 본질을 꿰지 못한 초상묘사는 과녁을 명중시킨것이라고 볼수 없다.

초상묘사의 비결은 대상의 과녁을 명중시켜 형상화폭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무리 기발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일단 남이 한번 써먹었거나 어디서 본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이라면 대담하게 버리고 새것을 찾기 위해 진지한 탐구를 거듭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것을 찾아쥐었다 해도 그것이 이미 도달한 형상의 높이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품위가 낮은것일때에는 역시 형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 방향에서 계속 심혈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얻어진 표현이 참으로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라고 인정될때 비로소 붓으로 옮겨야 한다.

어떤 인간의 초상을 그리든지 그 표현에서 이미 독자들의 뇌리에 새겨진 인상의 테두리를 땀물거나 주어진 표상을 확인시키는 정도로 그친다면 묘사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것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이런 편향성이 곧 늙은 사람은 일률적으로 보수주의, 소극분자로 만들고 새세대, 젊은 사람들은 다 혁신자로 그리는것과 같은 도식적인 인간관계를 빚어내게 하며 초상묘사도 그렇게 따라가는 류형성을 범하게 만든다.

창작에서는 이미 도달한 형상의 높이와 표상을 뒤집어엎을만큼 기발하고 엉뚱하다 할만치 그 무엇을 노리는것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런것이 없는곳에서 새롭고 진취적인것이 나올수 없으며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설득력있는 형상을 바랄수 없다.

창작사업이란 말그대로 새것을 창조하는 사업이다. 생활에서 새것은 언제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법이다. 흔히 있는것속에서 새것을 발견할줄 아는 눈, 현재는 비록 그것이 현상의 외피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능히 새것을 지향하고 생활의 합법칙적요구를 확고히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싹들을 잘 찾아낼줄 아는 작가적눈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곧 창작가가 견지하여야 할 본연의 자세이다.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부단히 학습하고 사색하며 벽찬 현실생활속에 깊이 침투하는것-이것은 창작가들앞에 지워진 변함없는 과제이며 시대적요구이다.

우리는 생활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정신과 련마된 고도의 예술적기량을 가지고 초상묘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효과적으로 잘 살려 기발하고 참신하며 개성이 뚜렷한 특색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의 흥미와 새로운 성격의 탐구

단편소설이 흥미있게 읽히우자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성격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생활을 더욱 깊이 리해할수 있으며 더 훌륭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습니다.》

인간생활의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에 대한 예술적재현, 이것은 문학예술의 각이한 형식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실현되게 된다.

생활의 어느 한 단면을 통하여 인간생활의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보여주는 단편소설에서는 그것이 주로 새로운 성격에 대한 탐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새로운 주제는 언제나 새로운 인간에 대한 주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주제이라고 밝혀주고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매일과 같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예술형상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활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인 백현우의 《떠나는 사람》과 김길환의 《미더운 세대》를 읽으면서도 이 작품들이 흥미있게 읽히우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은 물굴공사장의 돌격대진료소에 준의로 일하던 진옥이라는 처녀가 상부의 소환에 의하여 범산저수지건설지구 건설자병원으로 떠나는 그 시각까지도 자기의 임무에 어떻게 충실하고있는가를 보여준 아담한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진옥이는 진료소 준의로서 돌격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일에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고.

물굴건설이 끝나면 제각기 흩어지는 대상들이지만 매 사람별로 건강관리부를 만들어놓고 그들의 건강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진옥, 그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는것이라면 그 어떤 일도 가리지 않는다. 술가지를 꺾어다 굴안에 꽂아 공기를

장영

맑게 해주는가 하면 솔잎시럽과 영양제를 만들어 돌격대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로동안전상태도 스스로 돌봐준다.

왕성한 사업의욕과 불같은 열정을 지닌 진옥은 또한 마치도 이곳에 영원히 살기라도 할것처럼 진료소도 알뜰히 꾸려놓고 산발을 살살이 뒤져가며 넓은 면적의 약초밭도 곳곳에 조성하여놓았다. 그런가 하면 돌격대원이 아닌 강건너 왓새촌의 8선녀할머니의 건강도 돌보며 그에게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잊지 않고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 남이 그 수고를 알아주든말든 네일 내일 가림없이 뛰여들어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는 헌신성, 이것이야말로 주체형의 새 인간성격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단편소설 《미더운 세대》에 등장하는 정애와 복희의 성격은 또 어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형기계직장에 배치받아 선반기를 돌린지 이제 겨우 여섯달밖에 안되는 그들은 제품대를 함께 쓰고있었다. 그런데 자기들이 깎은 나사못가운데 허용공차를 약간 벗어난것이 하나 생겼으니 그 불합격품을 낸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는가? 정애도 그렇고 복희도 역시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불합격품을 낸 사람은 둘중의 누구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무를 의심할수도 없지 않는가.

이런 정황에 놓이게 된 정애는 자기의 량심이 꺼리지 않는 한 그것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우길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무를 의심한다는것은 더욱 나쁜 일이었다.

정애는 잠시나마 동무를 믿지 못해하던 자기의 용렬한 생각을 뿌리치고 지배인에게 찾아가 《제가... 제가 나사못을 잘못 깎구도 이때까지... 전 정말 돌격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라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복희도 역시 직장에 달려나와 《전... 기대공자격이 없어요! 전... 오후작업때 나사못을 하나 오작내구도 돌격대에 들어가지 못할가봐... 대수롭지 않게 여기구 모른체를 했어요. 전자신을 속였습니다.》라고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한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기전에 그것을 먼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가룩한 마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안고 나라에 쓸모있는 귀중한 존재로 성실하게 살아나가려는 구김살없는

지향, 이것은 주체형의 맑은 피를 영양소로 하여 자라난 우리 시대의 새 인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격적풍모이다.

단편소설들인 《떠나는 사람》과 《미더운 세대》는 이와 같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탄생되고 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성격을 등장시키고있을뿐 아니라 그러한 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하기 위한 형상탐구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단편소설 《떠나는 사람》의 경우를 놓고보자.

만일 이 소설이 진옥의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 어떻게 표현되고있는가를 단순히 소개하기만 하였다면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독자들에게 흥미있게 읽히울수 있었겠는가? 그랬다면 이 작품은 미담소개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어느 한 농촌마을 리병원에서 준의로 일하던 동무의 시야를 통하여 진옥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가 점차 깊이있게 해명되어 나간데 있다.

창무는 《애를 써도 별로 자리가 나지 않고 별로 빛도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에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 거창한 일에 자기 청춘의 힘과 열정을 바치고싶》은 열망을 안고 물굴공사장에 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돌격대에 나가는것만으로 자기의 생활은 보람찰것이라고 여기고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진옥이가 어두운 강에서 혼자 노트는 연습을 왜 하는지 알수 없었으며 진료소준의가 무엇때문에 굴속에까지 들어가 돌격대원들의 로동안전상태를 돌보고 사업인제가 끝나면 곧 떠나야 할 몸인데도 왜 막장안의 공기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진옥의 높은 정신세계에 대한 창무의 감탄은 약초발을 돌보는 과정에 더욱 심화되고있다. 창무는 다만 약초발을 어디에 얼마나 조성하여놓았는가를 현지 확인하면 되려니만 여기고 빈몸으로 떠났는데 진옥은 그 기회도 놓치지 않을양으로 배낭을 메고 산길을 걸으면서 눈에 띄우는 약초 뿌리며 그 종자를 일일이 채집했다. 그들이 참나무숲이 우거진 골짜기를 지나다가 꿈을 만났을 때 창무는 겁결에 약초와 그 지도가 든 배낭을 내던지고 뛰어왔지만 진옥은 손등을 긁혀 피멍지가 지면서도 천궁 한뿌리를 그냥 가지고 내려왔다. 그런가 하면 그는 비뿌리는 스산한 날 저녁 사업인제를 마치고 진료소를 떠났다가 8선녀할머니에게 주사를 놓아주어야 할 일을 알려주지 못한것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와 그 부탁마저 남기고서야 깨끗이 떠나는것이였다.

진옥이와 창무의 성격은 예리하게 대조되였다. 서로 의견대립이 없는 사이였지만 이틀밖에 안되는 기간 창무의 생각이 부단히 뉘우쳐지고 진옥의 행동이 끝없이 레찬된다.

창무의 시야를 통하여 진옥이가 얼마나 훌륭한 처녀인가를 점차 알게 되는 기대, 이것이 이 단편소설이 흥미있게 읽히우는 매력이다.

창무가 처음 배를 타고 수정천을 건널 때 본 진옥은 다만 아름다운 처녀에 불과하였다.

《달빛을 안고 배머리에 조용히 앉은 처녀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약간 창백해보이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가름한 얼굴에 안성맞춤하게 자리잡은 오뚝한 코, 뾰족 지력있어보이는 생기도는 눈이며 이악한 성미를 말해주듯 꼭 다물린 입... 달빛의 조화때문에 처녀의 생김생김은 아름답게 부각됐고 한창나이 젊음이 주는 싱그러움과 온몸의 탄력이 그 무슨 훈향처럼 풍기는것이였다.》

그러나 막장안에서 본 진옥의 인상은 또 달랐다.

《강에서는 부드럽고 유한 인상만을 주더니 등그런 안전모에 장화를 신고 작업장에 나타나 황소같은 착암소대장을 닦아세우고 돌아가는 지금의 그한테서는 웅골차고 맵짠 맛이 느껴졌다.》

마침내 창무는 진옥이가 그토록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주어진 자각, 주위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해내고야마는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살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알게 되며 자기에게는 바로 그것이 부족했음을 진심으로 느끼는것이다.

소설은 참으로 하나의 기대가 풀리면 다른 새로운 기대를 안고 주인공의 아름다운 행동을 기다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작품전면에 연연한 서정을 깔아주었다.

단편소설 《미더운 세대》의 흥미는 이와 다른 각도에서 추구되고있다.

이 소설에는 비교적 큰 하나의 사건, 다시말하여 대형시추기제작을 결속짓기 위한 돌격대를 묶는 사건이 놓이고 이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주인공들의 미묘한 사상감정을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였다.

사람들속에서 매우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로 살려는 정애와 복희에게 있어서 대형시추기제작을 위한 돌격대성원으로 되지 못한것은 말할수 없는 고통이었고 자기자신에 대한 모독이였다. 견습공 시절에 아글타글 애를 써서 5급선반공의 기능을 가진 자기들의 기능수준으로써는 능히 돌격대성원으로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자기들을 돌격대명단에 넣어주지 않는가? 소설은 이런 전제밑에 정애가 자기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그 과정에 자기가 모든것을 책임지려는 립장이 부족하였음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 소설의 흥미는 허용공차를 벗어난 나사못을 자기가 깎지 않았다는 반발로부터 그 누가 깎았든 자신이 책임질줄 알아야 한다는 립장으로 돌아서기까지의 주인공의 사상감정의 변화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심리적분석에 있다.

작품은 정애의 이러한 심리적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새로 자라나고있는 로동계급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밝혀내었다. 다시말하여 집단의 귀중한 존재로 불러주는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고귀한 일로 여기고있을뿐아니라 동무를 믿지못하고 의심하는것을 너절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알며 모든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지향, 이것이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특히 직장장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격대성원으로 다 나가고 자기만이 혼자 집에 남아 굶느라고 푸푸거리는 밥가마를 들여다보며 피로운 생각을 더듬어가는 정애의

심리에 대한 세부묘사를 통하여 그것을 더욱 생동하게 부각하였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정애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리적분석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투쟁대오에서 뒤흔어지는것을 얼마나 피로와하며 성실하게 살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감명깊게 느끼게 된다.

단편소설들인 《떠나는 사람》과 《미더운 세대》는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탄생되고있는 새로운 인간성격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성격적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이 일정한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자의 철학적깊이와 구성의 독창성, 사건의 생동성과 언어문체의 생동성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전형을 기동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단편소설이 독자들에게 더욱 흥미있게 읽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상토론

단편소설의 감정조직과 그 견인력

배준구

주체적문제리론은 볼수록 새로운 흥미를 느끼면서 더욱 커다란 열정과 흥분을 가지고 보게 되는 작품이라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수 있다고 밝히었다.

작가들은 한편의 짙막한 단편소설을 창작하여도 그것을 한번 본 뒤에도 다시 보고싶어지고 사람들을 새로운 희망과 량만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견인력을 가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는 형상의 뿌리가 내릴 훌륭한 종자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예술적으로 가공해나가는 여러가지 수단과 수법들을 능숙하게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등장인물의 생활과 투쟁을 엮어나가는 구성작업에서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은 단편소설의 흥미와 견인력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단편소설에서는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생활을 내면세계의

섬세한 움직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그려야 한다.

한편의 짙막한 단편소설이 사람들을 힘있게 격동시키고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강한 견인력을 가지게 하자면 감정조직을 잘해야 한다. 왜냐 하면 단편소설 역시 형상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고 그의 내면세계의 움직임을 그려내는것만큼 감정조직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작품의 견인력을 강하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가 규정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단편소설에서는 인물들의 감정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을 통하여 종자에 담겨진 사상을 정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해 잡지 《조선문학》에 발요원 현실주제의 단편소설인 《발걸음》(백보흠)은 이러한 요구의 측면에서 일정한 탐구적지향이 발양되고있는 작품이라고 본다.

단편소설은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설정하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주인공이 체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정흐름과 변화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밝혀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여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움직임, 감정의 다양한 색깔을 정서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감정조직을 잘해나가고 있는것이다.

주체적문제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에 따라 인간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내는 형상방법이다.

단편소설 《발걸음》에서 주인공의 성격창조는 생활론리에 맞게 주인공의 감정세계를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면서 성격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드러낼수 있게 하였다.

단편소설 《발걸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살고있는 시대뿐만아니라 먼 미래에 가서도 가슴아픈 후회를 남기지 않게 깨끗한 양심과 높은 책임성으로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주인공이 체현하고있는 이런 문제성을 구체적인 심리변화와 감정의 흐름을 통하여 심오하게 예술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주인공 련희가 처녀측량소대장으로 북방고원의 지형을 조사하던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로, 측량생활과는 인연이 멀어진 료양소 회계원으로 일하고있다.

련희가 10년전 지형을 조사하면서 오직 황무지로만 생각하고 그곳이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않을 불모의 땅이라고 생각하던 그때의 그곳이 오늘은 거창한 니탄개발지로 되어 철길까지 놓이게 된다. 그러나 새로 놓이게 되는 철길은 10리도 못가 중도에서 뭉청 끊어져버린다. 이것으로 하여 주인공 련희는 10년전 자기가 일하던 초소에 다시 와서 그 원인을 확정하게 되며 그는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일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작품은 련희의 이러한 생활경로를 그가 체험하고 느끼며 모대기는 내면세계의 움직임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만약 여기에서 주인공이 체험하고 느끼는 내면세계의 움직임을 구체적인 감정조직으로 펼쳐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소설은 그렇게 감동적이고 정서적인 화폭으로 련희의 성격을 창조할수 없었을 것이며 작품의 흥미와 견인력도 강하게 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 창조된 련희의 성격은 그가 잘못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자기반성의 극적체험과 정서적파동을 생활론리에 따라 감정의 긴장과 완화, 축적과 폭발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었다. 즉 소설에서는 추상적인 사건라렬로 소설적인 흥미를 끌게 한것이 아니라 련희의 구체적인 감정세계와 그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공감시키게 하였다.

특히 소설에서는 주인공 련희의 성격발전과정

을 깊이 밝혀낼수 있게끔 그가 체험하고 모대기는 심리적굴절과 감정변화의 순차적론리를 잘 지어주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지난날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아무런 량심적가책도 없이 살아가던 련희의 생활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생활적인 전제를 옹계 조성시켜주고 그로부터 출발되는 감정변화의 축적과 폭발을 잘 형상해주고있는것을 놓고 말할수 있다.

주체적문제론은 생활적인 전제를 주는것은 감정축적을 마련하는 기본조건이라는것과 함께 생활적인 전제가 있을 때 감정은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오게 된다는것을 밝히였다.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감정축적과 폭발은 생활적전체가 없이 이루어질수가 없다. 만약 감정변화를 일으킬수 있게 하는 생활적인 전제를 주지 않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축적과 폭발에로 비약시킨다면 그때의 감정변화는 산 인간의 진실한 감정으로 독자들을 공감시킬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형상창조에서 주인공의 감정축적과 폭발을 진실하게 주자면 그것을 추동하고 조건지어주는 생활적인 전제부터 충분히 준다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의 다양한 변화들이 있게끔 하여야 한다.

이런 요구의 측면에서 볼 때 단편소설은 련희가 풍수덕의 지질조사에서 남긴 부족점이 지금에 와서 얼마나 가슴아픈 후회로 되는가 하는 충분한 생활적인 전제를 준 다음 그로부터 출발되는 주인공의 감정변화를 생활론리에 맞게 잘 조직하였다.

작품은 아무런 량심적가책도 없이 10 년만에 다시 풍수덕으로 온 련희가 탄광설계기사 채동식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통하여 책임성없이 일한 지난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수치와 후회의 감정의 파문이 일어날수 있게 하는 생활적인 전제를 주고있다.

《<아주머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련희는 앞을 내다보았다.

아득히 뻗은 10리 철길이 여기서 뭉청 끊어져 버렸다.

<제가 아주머닐 부르게 된것은 이앞에 있는 늪 때문입니다.>

...

련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없이 동식의 손에서 도면을 받아쥐였다. 긴장해진 그의 눈길이 동식의 전지불에 비쳐진 도면우로 빠르게 헤엄쳐다녔다.

<아니, 도면엔 늪이 없는데요.>

<예, 도면엔 늪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실지 철

길을 놓자구보니까 여기가 늪이었습시다. 우리는 그때문에 철길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됐습시다.>

<예?>

련희는 쇠망치에 정수리를 되게 얻어맞은듯 머리속이 뻥하고 눈앞이 아찔했다.》

작품은 지난날 한순간에 잘못된 일이 지금에 와서 어떠한 후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주인공 련희의 내면세계에 얼마나 강한 충동을 일으키게 하였는가 하는 생활적인 전제를 소설적인 묘사로 주고있다.

소설은 건설도중에 몽청 끊어져버린 철길이 바로 그앞에 있는 늪때문이며 이 늪을 련희가 찾아 내지못한것으로 하여 10년이 지난 오늘 련희가 다시 이곳에 와서 채동식기사를 만나지 않으면 안될 극적계기와 생활의 극절을 조성시켜준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은 여기로부터 출발되는 문제성을 주인공 련희가 보고듣고 느끼는 감정변화의 구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형상적으로 해명하고있다.

소설은 이렇게 감정을 터뜨릴수 있게 하는 계기의 묘사를 단순히 긴장과 흥미를 위한 사건본위로 설정한것이 아니라 감정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전제부터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잘 주었다. 때문에 련희가 체험하게 되는 심리적충동이 더없이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감정으로 안겨오게 된다.

작품은 이처럼 련희의 내면세계를 움직일수 있게 하는 생활적인 전제를 충분히 조성시켜주면서 그에 따라 감정변화의 축적과 폭발을 주었다. 즉 련희가 풍수덕에 도착하여 자기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느끼게 되는 량심적가책과 심리적모대감을 보여주는 감정의 축적은 그것을 축적시켜줄수 있게 한 풍부한 생활적전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끔 하였다. 때문에 이 장면은 정서적인 감동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련희가 10년전 자기가 잘못된 일을 회상하면서 혁명앞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량심적가책을 보여주는 장면은 더욱 생동한다.

《떨어지는 첫눈을 보며 초조와 불안속에서 측량을 서두르던 일, 이제 풍수덕의 지형도를 안고 본부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달콤한 꿈...

또한 련희는 그때 적막한 황무지를 바라보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않는 불모의 땅이라고 생각했었다.

여기에는 니탄마저 없으니 지질조사원이 오지 않을것이며 진필이 많고 진대나무와 어설픈 집관목뿐이니 농장개간지로도 될수 없고 벌목공이 기

계톱을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을것이다.

(옳아, 나는 그때 풍수덕의 본산구역에서는 지하보물을 찾으려 지형도를 들고 뒤따라올 지질조사원들의 눈을 은근히 두려워했지만 이 구역에서는 누구도 우리 지형도를 시비하며 뒤따라올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지. 측량공의 발걸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가치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바로 그때문에 일을 설치였어. 아...)

련희는 측량의 길에서 잠시 헛디딘 그 한순간의 걸음때문에 먼 후날까지 조국이 얼마나 손실을 받게 된다는것을 모른채 10년세월을 마음 편히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이것은 련희가 자기 잘못을 느끼게 되는 감정흐름의 축적과정이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주인공의 감정속에 흐르고있는 사상정신적충동을 소설의 고유한 심리적 분석을 통하여 생동하게 그려보여주고 있다.

련희가 체험하게 되는 감정변화와 그 모대감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실로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사색케 하며 사람이 한순간을 살아도, 일생을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생활의 진리를 감동적인 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감정변화의 축적과정을 성격발전의 논리에 맞게 주고있기때문에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감정의 폭발이 더없이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이다.

련희는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풍수덕에 남아 이곳 개발자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자기가 일하는 료양소 당위원회와 남편에게 편지를 쓰며 외두대신 솜옷을 바꿔입고 시추탑이 서있는 늪얼음판으로 나가 지질조사사업에 다시 착수한다.

이렇게 주인공 련희가 지난 기간 풍수덕에서 지질조사를 책임성없게 한것을 깊이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되기까지의 감정의 변화는 아주 섬세하게 그려졌다.

때문에 주인공 련희가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그것을 실천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생활그대로 진실한 화폭으로 펼쳐진다.

이와 같이 작품은 주인공 련희가 사색하고 모대기는 감정변화의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작품이 제기한 사상주제적과제를 정서적인 화폭으로 풀어나갔다.

우리 작가들은 형상창조에서 감정조직을 잘하는것이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방도라는 주체적문제이론의 본질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훌륭한 단편소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운반공 처녀

강영수

남에게 지는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미인 나는 오늘까지 자라오면서 일을 해도 그래, 공부를 해도 그래, 무슨 일에서나 남한테 뒤져본 일이 라곤 별로 없었다. 어쩌다 씨름판에서 맞다든 상대가 힘꼴이나 쓰는 친구여서 하는수없이 지게 되면 버르고버르다가 아무 기회를 얻어서라도 한번 뒤통치고서야 직성이 풀리곤하였다. 그래서 동무들속에서는 경호의 승벽만은 못당해낸다고들 말해왔다.

그런데 자동차운전강습을 마치고 운수중대에 배치받은 다음부터는 이런 나의 승벽도 맥을 추지 못했다.

로런한 운전사 몇몇이 나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는것 같았다.

그들의 명성은 소대나 중대의 범위를 벗어나 전사업소적으로 프르르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급한 물자수송이 제기되어 중대로 찾아온 짐임자가 차를 요구할 때도 내차는 뻔히 앞에 놔두고 그 운전사들의 차번호만 부르며 마당을 두리번거렸다.

이럴 때면 나는 마치 팔리지 않는 상품같기도 한 감이 들어 몹시 비위가 상하곤했다.

운전년한과 급수로 보아 기술면에 들어가서는 그들보다 좀 못할수 있으나 같은 일을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서로 다른 물동을 실어도 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실적을 올리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에게서판에 소개할 모범운전사들의 사진촬영이 제기되면 나도 괜찮게 일해왔다고 생각했건만 그들이 먼저 뿔혀가곤 했다.

나는 애당초 평가나 명예 그 자체를 탐내는 성미는 아니다. 그러나 당의 높은 신임이 그 평가속에 깃들어있고 못사람들의 사랑이 그런 영예로 표현되는것이니 오늘 우리 시대 일꾼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데 있으랴, 같은 운전사로서 그런 영예가 남에게만 차레진다는 사실은 나의 자존심과 승벽이 허락치 않는 일이었다.

(경호가 어떤 사람인가 차차 두고보라지.)

나는 락심하지 않고 마음의 탕개를 죄었다.

이렇게 별려오던차에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중대에서는 긴급하게 제기되는 새거리건설장의

자재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경쟁을 호소하였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한번 버쩍 열을 올려보리라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었다.

어디 누가 앞서는가 보자는것이였다.

그래 오늘아침도 제일먼저 중대사령원에게서 운행증을 받아가지고 건설장으로 나온 나는 현장배차원을 만나 끝끝한 운반공동무들을 붙여달라고 부탁해놓았던것이다.

《허허 요사이 46호가 차바퀴에 불이 일겠는걸... 좋아, 배짱이 맞는 끝끝한 사로청로력을 붙여주지.》

나는 운반물동조직과 로력을 배치해주는 중년배차원의 씨원씨원한 대답을 되새기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고 운반공들의 휴계실쪽에만 줄곧 눈길을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운반공이라는 사람들은 좀체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잠시동안이라도 그래도 보내기가 아까와 공구를 뒤져낸 나는 차주위를 돌아가며 스프링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나사들을 죄여보기도 했다.

새벽 선참으로 나와 빈틈없이 점검을 해가지고 물고나온 차는 걱정 말라는듯 두드리는곳마다 딱딱 이마를 맞세웠고 죄여보는곳마다 억척으로 꼬떡도 안했다.

나사틀개를 공구함속에 던져넣고난 나는 다시 걸레를 뒤져내어 마치 천리주행을 앞둔 기수가 준마의 갈기를 쓰다듬어주며 애무하듯 기관실덮개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나갔다. 그 일마저 마치고 담배 한대를 붙여물 때까지도 운반공들의 휴계실쪽에서는 의연히 인기척이 없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켜서야 일찍 서두른 보람이 있나.》

나는 절반도 안탄 담배를 발밑에 뭉개버리고 운전실문을 벌컥 열었다.

《땡땡- 땡땡땡-》

나는 요란하게 경적을 연거퍼 울렸다.

하나 그쪽에서는 여전히 잠잠했다.

나는 화가 울컥 치밀어 운전실문을 뿡 닫고 내려섰다. 배차실을 향해 막 발길을 돌리려는참인데 등뒤에서

《운전사동무, 일찍 나오셨어요. 기다리셨나요?》

하는 처녀의 쩡쩡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느쪽으로 해서 나타났는지 작업모를 이마위로 제껴쓴 영희가 감스레한 얼굴에 방싯이 미소를 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 동무들이 나왔소?》

나는 그의 뒤에 따라선 두명의 처녀들을 넘겨다보며 금시 미간을 찌프렸다.

《왜요?》

놀란듯도 하고 섭섭해하는듯도 하던 영희는 금시 그런 표정을 거두고 상글상글 웃었다.

《알만해요, 저번날 일때문에 그러시지요?… 오늘은 일을 좀 많이 해보지요.》

그리고는 발딘개를 딛고 올라서서 적재함우로 오르는 동무들을 향해 제법 조장들을 내여 웨치는 것이었다.

《모자를 날리지 않게 꼭 눌러써요. 그리고 일어서지들 말고…》

(흥, 오늘도 또 코집이 굴렀군, 그만큼 말했는데 하필 이런 동무들을 붙여줄진 뭐람.)

나는 배차원의 처사가 못내 불만스러웠다. 당장 뛰어들어가 왜 앞뒤가 다른가고 한마디 내대고 싶었으나 사람을 앞에다 두고 차마 그럴수는 없었다.

들어진 일갈긴 하지만 하는수없이 시동기를 밟았다.

영희는 나의 언짢은 기분에는 개의치 않고 운전실에 훌쩍 들어와 앉아 제 기분에 겨워 생글거리며 말을 건네었다.

《오늘 운행지령을 받았겠지요? 벽돌을 실어오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해보지요, 네?》

《…………》

나는 대답대신 접단기를 밟고 변속손잡이를 제쳤다.

벽돌공장을 향해 묵묵히 차를 몰아가는 나의 머리속에는 전번날에 있었던 일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나 좀체로 언짢은 기분이 가셔지지 않았다.

그날도 영희네 조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초벽(부재명)을 실러 부재공장으로 가는길에 잔토를 실어내가는 일감을 받았다.

차에 첫집을 싣고 떠나 얼마간 달렸는데 곁에 앉은 영희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운전사동무, 저 학교를 지나 왼편길로 좀 들어가면 집중화물역건설장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이 잔토를 부리우고 가지요.》

의외의 말에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왜 하필 거기까지 들어가 부리우겠소?》

《그곳에서 인입선을 내오는데 요전날 보니 철

길쪽 쌓는 토랑이 모자라 수송기재를 내서 실어들이더군요. 아직 성토랑이 많이 부족되는가봐요.》

나는 그곳 사정은 그렇다쳐도 들어가는 차길이 변변치 못하고 또 어지간히 도는 쪽이 되어 선풍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몇탕 더 뛰어야겠는데 공연히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제 일 밀질 필요야 있소.》

그러나 영희는 제 소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조금 돌아가는 쪽이 된다 해도 그닥 일을 밀질게 없다는등, 설사 몇분 지체된다손쳐도 자기들이 성하차시간을 단축하여 보충할수 있다는등 그럴듯한 말로 설득시키려 들었다.

듣고보면 전혀 그른 요구는 아닌게고 또 처음 하는 처녀의 청인데 지나치게 맹정히 잘라버리면 무안해질것 같아 못건디는척하고 응해주었다.

차가 울퉁불퉁한 길로 엉덩이를 들추어대며 그곳까지 들어가 닿자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린 영희가 손짓신호를 했다. 나는 처음 오는곳이라 영희의 손짓만 보고 후진해들어갔다.

그런데 안될 때라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잔토를 다 부리우고 차를 빼려고 하니 차가 빠져 나오지를 못했다.

비물이 피어있던곳에 흙을 메워놓아 걸은 멀쩡한것같았으나 속은 수렁창이었다. 영희도 그런것은 미처 모르고있었던것 같다.

나는 가속답판을 연거퍼 밟아댔다.

차는 썰렁-썰렁-숨가쁜 소리를 지르며 바퀴로 바닥을 물어뜯었다. 앞은 잔뜩 쳐들린데다가 힘을 써줘야 할 뒤바퀴가 영치를 점점 더 깊숙이 박으며 공회전을 해대니 나울리가 만무했다.

바퀴의 고무타는 내가 풍겼다.

더는 가망이 없었다.

나는 운전실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펄쩍 주저앉았다. 생각할수록 맹랑한 일이었다. 애당초 그런 말을 꺼낼 때 배추밑 도리듯 싹 자르지 못한 것이 분했다.

영희는 불이 홍당무가 되어 주위에서 돌들을 안아다 바퀴자리에 채운다, 바퀴앞을 파낸다 하며 경황없이 덤비었다.

다른 처녀들도 그가 하는대로 따라 서둘렀다.

무릎우에 두팔을 뻗쳐올려놓고 주먹 치밀듯하는 울화를 참고 앉아있느라니 애들 장난하듯하는 그들의 잡도리가 볼수록 눈에 거슬렸다.

《그렇게 해서 나울것 같소!》

나는 훌쩍 일어나 영희의 손에서 sap을 나꾸채

여 부러져라 힘을 주어 바퀴밑에 삽날을 박았다.

차밑에 허리를 구부리고 안간힘을 써가며 찌뚱 찌뚱한 흙을 파내기란 여간만 애먹는 일이 아니었다.

《에이참, 이게 무슨 꼴이람, 관계도 없는 일에 자주 오자고 해놓구서는…》

나는 힘들수록 터져나오는 화를 참을수가 없었다.

요행 집중화물역 건설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힘을 합쳐주었기에망정이지 그날 온 하루를 그 씨름질로 다 보냈을지 모른다.

차를 빼놓은 다음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흙매닥질이 된 차에 《목욕》을 시켜야 시내를 통과할수 있었는데 가까운 근방에는 물이 없었다.

처녀들이 숨이 턱에 닿아 먼 거리에서 바깥으로 물을 길어날랐다.

부재공장을 향해 차를 돌렸을 때는 낮 10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왕복 두차는 좋지 했을 시간을 거저 버리면서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차는 차대로 무리를 당했다. 그날 사서 고생을 하던 생각을 하니 아직도 그 분김이 내려가지 않은것 같았다.

(그런데 또 맞다들어…)

나의 마음은 흐려졌다.

그런데 촉기빠른 처녀라면 남의 기분을 눈치채고 가책받는 무엇이 있으면만 이 처녀는 그런 티도 없다.

《오늘은 우리들이 상하차시간을 극력 단축할테니 운행시간을 줄이는데서도 같이 노력해줘야 해요, 네?》

《종도록 해봅시다.》

나는 심드렁하게 한마디 던져주었다.

× ×

《46호가 요사이 되게 마력을 내는데… 오늘도 역시 선코로구만.》

나이에 비해 때이르게 번대진 인상적인 중년의 자재인수원은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차를 3호로앞으로 인도했다.

벽돌공장은 언제 봐야 들끓었다.

다른 작업은 몰라도 성형기앞에 서기만 하면 막 오금이 근질거릴 정도로 마음이 끌려들곤한다. 밀가루반죽같이 잘 개여진 흙반죽이 통줄로 기계아구리를 빠져나오면 기계칼이 살짝살짝 잘라놓는대로 벽돌장이 된다.

그것들이 줄지어 벨트를 타고 나가다가 총대로 된 밀차에 오르기만 하면 인차 건조로속으로 들

어간다.

나는 벽돌공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에 눈이 팔려 시간가는줄을 모르곤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는 그럴 경화도 없었다. 짐함에 벽돌을 채우는 작업을 도와야 했다.

《아이, 운전사동문 쉬세요. 여직 운전을 하며 오셨는데…》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실기나 합시다.》

나의 대답이 똑했던지 영희는 더 만류치 않고 방실히 웃기만했다.

우리는 일손이 맞아 잠깐사이에 짐함들에 벽돌을 채웠다.

차를 타고 다시 돌아섰을 때는 해가 퍼그나 떠올랐다.

나는 차문유리를 비스듬히 내려놓았다.

달리는 차는 신선하고 풍만한 대기를 욕심스레 당겨왔다.

큰길에 접어들자 나는 변속단수를 올렸다. 멀리 보이던 가로수들이 어느새 다가와 훌훌 지나쳐버리는지 차가 가는것이 아니라 길이 마구 달려와 뒤로뒤로 물려가는것만 같았다.

《속도를 좀더 봐보세요.》

제기분에 겨워 생글거리는 영희는 어찌보면 꼭 철부지 같았다.

하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그의 명량한 기분이 싫지 않았다.

어느덧 차는 벽돌적재장 초입에 가닿았다. 밤교대차들이 집중적으로 벽돌을 실어들여 하차장은 몹시 비좁았다.

나는 차를 뒤로 대려고 부산스레 조향륜을 돌렸다.

《운전사동무! 우리 차는 여기다 부리우지 말자요.》

문득 야무진 목소리가 발동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운전실에서 밖으로 목을 빼고 돌아보니 영희가 벽돌무지우에 오탁 서서 입에 손나팔을 하고 웨치는것이였다.

《아니 왜 그러우?》

나는 눈을 둥그리고 물었다.

영희는 잔걸음으로 다가와 짧은 팔을 들어 건물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2호기중기앞에 들여다 부리워주자요.》

《아니 다른 차들도 모두 여기에다 부리웠는데 왜 우리 차만 중뿔나게 들어가자고 그러우?》

《아이참 여긴 이렇게 벽돌이 많지 않아요. 저쪽에서도 올려다 써야 한하는데 모든 차들이 여

기다만 차꾸 부리우면 어떻게 하겠나요.》

나는 대뜸 이마에 메산자를 그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만 못해서 여기다 부리웠겠소. 들어가게 됐나 눈이 있으면 좀 보오.》

2호기중기앞까지는 전주 뒤개 사이나 될가말가 한 거리지만 차를 들릴 장소가 못되어 계속 뒤걸음질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다가 무른 흙바닥이어서 막돌들을 실어다 쫓는데 그우로 육중한 10톤급차들이 드나들며 바퀴자리를 깊숙이 파놓아 길이 여간만 나쁘지 않았다.

군데군데 비뿔이 피어있었고 한가운데는 흙과 돌들이 밀려올라와 울퉁불퉁 두꺼비잔등처럼 되어있었다.

다리가 짧은 《승리》호 자동차들은 밀배가 찰 달을 정도였다.

《다들 길이 저래서 못들어가고 여기다 부리운게 아니요.》

나는 나무패는 소리로 툭 내쏘았다.

애써 가졌던 위안과 기대가 어느새 무너져나가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영화는 웅석비듯이 처저붙으며 간청하는것이 아닌가.

《아이 제가 신호를 잘해드릴게요. 천천히 들어와보세요. 어서요.》

나는 들으려고도 않고 차뒤로 돌아가 적재함을 리를 땀다.

영화는 손가락끝을 아래턱에 찌른채 야속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화야, 차가 못들어간다고 하는데 할수 있나, 거기서 일을 못하게되면 등점으로라도 벽돌을 쳐다 보장해주겠길래 그러지.》

파랑머리수건을 쓴 결의 처녀가 야유 절반 통절반 섞어 입을 비쭉거렸다.

하차작업이 끝나고 다시 떠나려는데 영화가 운전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뽀로통해서 적재함우에 오른것으로 알고 차뒤에 눈을 흘기고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그저 덮어놓고 제 잔소리를 들어줘야 좋다고 하겠구만...)

한데 왕복집으로 석회를 싣고 하차장에까지 와서 보니 영화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동무네 조장 어데 갔소?》

《현장에서 떨어졌어요.》

파랑머리수건의 처녀가 석회를 부리우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꾸했다.

《무슨 일로?》

《글쎄 무슨 일이 있는지 한행보만 돌이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이 처녀들이 자기들끼리는 필경 무슨 이야기가 있었겠는데 그저 적당히 대답해두는것 같았다.

딱히 모르긴 해도 그 속심들이 고깝기가 그지 없었다. 남은 자동차실동물을 높이차고 애를 박박 쓰는데 짐입자가 운행도중에 차에서 마음대로 떨어지다니... 이걸 운전사를 깔보아도 분수가 있는게지...

나는 본인이 없는데서 투덜대야 쓸데없는줄 알면서도 치받치는 결기를 누를수가 없었다.

《아니 이걸 뭐 차라는 일을 한개 놀음놀이로 생각하는가!》

《아이참, 더 중한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아무려면 노느라고 떨어졌겠나요뭐... 우리들이 일손을 더 다그치면 되지 않나요. 공연히 성 안내실 걸 가지고 그러시네. 그러시지 말고 좀 도와나주세요.》

파랑머리수건의 처녀는 새물새물 웃으며 삽을 막 손에 쥐여주다싶이 했다.

(형 어디서 이런 비위덩어리람...)

나는 어이가 없어 선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그런 내색을 감추고 부러 엄한 표정을 짓는데 이 처녀는 그 눈치를 아는지 썰쭉 웃는 눈을 흘기며 한술 더 뜬다.

《지금은 운전사동무가 큰소리를 쳐도 조만간 우리 조장동무한테 녹아버리구 말걸... 호호호 그렇지 애?》

《호호호...》

호들갑을 떠는 두 처녀의 거동에 나는 그만 감추려던 웃음이 자기도 모르는새에 피석하고 나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깨름직한 그 무엇이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조만간 녹아버릴거라구?)

그저 웃는 소리로 들어넘길 말갈지 않았다. 혹시 영화가 2호기중기앞으로 들어가자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오몰해서 누구에게 제기하려고 떨어진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짐작이 틀림없는것 같았다.

(흥 그런 방법을 써서 자기의 주장을 내밀어보자구...)

나는 주먹같은 반발심이 불끈거렸다.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보다도 운전사인것이다. 때문에 높은 애차정신은 운전사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인것으로 신성시되고있는것이며 자기 설비에 대해 지나친 신경을 쓴다고 그것을 시비할수는 없는것이다.

자동차는 무한궤도차가 아니다. 험한 길로 무리하게 들이밀다가 고장이라도 생기면 그들이 책임질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에 없던 기둥이 솟아났다.

(어차피 잘되었다. 떼어버리고 싶던 참인데.)

두탕째 벽돌을 싣고 건설장어구를 들어설 때까지 나는 이런 생각을 쫓고있었다.

차가 포장도로를 벗어나서 들어가 배차실앞을 지나게 될 때 나는 제동기를 확 밟았다. 차가 급제동하는바람에 곁에 앉아가던 처녀가 홀 앞으로 몸을 쏟으며 차창대에 이마를 쪼았다.

《어마나 왜 그러세요?》

파랑머리수건은 이마를 싸쥐며 물었다.

《잠깐 기다리오.》

짧은 대답을 남긴 나는 운전실을 나와 배차실로 향했다.

영문을 몰라 나의 거동을 주시하는 처녀의 시선을 등뒤에 받으며 배차실안으로 들어선 나는 배차원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다.

《영희동무대신 다른 동무를 태워주십시오.》

푸수하게 생긴 배차원은 밀도골도 없이 내던진 말에 자기 귀를 의심하는지 한동안 멍해서 나의 낯색만 더듬었다.

《아니 영희동무대신에?... 어째서.》

《운반공이라는 사람이 차에서 마음대로 떨어져 붙장 다 보고 다니면 상하차로력이 필요가 뭘니까.》

나는 입에 송편을 물고 픽 돌아서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아니 영희동무가 그랬단말인가?》

넓은 미간에 금시 주름을 판 배차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동무는 아니라니까. 떨어졌다면 다른 요긴한 일이 있어서 잠시 뜬 새에 차가 먼저 떠났겠지.》

나는 배차원이 무턱대고 영희를 두던해나서는 바람에 우뚝해서 불만을 늘어놓았다.

《요긴한 일은 무슨 요긴한 일이 있어요. 삽질은 애들 밥술 쓰듯하는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지 않나, 자유주의는 혼자 부리지 않나... 능률을 높여보겠다고 그만큼 부탁했는데 하필 그런 동무를 붙여줄진 뭘니까?》

푸술한 생김새처럼 성미가 너그러운 배차원은 투덜거리는 내 앞에서 오히려 병글병글 웃음을 피웠다.

《이것봐 경호동무, 결만 보고서는 단 참의를

몰라. 이제 더 두고 지내보라구. 그럴 동무는 아니래두... 공연히 지금 그러다 후날에 가서는 그 동무를 안태워준다구 나무람이나 쓰지 말라구. 하하하...》

나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차라리 짱하고 돌우서는 성미같으면 결집에 우락부락 내밀어보겠는데 늘어지게 반죽을 치는 성미고보니 도무지 이가 들지 않았다.

나는 시간만 더 지체시킬것같아 그대로 배차실을 나서고말았다.

소득 없이 운전칸에 다시 올라앉은 나는 어찌보면 천진스럽기까지 한 영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배차원의 그토록 높은 신망을 얻게 됐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통 알수가 없어 머리를 긁적거렸다.

다시 떠난 차는 건설장구내로 접어들었다. 벽돌하차장어구로 들어서던 나는 문득 차창 바투 얼굴을 내밀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사이 차도가 몰라보게 정리되어있지 않는가.

힘하게 패워져 기복이 심하던 차바퀴차리에는 막돌들이 빼곡이 채워져있었고 두드러져올라와 울퉁불퉁하던 곳은 깎아내여 평평하게 고루어져 있었다.

《아이 그새 차길을 멋있게 했네요. 저것 보세요. 2호기중기앞으로 들어가는 길도 저렇게 잘해놨어요.》

곁에 앉은 처녀가 두손을 모아잡고 웨쳤다.

나는 차를 멈추고 후진변속을 했다. 이때 웬 아바이가 차곁에 붙쭉 나타났다.

《운전사동무, 좀 수고를 해주시우. 저 2호기중기앞으로말이우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해하는 빛을 띠우며 간청을 한 아바이는 자기 신호를 따라 차를 대어달라는듯 긴팔을 추켜들고 2호기중기앞으로 경충경충 뛰어갔다.

나는 목을 뒤로 빼들고 부산하게 운전대를 돌렸다.

차가 서서히 후진해들어가자 여기저기 널린 마지막 벽돌장들을 모아 기중기바가지에 담고있던 청년들이 입이 함치처럼 벌어져 환성을 올렸다.

《여, 벽돌차가 들어왔어. 어서들 부리워주자구!》

그들은 어찌나 반가운지 저마다 네귀의 적재함 문고리들을 따고 훌쩍훌쩍 차우로 뛰어올라가 벽돌집함고리를 추켜들고 기중기신호수를 찾았다.

《그만하래두... 차가 나간 다음에 우리들이 마

저 정리하지 않으리...》

방금 운전실에서 내려서던 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바이의 목소리에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쪽에서 영희가 돌들을 한아름 안고 다가오고있지 않는가.

그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는 아연해졌다.

말끔히 빨아 다림발까지 세워입고 나왔던 작업복엔 흙탕물이 튀었고 소매를 걷어붙인 손은 돌을 얻어다가 바퀴자리에 채워넣느라 그렇게 되었는지 흙이 계발려있었다.

안고온 돌들을 길에 고르어 깔던 그는 성가시게 이마앞으로 흘려내리는 몇오리 머리카락을 팔굽으로 밀어올리며 허리를 폈다.

《네, 다 되었어요.》

아바이는 자책이 어린 얼굴을 나에게로 돌렸다.

《우리가 일한다는게 이렇수다. 언제부터 길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동무네들이 먼저 손을 대게 했구려, 이처럼 길을 해서 벽돌차를 끌어들이는 생각은 못하구. 난 벽돌이 떨어져 야단하면서 운반로력을 조직하러 뛰어다니질 않았겠소. 운반공로력을 이런 일에 떼여 수고를 끼치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순간 나는 가슴속 한구석이 뜨끔하면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어쭙게 머뭇거리고 서있는 나는 하차작업이 끝나기 바쁘게 운전실로 올랐다.

《운전사동무 미안해요, 제가 떨어졌대서... 아무래도 길을 좀 손질해야했기에...》

차가 떠나려 하자 전과 같이 운전실에 들어와 앉은 영희는 못내 미안쩍은듯 나를 살며시 올려다보았다.

나는 갑자기 거북스러워져서 한증탕속에라도 들어가는것 같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왔다.

손을 씻을 사이도 없이 차에 오른 영희는 손잡이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종이를 감아쥐었고 로동화를 조심스럽게 건사하느라고 무릎을 모두어 웅색하게 앉아있었다.

그런 영희를 곁에 두고 배차실앞을 지나느라니 마음은 마치 유리조박을 밟고 지나는것 같이 조마조마해왔다.

영희가 종전의 일을 모르고 있는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거리로 접어드는 길어구에 다달은 나는 문득 차를 세우고 창밖을 향해 턱짓을 했다.

영희는 무슨 뜻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의문

이 실린 눈을 깜박이며 나를 쳐다 보았다.

《수도가 있지 않소.》

그제야 차를 세운 까닭을 알아차린 영희는 긴 살눈섭을 내리깔며 조개턱우에 방석이 미소를 그렸다.

《아이 난 또... 어서 그냥 가세요. 시간이 없는 데 가서 씻지요 뭐.》

《얼른 내려서 씻고 오우.》

나의 무뚝뚝한 권유에 못이겨 수도가로 뛰어갔던 영희는 돌아올 때 바깥쪽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길어가지고 왔다.

《물온도계를 보니 기관이 열을 받는것 같애요. 새 물을 좀 넣고 가자요.》

운전실에서 뛰쳐나온 나는 서둘러 기관실덮개를 열어제꼈다. 그리고는 영희의 손에서 물바깥째를 받아 기관랭각계통에 부어넣었다.

줄줄 흘러드는 물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가슴속에는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새록새록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운행증을 받으러 배차실로 들어선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배차원은 다짜고짜로 눈을 부라리고 욕설을 퍼붓는것이였다.

《범 제소리 하면 온다더니 이리 좀 오라구. 뭐가 어찌구 어쨌어! 아까 하던 말을 다시 한번 해보라구 영! 다시 해봐!》

나는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한채 그대로 굳어져 있는데 갑자기 곁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돌아보니 2호기중기 앞에서 만났던 아바이었다.

《오늘 정말 수고가 많았수다.》

웃음을 거둔 그는 정색을 하고 나에게 말했다. 배차원도 그제야 거짓업포를 놓아보았다는듯 능청스럽게 빙글거리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이 반장동무가 오늘 46호차가 일을 잘해주어 작업능률을 올렸다구 사례를 전해달라던참이였네. 어디 그뿐인가. 로력절약은 또 얼마를 하구. 그리구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하면서도 오늘 운행실적을 보면 46호차가 제일이란말이야. 보라구 내 뭐라든가... 그래도 영희동물 싫다고 할텐가? 하하하...》

배차원은 나에게 턱을 들어보이며 껄껄 웃었다.

《저 46호차만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절대로 다른 건설장에 뺏기지 말아야겠수다. 정말 보배차웨다. 예, 배차원동무...》

진정이 담긴 아바이의 말이였다.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는 걱정으로 벽차올랐

다. 더 그자리에 서있기가 먼구스럽고 죄스럽기까지 한 나는 운행증을 받기 바쁘게 배차실을 나왔다.

다른 동무들을 이미 다 들여보낸 영희는 그때까지 혼자 남아서 차청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류달리 정갈하고 세밀하게 닦아진 차는 알뜰하고 끈진 영희의 손길을 구석구석 느끼게 했다.

《운전사동무, 이렇게 닦으면 되겠나요?》

소매를 걷어붙인 영희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레를 쥐고 선채 보아달라는듯 나에게 물었다.

나는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어떤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누가 차청소 해달랬소, 힘들지도 않아?...》

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부드럽게 울렸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야 나는 영희동무에 대해 품고있던 일종의 의문-때로 천진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영희가 무엇으로 해서 사람들의 높은 신망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 시대의 참된 일군에 대해, 그리고 참된 일군으로 사랑받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것처럼 달음치고 달음쳐도 따를수 없었고 애써 안으려 해도 안겨지지 않는 중대의 로련한 운전사들이 지니고있는 명예가 어디에서 솟아나는것인지 알지 못했으며 더구나 그것이 영희와 같은 그런 성품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것이다.

× ×

이튿날도 차를 몰아 건설장으로 나온 나는 은근히 오늘도 영희동무와 함께 일하도록 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없지 않았으나 배차원에게 그것을 요구할수가 없었다.

그런데 일은 뜻대로 순조롭게 되었다.

배차원도 내 심정을 들여다보았는지 아니면 어제 일에 재미를 본때문인지 다행히 또 영희네 조와 함께 일하도록 해주었다.

우리는 더욱 직심스럽게 일했다. 그랬던 덕에 그후 달포가 넘도록 줄곧 영희동무와 함께 차를 타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키동음하던 새거리건설장의 다층 건물들은 어느덧 축조가 끝나고 《웃》을 입기 시작했다. 미장모래를 대대적으로 실어들여야 했다.

우리도 모래를 실으라는 지령을 받고 아침일찍 기 모래터를 향해 떠났다.

차가 강쪽을 넘어서자 기슭을 스치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물비린내와 함께 싱그러운 버들 잎냄새를 실어왔다.

무연히 트인 강안 자갈밭을 꿰질러 난 차길을 따라 들어가면 강기슭에 굴착기 한대가 서 있었다. 그것이 모래 상차기였다. 속도를 놓아 잠간사이엔 그곳에 들이닿은 나는 상차장앞에 차의 꿈무니를 돌려댔다.

이미 작업준비를 끝내고 운전실에 앉아있던 굴착기운전공은 기다렸다는듯 쇠바줄을 풀어 무쇠 바가지를 강판에 내던졌다가 잡아끌었다.

육중한 바가지가 쇠바줄이 감기는대로 끌리면서 모래바닥을 긁어 담더니 허공에 들리웠다.

이때였다.

《운전공동무! 실지 마세요. 실지 말아요.》

하는 야무진 목소리가 굴착기 동음을 뚫고 들려왔다.

차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니 영희가 굴착기운전공에게 손을 흔들며 다급히 웨치고 있었다.

모래바가지를 적재함으로 돌리다 멈춰세운 굴착기운전공은 영희쪽으로 몸을 수직하고는 청을 돈구어 물었다.

《왜 그러우?》

영희가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기계소리때문에 들을수가 없었다.

그러자 모래바가지가 들린채로 되돌아가더니 광하고 모래강판에 떨어졌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가 없었다.

《운전사동무, 이 모래는 안되겠어요. 보세요, 자갈이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어느새 영희가 모래 한삽을 떠가지고 다가와서 내앞에 내밀었다.

삽으로 시선을 옮긴 나는 못볼것을 보기라도 한듯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아니 전번에 왔을 땐 모래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왜 이런가?》

《운전사동무, 차를 빼세요. 이런걸 싣고 가면 안되겠어요.》

상차장에서 차를 빼여 길가턱에 내다세운 나는 운전실에서 나와 모래볼에 풀썩 주저앉았다.

아침부터 손땀이 풀렸다.

다른 모래상차장이란 상강모래장밖에 없는데 그곳은 웬간히 먼거리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두행보를 땀 시간이면 한행보도 하기 힘들었다.

인력상차를 해가자고 해도 시간타산이 맞질 않았다. 인력으로 실을수 있는곳은 강을 따라 밑으로 얼마 더 내려가면 여울목기슭에 모래터가 있는데 그곳에도 좋은 모래는 이미 다 동이 나고 남았다는것이란 고작해서 삽날 한기장두터이나 되나 마나한것이 있을뿐이었다.

그런 모래를 걷어모아 한차를 채우자면 힘든것은 고사하고라도, 여간만 시간을 늦잡게 되는것이 아니었다.

《영희동무, 어떻게 하겠소. 그대로 한차 싣고 갑시다. 아무러면 채에 치지 않고 쓰겠소.》

생각다못해 이런 의견을 내놓자 영희는 놀라듯 눈을 크게 떴다.

《아이 채에 쳐서 써도 웬만해야지 이런 혼석을 어떻게 미장모래라고 실어다주겠나요.》

《그럼 어찌겠소. 이런것밖에 없는걸... 싣고가서 정 안받겠다고 하면 콩크리트를 치는 가열장기초 혼합장에라도 한차 먹읍시다.》

나는 영희에게 사정하다싶이 말했다.

《어마나 현장에서 지금 미장모래가 긴장해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모래를 싣고가자요.》

영희는 도리어 나에게 사정하다싶이 했다. 나는 더 우길수가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영희는 삽을 들고 굴착기가 놓인 아래쪽으로 종종걸음을 쳐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감자이삭주이하듯 여기저지를 파보기 시작했다. 역시 자갈이 섞인 모래판인가보았다.

실망한 영희는 이번엔 다시 굴착기 옷쪽으로 올라가 강바닥을 파보았다.

《운전사 동무! 여기 좋은 모래가 있어요.》

얼마후 영희의 환성이 들려왔다.

나는 호기심이 당겨 그쪽으로 다가갔다. 잔잔한 물결이 아침해빛에 아롱지는 물가덕에 모래구덩이를 파고있는 영희는 마치 신기한 보물이라도 찾아낸 소녀처럼 기뻐했다.

《운전사동무, 이것보세요. 계속파도 그냥 사각사각하는 모래뿐이에요. 이것을 좀 실어달라고 하자요, 네.》

《저 사람이 말을 들어주겠소?》

나는 그 모래를 파자면 굴착기가 옮겨앉아야 할텐데 운전공이 순순히 응해주겠는가 의문스러웠다.

《사정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나 좀 실게 해야지요 뭐.》

영희의 얼굴에는 꼭 될수 있다는 신심이 력연

했다.

《좌우간 말이나 비쳐봅시다. 거야 뭐 힘든 일이요.》

나는 굴착기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방금 다른 차 한대를 실어보낸 굴착기운전공은 마침 대기중이었다.

《수고합니다. 운전공동무.》

내가 인사를 건의자 굴착기운전공은 무슨 용무냐는듯 불깃한 얼굴을 돌려 억실억실한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직관으로 용건을 내비쳤다.

《저 옷쪽 모래를 좀 실어줄수 없겠소?》

어느새 곁에 다가선 영희가 놀라며 나의 옆구리를 가볍게 찔렀다.

어쩌면 부탁해보이는 첫 마디가 그렇게 투박한가 하는 책망이었다.

굴착기운전공도 짜장 그런감을 느꼈는지 붓초리같은 눈썹꼬리를 대뜸 치켜올렸다.

《어째서 그러는거요?》

《여기 모래는 자갈이 많이 섞였구만. 이 옷쪽 모래판이 좋은것 같은데. 굴착기를 조금만 옮겨서 실어주구려.》

순간 굴착기 운전공의 얼굴엔 어이없어 하는 랭소가 스쳤다.

《흥 굴착기가 뭐 동무네 하나를 위해 나와있는 줄 아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편의 똑한 말투가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거슬러놓아서인지는 몰라도 첫인상부터 거만기가 풍기는 굴착기운전공의 태도가 아니꼽기 그지없었다.

《동무, 내 말이 뭐 잘못된게 있소? 우리는 미장모래를 실어가야겠기에 사정하는게 아니요.》

《이 사람 저 사람 요구하는데로 여기저기 강바닥을 얼럭덜럭하게 파놓을수 없단 말이요. 동문이 굴착기가 강바닥파내기를 하는 기계란걸 모르오?》

굴착기운전공의 언성은 금시에 거칠어졌다.

나는 속에 주먹치밀듯하는것이 있었지만 자제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사업한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굴착기운전공을 두고 무작정 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시비할 근거는 없는것으로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됐소. 강바닥파내는기계요 뭐요 하며 여러 말 할게 있소. 못해주겠으면 그만둘게지.》

나는 영희에게로 돌아서며 아무거나 한차 싣어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영희는 능히 잡을수 있는 고기를 우둔한 그물질로 놓쳐버리는것 같았던지 급히 나를 밀어놓고 성큼 굴착기운전공앞으로 다가섰다.

《운전공동무, 노여워 마세요. 그런걸 모르고 부탁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새거리건설장에 일어서는 건물이 마감단계에 들어갔는데 미장모래가 떨어져서 그러지 않나요. 운전공동무가 해주시려고만 한다면 그게 문제겠나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려결시키면서 파낼수 있지 않겠나요.》

영희는 나의 말투와는 대조적으로 상냥하게 간청했다.

하긴 영희의 말도 이유가 서지 않는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굴착기운전공이 우리 차 하나를 위해 그렇게 할수 없다는 시끄러운 생각때문에 그런것이지 진정 나라의 주인된 립장에서 국가에 유익하게 일해야 한다는 옳은 관점만 가진다면 그런 일쯤은 얼마든지 해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뒤틀린 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굴착기운전공은 좀체로 영희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난 동무네 미장모래를 실어주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소. 한데 저 동무 말하는걸 보우, 지령장보다 권한이 더 높소. 헛참...》

굴착기운전공은 서슬진 흰자위눈을 내쪽에 흘겼다.

나는 그의 말이 돌로 정수리를 치는것 같아 당장 대들이를 하고 싶었으나 영희를 위해 참았다.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만 넓게 리해하시고 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영희는 물려서지 않고 굴착기운전공의 토라진속을 돌려세우느라 끈지게 설명하고 사정하는것이였다.

같은 국가사업을 하며 저렇게 처녀의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빌붙지 않으면 안된단말인가.

영희의 태도가 심히 졸렬하게까지 느껴진 나는 나의 자존심까지 희롱당하는것 같아 더 참을수가 없었다.

《영희동무, 갑시다. 여기 아니면 모래를 못 싣겠소.》

나는 되지도 않을것을 가지고 공연히 시간만 지체시키고 모욕(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였다.)을 당하고 서있는 영희가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되어 핵 돌아서며 열기를 띠고 웨쳤다.

굴착기운전공은 지름튼 눈을 내쪽에 일별하고는 돌아앉으며

《자 일해야겠고. 저리 비키시오.》하고 운전손잡

이를 쥐었다.

그제야 넓게 담았던 미소를 거둔 영희는 얼굴에 정색한 표정을 띠었다.

굴착기운전공을 쏘아보는 눈에는 금시에 싸늘한 빛이 어렸다. 짙막한 침묵을 깨뜨리는 목소리마저 준절하게 변했다.

《동문 너무해요. 동문 우리가 부탁하는 일을 지금 어느 한 개인의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건가요? 지금 새거리건설장에서는 얼마나 긴장한 전투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문 우리시대 일군 같지 않군요.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일을 두고 사업한계만 따지면서 귀중한 국가의 설비를 마치 제것이기나 한것처럼 틀어쥐고 세도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부탁하는데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럴수가 있겠어요.》

《뭐요?!》

방금전까지 머리속여 애걸하던 한갓 애송이로 보이던 처녀가 갑자기 돌변하여 무게있는 말을 쏟아놓는데 어정쩡해진 굴착기운전공은 눈을 부릅뜨고 영희를 쏘아보다가 외면해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렇게 단매에 격일수야 있냐하는 뚝심이 불끈거리고있었다.

《보세요, 모래라는것이 이렇게 절반이나 자갈이 섞였으니 건설장에서는 미장할 모래 한차를 얻자고 두차를 채에 쳐야 하지 않겠나요. 그들이 열차를 요구하면 우리는 스무차를 수송해줘야 할게구요. 그뿐인가요. 또 채에 걸린 돌은 몇차를 실어내다버려야 하겠나요. 이러니 수송물동량은 얼마나 더 늘어나며 연유랑비는 또 얼마나 많겠나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금년에도 절약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연유를 극력 아껴쓸데 대하여 것처럼 간곡한 교시를 주시지 않으셨나요. 당정책에 조금이라도 관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요구에 것처럼 랭담할수가 있겠어요.》

순간 나는 가슴이 섬찍해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영희의 말은 바로 나의 심장속에도 호소해오는 말이였다.

(내 언제 한번 영희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사고해본적이 있었던가.)

나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어졌다.

형언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맑은 물기에 어린 영희의 눈에서는 부정앞에 나약해서는 안된다는 결기가 뿜어 나왔다.

《동무가 안실어준다고 우리가 모래를 못실어가

진 않아요. 시간이 좀 지체될뿐이지요...운전사동무! 차를 저쪽에다 대주세요. 물에 잠긴 모래라고 못실어가겠나요.》

말을 맺은 영희는 본연히 돌아서 샅이 꽂혀있는 모래장으로 걸어가었다.

내가 차를 그쪽에다 대기 바쁘게 적재함문을 내려놓은 영희는 발목이 잠기는 물속에 침병 하고 뛰어들어 담차게 모래를 떠서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좀전의 영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희를 발견하는것 같았다.

자신도 알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샅을 찾아친 나는 그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었다.

이때 운전실에서 뛰어나온 굴착기운전공이 싸움이라도 걸듯이 다가와 영희의 손에서 샅을 획 잡아채었다.

《왜 이러세요?!》

영희는 매서운 눈길로 운전공을 쏘아보았다.

《새거리건설은 동무 혼자 다 하오? 왜 이리 도고해서 야단이요. 량심은 동무에게만 있는것 같소!》

그리고는 샅을 모래판에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운전실로 다시 올라갔다.

나는 뉘엿이 그의 행동을 바라보았다.

무겁고 어정쩡한 침묵이 얼마간 흘렀다.

이윽고 육중한 굴착기가 움쉴거리더니 무한께도 사슬소리와 함께 영희쪽으로 몇걸음 돌아앉았다.

그렇다, 우리 청년들이란 이런것이다.

굴착기운전공도 역시 심장만은 뜨거운것이 아닌가.

숫모래판에 던져졌던 바가지가 소담한 모래를 듬뿍듬뿍 떠서 적재함우에 푹푹 쏟아주자 자동차의 스프링이 움쉴움쉴하며 내려앉았다.

《자 속시원히 됐소?》

모래상차가 끝나자 굴착기운전공은 영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

영희는 미처 대답을 못찾는데 눈에서 반짝이는 물기가 더 많은 대답을 해주는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고 할 때 청년은 무뚝뚝하나 진정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새거리건설장 차들을 모두 데리고 오시오.》

《네 알겠어요. 고마와요.》

영희가 차창밖으로 고개를 끄떡여 대답하자 처음으로 보는 굴착기운전공의 대문이가 두터운 입술사이로 비죽이 드러났다.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아침해가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정갈한 포장 도로를 따라 차는 경쾌하게 달렸다. 영희의 기분은 가신듯이 맑아졌다.

좀전의 그 엄숙하고 준절했던 빛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노상 가실줄 모르던 미소가 다시 얼굴에 살아나 남실거렸다.

여기서 나는 잠시 굴착기운전공의 마음과 그 웅고집이 돌변하게 된 심적과동에 대해 스쳐버린 사연을 밝혀야겠다.

그때 나는 굴착기운전공이 영희의 호소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해서 그를 주시하고있었다.

새로운 깨우침으로 절절히 가슴속에 스며드는 영희의 그 호소는 너무나도 강렬한것이어서 나로 하여금 남의 마음에 관심할 계제를 못가지게 하였던것이다.

눈은 운전공에게로 향했으나 보는것은 나의 마음속이었다.

내판에는 그래도 오늘까지 남부끄럽지 않게 일한다고 생각해왔다.

하나 내가 자부했던 량심이란 고작 자동차운행의 톤기로수만 높이는데 머물러있지 않았는가.

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첫자리에 놓고 사고하고 당에서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누가 시키건 말건 스스로 일을 찾아하고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본새,

그리고 옳은것이라고 생각하면 추호의 양보도 없이 이악하게 집행해내고야마는 영희의 이런 성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비로소 깨달은듯싶었다.

바로 여기에 내가 것처럼 부러워마지않는 중대의 로련한 운전사들과 같은 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는 비결이 숨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시대 일군의 높은 명예는 내가 내세웠던 그런 사업실적이나 공명에 있는것이 아니라 영희와 같은 그런 성품속에 깃들어있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푹푹히 깨닫게 되자 바로 그런것을 나의 심장속에 가꾸어주고있는 영희가 말할수 없이 고마왔다.

나는 오늘까지 차마 영희앞에 전하기 거북했던 말이었으나 더는 그대로 혼자의 가슴속에 숨겨둘수 없는 사연이어서 조용히 실토했다.

《영희동무, 집중화물역 건설지휘부에서 우리 사업소에 통보해왔더군요.》

불쑥 꺼내는 나의 말에 호기심을 가진 영희는 자리를 바투하며 다우쳐 물었다.

《통보라니요. 아니 무슨 일때문에요?》

《그때 우리가 집중화물역에 맨 선참으로 자진해서 잔토를 실어다주지 않았소? 하긴 난 억지루 동무한테 끌려서 마지못해 하긴 했지만… 그후에도 난 동무의 열성에 감동되어 몇번 자진하여 잔토를 실어다줬지, 그래도 중대장동무가 운전사들이 모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할 때 마음이 거북스럽다못해 괴롭기까지 하였댔소.》

나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였으나 영희는 까르르 웃었다.

《호호호… 그럴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그날 저한테 치미는 화를 참아주신것만도 얼마나… 호호호.》

《…………》

《그날 우리 차가 빠져서 고생할 때 달려와서 도와준 사람들속에 어느분이 차번호를 기억해두었던가보지요?》

영희는 새별같은 눈을 반짝이며 두손을 모아잡고 기뻐했다.

차는 나의 후더운 마음과 영희의 즐거운 마음

을 싣고 어느덧 건설장어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 ×

새거리는 바야흐로 면모를 일신해갔다.

우리 대상건물은 새거리에서 선참으로 준공식을 했다.

나는 분에 넘치게도 두개의 표창을 받고 차에도 붉은 별이 새겨졌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나의 마음은 나로서도 알수없는 서운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청년돌격대원으로 새거리건설에 참가했던 영희는 공사의 준공과 함께 다른 건설장으로 떠나는것이다.

마감정리작업으로 혼자 남았던 나도 다시 다른 건설장으로 떠나게 된다.

나에게 운전대를 바로줘준 영희에 대한 고마운 생각과 함께 그가 이제는 곁에 없다는 섭섭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해진

김재원

아침 해돋이에
네 이름 담을가
피어나는 노을에
내 노래 없을가
여해진, 여해진

고향아, 나를 낳은 산천아
마천령 남쪽기슭에 북대천 끼고
바다가 번두리에 눈을 풀었건만,
수천년 조상들은 너의 노래, 고향민요를
한편도 만들지 못했구나

이름없던 고장이어서
노래조차 생기지 못했더냐,
노래없던 고장이어서
네 이름 백리밖에도
퍼지지 못했더냐

하건만 오늘은 수령님 해빛아래
얼마나 많은 영웅들의 고향란에
얼마나 많은 당원들의 자서전에
네 이름 빛나게 적혀있느냐
노래처럼 민요처럼, 여해진 여해진.

어버이수령님 먼 길에 오셨던
파도 잔잔히 이는 맑은 도래곶이…
행복의 물결에 몸을 잠그며
조개 줏고, 모닥불 피우며

고향 모래불에 첫 야영을 보낸 아이들,

행복한 세월,
정다운 고향의 그 모든것이
수령님 안겨주신 조국이라는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조국건설의 날에 당원으로 자랐다
그들이 조국수호의 날에 영웅으로 자랐다

내 또한 총잡고 눈비에 젖으며
조국을 지켜선 나날에
조국 위한 사랑의 마음
내 가슴속에 참대숲처럼 무성하게 자라
나도모르는 사이 시인으로 자랐다

그렇건만, 떠나
멀리가면 갈수록
너는 더더욱 가까이 따라만 오더라
못잊을 나의 동요시절의 추억을
노래처럼, 민요처럼 안고

오오! 아니구나
어릴적 추억만이 있어 고향이 아니였구나,
태를 묻고 자랄 때 나를 안아준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
그 사랑을 못잊어
고향이여, 너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내 마음이 아니냐!

빛나라 《과수의 고향》

방정강

여름밤, 두드리면 쟁강쟁강 소리를 낼듯한 늦양푼같은 둥그런 보름달이 장가산마루우에 등실 높이 떴다.

달빛은 돌기돌기 기와를 한보새로 엮은 마을의 아담한 문화주택들에도 고즈넉이 흘러내렸고 푸르다못해 거무스름한 빛을 띤 과일나무의 촘촘한 잎들을 누비며 가지마다 조롱조롱 달린 사과알들을 환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침차로 수도에서 온 나는 지금 소읍동무인 김동무와 함께 줄줄히 흐르는 달빛을 안고 장가산마루로 오르고있다.

걸음걸음 얼마나 송엄한 생각을 불러내는 과원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그루 한그루 뿌리를 내려주시고 무성한 가지를 펼치도록 자래워주시고 온 나라에 본보기로 내세우신 이 과원.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풀쉴을 헤치시며 오르내리시고 오실적마다 오르신 이 언덕길,

그리고 것처럼 활짝 꽃피워주시고도 못내 잊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들이시여 사랑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신 이 과원!

해빛밝은 한낮의 과일밭풍경도 좋지만 달빛밝은 과일밭의 밤풍경도 황홀경이다.

밤길을 나설 때는 어깨 나란히 걸으며 술한 이야기들을 다감하게 나눌것 같더니 과원의 싱그런 밤정서에 심취되어 김동무도 나도 생각에 잠겨 묵묵히 언덕길을 오르고있다.

가슴속에 그냥 묻어둘수 없는 추억들이 봄풀썩처럼 돌아오른다.

산기슭에 들성들성 널려있던 과일밭, 양바툼한 소나무며 가독나무들, 그리고 길길이 자란 새초숲이며 엉경퀴... 이것이 예닐곱에 난 어린 소년, 나의 눈동자에 비껴든 고향의 산모습이었다.

이런 내 고향의 산발이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을 가까이 받아안게 되었으니 그것은 위대한신 수령님을 모신 감격의 그날부터였다.

열광적인 환호의 꽃물결 흐르던 고향!

수령님을 맞이한 기쁨에 뽕과리가 울리고 장새납이 춤을 부르던 밤, 어깨를 슬슬 추스르며 돈돌라리춤을 추면서 싱글벙글 돌아가던 마을사람들의 얼굴들...

눈에 삼삼 떠오른다.

하늘 층천에 날리던 프랑카드며 붉고 푸른 기발들.

검붉은 팔들을 휘두르며 장가산, 두루봉 비탈의 풀뿌리와 나무뿌리를 뽑아던지고 산을 깎아내

고 바위를 깨내며 층층 만년대계의 돌계단을 쌓고 한그루 또 한그루 애어린 과일나무를 심던 무수한 낮과 밤.

물초롱을 들고 뛰어다니던 붉은넥타이의 김동무와 나...

참으로 세월이 흘러흘렀어도 기억은 어제 있는 일처럼 새로웁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이 첫걸음마를 떼던 때에, 우리 말과 글을 배우던 때에, 붉은넥타이를 앞가슴에 날리며 빨강고 향기로운 사과를 쥐고 산봉우리고 오르던 때에 그리고 고등전문, 대학시절에도 내 고향을 찾아주시었다.

진달래꽃, 철쭉꽃 피던 이른봄날, 사과꽃, 배꽃이 꽃망울 터뜨리던 나날들, 과일열매 동글동글 커가던 때... 그리고 이런 여름밤!

깊어지는 생각과 함께 어느덧 우리는 장가산마루에 올랐다.

달빛은 아롱아롱 밀림처럼 우거진 과일나무숲에 부서져내린다.

《쓰룩, 쓰룩...》

쓰르라미의 울음소리며 잠 못드는 새들의 푸르럭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달빛의 바다우에 송엄한 자태를 드리내는 과원은 위대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고요히 설레이고있다.

《김동무!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던 때의 일이 떠오르나?》

과원의 밤풍경에 저으기 격동된 나는 가까스로 흥분을 누르며 김동무에게 물었다.

《아무렴 생각나구 말구, 나도 지금 그때 일을 그려보고있네.》

《참 감회가 새롭네.》

똑같은 마음이다. 열여덟해전, 송아지동무적 기억을 더듬는다.

노고지리 우짚던 4월봄날이었다.

그날 우리 조무래기패들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남대천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있었다. 김동무가 반두를 잡고 내가 물때 올라 매끝매끝한 돌들과 풀쉴을 들추어놓으며 고기를 몰아간다. 그러면 잠간새 반두에 봉어며 버들치, 소천어가 무드기 잡히었다.

우리들이 다래끼에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신명나게 주어담으며 와그르르 부산을 피우던 때였다.

우리들가운데서 어느 애인가

《애들아!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신다!》하고 되알

진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어디냐, 어디?!》 눈들이 반짝인다.

환성은 높이 울리었다.

마을어귀 연두색물오른 버드나무아래로 까만 승용차가 햇빛을 담뿍싹고 들어서고 있었다.

다래끼며 반두를 풀술에 던졌다.

낯시대도 팽개쳤다.

나는 김동무와 함께 종주먹을 쥐고 장달음을 놓았다.

우리가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마을은 환영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물밀듯이 밀려든 사람들의 담벽을 요리조리 빠지려는데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이 어깨를 잡았다.

우리의 과수원 《습격》을 너그러운 구슬리며 곧잘 사과를 주던 과수막집할아버지였다.

《이녀석아, 이리 오너라.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과일동산을 안겨주시려구 우리 수령님께서 오시었구나. 어서 수령님을 뵈와라.》

할아버지는 빙글빙글 웃으며 나를 넉넉히 들어 목마태워주었다. 김동무도 그 누군가의 어깨우에 올랐다.

얼마나 뵈우고싶던 아버지원수님인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가슴이 뭉클하였다. 어린 나의 두볼로는 맑은 이슬이 방울져내리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

만세의 환호성은 내 고향산천을 우렁차게 뒤흔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은 대규모적인 자연개조사업이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세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사업!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의 행복을 위해 것처럼 뜨거웁고 것처럼 진정 어린 사랑을 고스란히 기울이시는 아버지수령님!

《참, 아버지수령님을 처음 뵈웁던 그때를 그려보면 마음이 절로 흐뭇해지구 감회가 깊어지네.》

《나도 수도의 창가에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버지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를 한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운다네.》

역시 한마음이였다.

우리는 장가산마루에서 우리의 어린시절에 심어진 나무들이 10년 또는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으며 아름답리 거목으로 자라나 밀림으로 총총 우거지고있는 모습을 흐뭇히 바라보았다.

달이 사과나무에 걸렸는가,

사과나무가 달을 안았는가!

동그런 보름날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였던 그 밤을 못잊어 차마 못잊어 과원을 못떠나는듯싶다.

여름밤, 여름밤이 깊어간다.

다섯해전 6월!

그 잊을수 없는 날에로 생각의 나래를 펴간다.

김동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그날의 감격을 들려주었다.

아버이수령님을 또다시 모신 그날의 고향산천이 방불히 그러졌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지척에 두고 그냥 못지나치는 친부모의 심정을 안으시고 먼 북방의 현지도도를 마치시고 수도로 돌아가시던길에 여기 북청땅에 들리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천천히 거니시며 품에 안길듯 다가서는 한여름의 과일밭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다고 과수원 만들기에서 수고도 많았다고 치하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시었다.

과일밭만들기와 그 가꾸기에서 나서는 모든 방도와 방법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주시고 걸린 문제들을 하나에서 열가지, 백가지 다 풀어주시었으며 그러시고도 그 모든 성과는 인민에게 돌려주시고 이고장을 《과수의 고향》으로 잘 돌봐주라고 내 고향의 머리우에 영원한 사랑을 얹어주신 아버지수령님!

때로는 친필로, 때로는 전화로 일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사랑!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끝이 없다.

정녕 조국의 모든 산천이 다 그러하듯 내 고향산천도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운 햇빛아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천으로 빛나게 되었다.

그래서 고향, 조국이라는 그 이름 부르면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먼저 떠오른다.

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의 거룩한 자욱우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목청껏 자랑하며 부르고 싶은 《과수의 고향》내 고향!

온통 가슴에 희열이 넘쳐흐른다.

밤도 깊고 이야기도 깊어간다.

고임돌

황장용

《<5.18무사고정시건인초과운동>에서야 어디 뒤지는 동무들이 있습니까. 한사람같이 모범이지요.

자랑갑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기관사들이 지금 종전보다 더 많은 화물을 끌고 무사고정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동무는 실화문학을 쓰려고 한단데 제가 좋은 원형을 소개하지요. 기관사는 아니지만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철도 부문에서 몸바쳐 일해온 충실한 당원입니다...》

함흥철도국의 한 일군은 매우 친절하게 취재대상을 알선했주었다...

단전에서 열차를 타고 허천쪽으로 험한 산, 높은 령을 넘으며 몇시간 달리느라면 단풍선의 거의 마감인 하흥구역에 이른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부전령산맥의 봉우리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자리잡은 하흥구역, 여기서 30년을 하루와 같이 혼자서 역을 성실하게 지켜오는 당원 리영길동무가 일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구호나 웨치고 말로만 조국을 건설하자고 부르짖을것이 아니라 실질사업에서, 경제건설에서 모범이 되고 선구자로 되어야 합니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두줄기 철길위에 한생을 빔내여오는 리영길동무는 참된 삶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걸어온 행로를 통해 그리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통해 말없이 보여주고있다.

《저를 하흥구역에 보내주십시오》

1950년 2월.

산골 인민들의 려행길까지 보살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여기 하흥군에도 역을 새로 내오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영길동무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다.

(인민들에게 언제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가 되어 하흥구역에서 한생을 꽃피워가리라!)

그의 마음은 벌써 하흥군으로, 하흥군으로 달려갔다.

그때 함흥열차구에서 일하고있던 영길동무는 철도국을 찾아갔다.

《저를 하흥구역에 보내주십시오.》

《하흥군엘...》

밀도 끝도 없이 들이대는 그의 말에 철도국의 한 일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흥군이 심심산골이란걸 알고있소?》

일군은 의혹에 찬 눈길로 영길동무를 쳐다보았다.

사실 새로 생긴 이 역에 사람을 보내야 했으나 하도 외진 산골역이라 선뜻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때 아직 20대의 청년이던 그의 앞길에는 배움의 길도 열려있었고 못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일터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영길동무는 자기의 결심이 드팀없다는 듯 천천히 말했다.

《하흥군이 외진 산골이지만 조국의 땅이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철길이 아닙니까. 저는 그곳이야 말로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이 넘친 그의 이야기를 듣던 일군은 영길동무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그가 역에 도착하던 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역에 정중히 모신 영길동무는 안해와 조용히 마주앉았다.

《어떻소? 산골에 오니-》

《언젠가 당신은 꽃은 심심산골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해의 대답에 영길동무의 얼굴엔 못내 대견한 미소가 넘쳐흘렀다.

《웁소. 아버지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충성의 마음을 활짝 꽃피워보지요.》

이렇게 영길동무는 산중의 수송초소, 하흥군에 첫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전쟁의 상처는 이 역에도 혹심하였다.

역사는 간데없이 날아나고 열차취급설비도 여

지없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보관듯이 다시 일떠 세우고 한몫 바쳐 튼튼히 지켜가려는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영길동무는 밤낮을 줄곧 역에서 살았다.

그는 구내철길과 열차취급설비를 복구하고 역사도 새로 지었다. 벌거숭이 된 역주변에 수백그루의 나무를 옮겨심고 해마다 갖가지 꽃들을 피워 열차들이 꽃발속을 누비게 했다.

그는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역을 더욱 극성스레 꾸려나갔다.

어느해에는 산에서 돌을 날라다 잠시간마다 쪼아서 수십메터의 웅벽을 쌓았고 또 그 다음해에는 석비레로 역구내를 말끔히 포장했다. 역을 혼자서 말아보다나니 잔일, 큰일 하나부터 열까지 영길동무의 손을 기다렸다.

힘에 부칠때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나라 없던 지난날 《련결수》로 갓은 모멸과 천대 속에 살아온 자기를 어엿한 나라의 주인, 혁명초소의 주인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더욱 용기를 내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꽃피는듯 역의 면모는 날을 따라 달라지고 언제나 무사고의 영예가 빛났다.

한번은 조직에서 오래동안 가족들과 함께 심심산골에서 일하고있는 영길동무를 위해 그가 단천쪽으로 옮겨와 일할것을 권고했다.

조직에서는 영길동무에게 말하면 잘 뜨려 할것 같지 않아 그의 안해에게 먼저 알려 이사준비를 하게 했다.

그리고는 영길동무를 찾아서 《설복》하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크고 생활도 적적할텐데 이젠 다른 사람과 바깥시다. 이쪽이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하기도 나을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길동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였다.

《하흥군이 산골이긴 하지만 조국의 철길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초소이구 누구든 여기를 지켜야 할게 아닙니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보다 더한 산골도 몸소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다 같이 복된 생활을 누리도록 심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그저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초소를 잘 지키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만 앞서지 하흥군을 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자각, 이런 심정속에 영길동무는 자기의 혁명초소를 변함없이 지켜왔다.

그의 직종은 무엇인가

영길동무는 오직 한마음한뜻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일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충성의 나날을 수놓아왔다.

열차를 맞고보내는 일부터 시작하여 차표를 팔고 기다림칸을 거두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길동무의 손이 가야 했으므로 여간 바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거리를 찾으며 한가지 일이라도 더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10년전 초봄 어느날이었다.

온밤 무슨 생각을 하는듯 뒤척거리던 영길동무는 어느때없이 일찍 안해를 깨웠다.

《여보, 세바우골에 보리를 심으면 어떻겠소?》

《세바우골에... 보리라니요?!》

안해가 갑자기 웬말이냐는듯 물었다.

영길동무는 안해가 더 다른 말을 할사이 없이 어둡속으로 사라졌다.

(세바우골, 보리...)

혼자서 곱씹어보던 안해는 며칠전 남편이 밤늦도록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연구하며 손님들에게 보리차를 공급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던 일이 떠올라 그의 말에 짐작이 갔다.

얼마후였다. 그날도 남편을 도와 밭을 일구던 안해는 혼자말처럼 외쳤다.

《이 돌천지에 보리가 될가요? 괜한 수고만... , 뜨끈한 물을 떨구지 않고 공급해도 손님들은 무척 좋아하던데요.》

안해는 남편의 생각이 여간 돋보이지 않았으나 이 산밭에서 무슨 보리가 되겠냐는듯 말했다.

《힘이야 들겠지.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 기울이시는 로고를 생각하면 그까짓것이 뭐겠소.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이 우리들의 본분이 아니겠소. 힘든 일은 내놓고 쉬운 일만 해서야 위대한 수령님께 어찌 기쁨을 드린다고 할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며 영길동무는 팽이를 더욱 힘있게

박았다...

그때부터 영길동무의 생활에는 새벽이면 역에서 10여리나 되는 세바우골의 보리밭을 가꾸는 일과가 새로 생겨났다.

영길동무는 날마다 돌을 취내고는 흙을 날라다 밭을 돌고 두엄을 모아서 땅을 갈고있다.

어느날 밤이었다.

영길동무는 창문을 때리는 비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밖에서는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퍼붓고있었다.

비웃을 찾는 남편의 말귀를 알아차린 그의 안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가 좀 지나면 가시구려. 다 해놓은 보리농사가 하늘로 날아나겠소. 원 성미두...》

듣는동안은 듣는 남편의 눈길은 벌써 세바우골로 향하고있었다.

그날밤, 온밤 비를 맞으며 밭에 물끓을 내고 비바람에 한대의 보리라도 넘어질세라 선손을 쓰는 영길동무의 모습이 번개속에 보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 꽃이 핀다고 영길동무의 땀방울이 그대로 알알이 영근듯 밭에는 보리이삭이 설레었다.

첫 보리차를 만든 날, 안해는 영길동무에게 차를 한고뿌 따라주었다.

노르스름한 색깔이 도는 보리차를 한참이나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는 안해에게 도로 내주며 말했다.

《나라의 땅에서 손님들을 위해 지은건데 내가 먼저 먹어서야 되겠소. 자 어서 손님들에게 내가요.》

그리고는 안해의 뒤를 따라나와 기다림칸의 난로불을 더욱 돋우었다.

따끈한 보리차를 마시며 기뻐하는 손님들을 바라보는 영길동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어렸다.

그후에도 영길동무는 자기 힘으로 해마다 밭을 더 늘리고 콩과 들깨도 심어서 보리와 섞어 밭에 있는 보리차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공급하였다.

그가 10년동안 하루도 번지지 않고 손님들에게 공급한 수만여리터의 보리차, 그 나날에 보리차를 받아든 손님들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던 웃음, 정녕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민을 위

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성실하게 일해가는 보람찬 길에서 혁명초소의 주인된 영예를 빛내여가는 영길동무의 뜨거운 마음이 피워놓은 충성의 꽃이었다.

30여년간이나 혼자서 역의 친절한 《안내원》, 《출표원》으로, 역사를 알뜰히 관리하는 《역무원》으로 일해오는 영길동무는 몇해전부터 또 《도서보급원》의 일까지 맡아하고있다.

그는 손님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잠시간에도 학습할수 있도록 군도서관과의 연계밑에 역에 《이동도서실》을 내왔던것이다.

자신의 수고를 생각하기전에 인민들의 려행길을 두고 깊이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는 영길동무가 해놓은 일을 이야기하자면 실로 끝이 없다.

하기에 사람들이 영길동무에게 무슨 수로 그 많은 일을 다 하는가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인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지혜도 생기고 힘도 나는 법이지요.》라고

옹달샘

(옥에는 설사 티가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전사의 량심에는 한점의 티도 없어야 한다!)

이것은 영길동무가 어느 한 시각도 잊지 않고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있는 신념이다.

어느해 겨울이었다.

영길동무는 역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여름내 모아놓았던 막돌로 역울타리를 늘이고 있었다.

울타리공사가 거의 끝날무렵 갑자기 추위가 터져 일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영길동무는 열이 몹시 나서 몸이 불덩어리같았다.

안해는 이날도 마지막 열차를 보내고 또다시 울타리일을 하려고 나서는 영길동무를 불렀다.

《몸이 아플 때야 하루쯤 신단들 뒤편에 누워보는것도 아닌데... 제몸도 좀 돌봐야 할게 아니요.》

《제몸은 귀하구 나라일은 중하지 않소. 물론 내가 하루 쉰다고 탓할 사람두 없거니와 알 사람

도 없소. 그러나 누가 보지 않을수록 자신을 채찍질하며 일해야 충성의 마음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안해는 진작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못한것이 가슴에 마쳤다.

안해는 말없이 그를 따라나섰다.

걸음을 옮기는 안해의 머리에는 몇해전에 있었던 일이 되살아났다.

...몇해전 어느날

영길동무의 집에서는 만파의 잔치가 있었다.

조직에서는 20여년이 넘도록 하루의 휴가도 휴식일도 받지 않고 일해오는 그에게 딸의 잔치날 만이라도 꼭 쉬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다.

그리고 영길동무를 대신하여 역일을 맡아볼 사람도 보냈다.

사람마다 그가 이날만은 쉬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결혼식날 아침, 사람들은 이날도 여느때와 같이 정복을 입고 렬차를 맞는 영길동무를 보며 여간 놀라지 않았다.

모두들 그에게 물었다.

《아바이는 기쁘지 않습니까. 왜 오늘도 이렇게...》

《기쁘기야 만사위를 맞는 내 마음이 여복하겠나. 기쁠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물론 오늘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줄수는 있어도 이 내 마음만은 대신해줄수 없을걸세. 사위도 내 마음을 알면 누구보다 기뻐할걸세.》

언제나 변함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 안고 초소를 지켜가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느끼며 저저마다 혀를 찼다...

이날도 영길동무는 안해와 함께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끝내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가 철길옆에 파놓은 웅달샘에 이르렀을 때

였다.

《여보, 저 샘물은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솟구쳐오르고있지 않소. 티 하나 없이 맑게 말이요.

우리의 가슴속에서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언제나 변함없이 솟아나도록 참답게 삼시다.》

자기의 말을 되새기는 영길동무도, 그의 안해도 새로운 결심으로 가슴이 뿔뿔였다.

× ×

하홍구역은 그대로 하나의 잘 꾸러진 공원을 련상시킨다. 역사는 물론 철도주변까지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 벌과 나비를 끌고 있다. 철길 주변에 풀은 말끔히 깎이었고 자갈다짐은 일매지게 고르로운것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이 모든 것에는 쉬임을 모르는 리영길동무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 영길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빈틈이 있을세라 일을 짜고들어 분과 초를 긴장히 보내고있다.

그와 헤어지기에 앞서 이제 나이도 많은데 좀 편한곳으로 옮기는게 어떻겠는가는 권고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별로 한 일도 없이 귀밑은 희였어도 마음만은 여기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나 같습니다.

비록 이 역이 크진 않고 소문날 일도 없어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라고 생각하면 나이도 젊어지는것 같고 역일을 잘해보자는 생각에 잠도 끼니도 잊군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그 어떤 보수나 명예도 바람이 없이 묵묵히 충성다해가는 그야말로 나라의 동맥을 받들어 변함없는 혁명전사의 구감으로, 영원한 고임돌로 성실한 삶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